

대순사상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

- 4대 증지를 중심으로 -

楊茂木*

目次

I. 연구의 시각	IV. 신인조화와 민주주의
1. 민족종교 사상과 민주주의의 발전관계	1. 신인조화 사상의 의의
2.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인류 구원 사상으로서의 대순사상	2. 신인조화와 민주주의의 관계
II. 음양합덕과 민주주의	V. 도통진경과 민주주의의 이상
1. 음양합덕 사상의 의의	1. 도통진경 사상의 의의
2. 음양합덕과 민주주의의 상관성	2. 도통진경과 민주주의의 이상
III. 해원상생과 민주주의	VI. 한국의 대순사상 정치의 실현
1. 해원상생 사상의 의의	1. 한국 정치의 실태
2. 해원상생과 민주주의의 관계	2. 대순사상 정치의 실현
	VII. 결 론

I. 연구의 시각

1. 민족종교 사상과 민주주의의 발전관계

민주주의는 오늘날까지 인류가 발전시킨 최상의 정치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찬양되고 추종되는 보편적 희망이 된 민주주의는 인류가 영원히 지켜가야 할 이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실제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공산국가들은 물론, 절대왕조를 방불케 하는 북한의 공산주의 집

*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소장, 정치학 박사

단까지도 민주주의 국가로 자처하고 있을 정도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정치적 논쟁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를 한편에서는 저항(抵抗)의 상징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지배(支配)의 상징으로 조작하여¹⁾ 어떤 정당이나 집단, 그리고 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을 표방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많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개인의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개념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정치를 한 경험이 부족하고 오랫동안 봉건적 절대권력 체제하에서, 그리고 식민통치적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살면서 합리적인 이해가 부족했다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특히 고도로 분업화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흥수를 이루는 까닭에 다기한 이론과 사상이 범람하게 된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는 물질 위주의 이기적인 사회가 현대사회의 한 특징인 까닭에 정의나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도외시되곤 한다. 더구나 한국은 지금 미증유의 경제 위기라는 국가부도 사태를 겨우겨우 넘겨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다행히 어려운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자괴감과 실천 의지의 상실은 경제위기 못지 않은 또다른 정신 위기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눈앞에 닥친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통해 국가부도 위기를 견뎌가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는 국가나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통치 이데올로기나 정치 사상이 긴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대 물질문명 앞에서 사회정의를 논하고 새로운 사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인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외세의 침략과 극복이라는 역사의 순환을 겪어왔다. 위기가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가운데 우리는 민족 특유의 자기 극복 의지를 갖게 되었으며 생래적인 한(根)의 정서를 갖게 되었다. 20세기 들어 외세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

1) Giovanni Sartori, "Democracy,"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IV (New York: Macmillan Co., 1968), p. 116

극을 맞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이 걸어온 지난 반만년 역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에 지칠 무렵 우리는 냉전의 와해와 새로운 민족주의의 대두를 보았다.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의와 사상이 있어야 하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사상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다행히 뛰어난 민족적 지도자와 사상가들이 있었고, 특히 우리 민족과 인류의 장래에 관해 뛰어난 혜안을 보여준 증산과 같은 종교 지도자도 있었음은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사상적 기반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우리 헌법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을 이를 수 있는 전통 깊은 민족종교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 대순진리의 종교 사상과 민주주의와의 발전관계를 따져보고자 한다.

증산은 일찍이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를 구분하고 재화가 일어나고 참혹하게 된 선천세계를 조화롭게 하여 후천세계(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선경을 세우겠다고 하였다. 증산은 물론 육신(肉身)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기 전에도 법신(法身)으로서 천지가 열린 이후의 모든 인간 세계의 교화를 통해 이미 여러 방법으로 그 진리를 밝혔다고 보아진다. 이를 보다 체계화한 것이 바로 대순사상의 이상과 목적을 이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로서 도주(道主·趙鼎山)²⁾가 발표한 종지(宗旨)³⁾이다. 대순진리의 종지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등 네 가지이다.

‘음양합덕(陰陽合德)’은 우주가 생겨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성 발전 과정을 거쳐 진멸에 이르기까지의 원인이 음양의 부조화 불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후천 선경은 이 음양의 부조화와 불균형을 극복한 음양합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 대순지침에는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경위이며, 경위가 법이

2) 趙鼎山은 을미년인 1895년 12월 4일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에서 탄생. 성은 조(趙), 존휘 철제(哲濟), 자함은 정보(定普), 존호는 정산(鼎山)으로 후에 도주가 됨.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운: 2-1.”,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190

3) 道主가 을축년에 무극도(無極道)를 창도·증산을 九天應元 雷聲 普化 天尊 上帝로 봉안·종지 및 신조와 목적을 정함. 같은 책, “교운: 2-32.”, p. 201

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4)고 명시되어 있다. 증산은 또 “...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道)이 있다(陰陽相合然後有變化之道) ...” 5)라고 했다. 이 말은 후천 선경을 이룰 변화의 길(道)을 찾는 것은 바로 음양합덕에 의해서 가능해짐을 암시하며, 대순 사상의 특징이 후천 선경의 건설에 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음양합덕 사상의 연원이 주역을 비롯한 동양 사상의 정수와 천부경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사상을 통해 다져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해원상생은 갈등과 반목, 정복과 약탈, 전쟁과 파멸의 상극(相剋)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 역시 대순사상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논할 때 쉽게 원용할 수 있는 인류 구원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을 통한 이같은 후천선경의 사상은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과도 그대로 일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증산은 우주를 자연법칙에 따라 생긴 것으로 인정하고 우주가 어떤 질서 있는 법칙에 따라 성(成)하고 쇠(衰)하는가를 밝히는 자명설(自明說)을 밝히고 있다. 6)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험에 의해 깨달은 원리를 바탕으로 세상은 이루어진 것이며 그 조화의 법칙을 무시하면 그에 상응하는 인과를 겪을 수밖에 없다. 즉 모든 만물이 법칙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변화되어 성쇠(成衰)하고 소장(消長)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우주관은 우주 만물이 무이위화(無而爲化)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법칙은 도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도수란 우주의 질서와 운동의 법칙이고, 우주의 질서를 천지도수라 한다. 천지공사의 우주관은 우주의 모든 질서가 순환하는 것이 천지 도수(天地度數)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증산은 천지 도수는 인간 세계의 모든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증산은 “인사는 기회가 있으며 천시는 때가 있으니 그 기회와 때를 기다릴 것이니, 이제 기회와 천시를 억지로 쓰면 그것은 천하에 재화를 끼치게 될 뿐이며, 억조의 생명을 억지로 앗아가는 일이 되리라” 7)

4)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 18

5) 같은 책, p. 309

6) 張秉吉, 大巡宗教思想(서울: 대순종교사상연구소, 1987), p. 47

하였다.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일을 성사시킬 수 없으며, 그리고 하늘과 땅의 뜻은 일정한 도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선천시대에는 천지 도수가 파괴되어 혼란 상태에 있으며, 그리하여 상국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산은 선천시대의 파괴된 천지 도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천지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증산은 “아무리 큰 일이라도 도수에 맞지 아니 하면, 허사가 될 것이오. 아무리 경미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도수에 맞으면 마침내 크게 이루게 되느니라” 라는 말로 도수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하였다. 세상의 어떠한 일이라 하더라도 도수가 맞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으며,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도수가 맞으면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본 연구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종교사상과의 연관성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전통 민족 종교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조화와 타협을 사상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 종교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의 바탕이 되며 이는 어려운 경제 위기와 정쟁(政爭)의 연속에 따른 정치 불안, 나아가 도덕 부재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장래와도 큰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인류 구원 사상으로서의 대순사상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주의 모든 질서와 순환은 천지 도수(天地度數)에 의한 것인데 만약 이 천지의 도수가 어긋나게 되면 우주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이변이 나타나게 된다. 세상의 모든 참혹한 전쟁과 범죄의 비극은 바로 우주적 질서의 왜곡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보통 이같은 비극의 연원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비극의 순환고리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증산은 일찍이 이같은 비극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파했다.

증산이 나던 때는 특히 우리 민중이 도탄의 극에서 헤매이고 있던 역사적 전환기였다. 증산은 서기 1871년 11월 1일(1871~1909), 전라도 고부면 객망

7)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공사: 2-24.”, 앞의 책, p. 124

리(지금의 전북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에서 부친 강문회(姜文會: 자는 興周)와 모친 권양덕(權良德) 사이에 탄강, 성은 강씨·이름은 일순(一淳)·자는 사옥(士玉)·호는 증산(甞山)이었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원만하고 관후하고 총명하여 못 사람들로부터 경대를 받았다고 한다.

증산이 태어나 성장할 즈음에의 국내외 정세는 여러 분야에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가 득세해 외세의 침입이 잦았고, 국내적으로는 한말(韓末)의 통치체제가 부패하고 타락해 그 체제에 대한 민중의 불신과 절망이 극도에 달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지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파탄 상태에 빠져 민중의 생활은 극도로 피폐해졌으며, 사회적으로는 질서가 문란해져 양반 토호계급의 민중에 대한 수탈과 가렴주구(苛斂誅求)가 급증되었으며, 더욱이 수재·한발·괴질이 유행하여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암흑과 절망 속에서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원하기 위해 최수운(崔水雲: 1823~1864)이 나타나 “사람을 하늘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동학교(東學敎)를 창도, 민중 포교에 종사하다가 1863년 천주학도(天主學徒)의 혐의를 받아 체포되어 1864년에 처형되었다. 제2세 교주인 최시형(崔時亨)이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잠복포교를 계속하여 조직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아갔다. 1892년부터 이 동학교도는 탐관오리의 제거와 교조의 해원(解冤)을 간청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위나 간청이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들은 1894년 1월에 국민 평등의 인권주의와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면서 하층 민중들을 규합시켜 그 해 말경에 과감한 민중혁명을 감행하였다. 그들의 무장봉기는 관군과 일본·청군의 연합군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를 보였던 동학 조직은 그 후의 모진 탄압으로 뿔뿔이 흩어져 지하로 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교도의 일부를 데리고 천지공사를 행하며 포교하고 다닌 분이 바로 증산이다.⁸⁾ 그는 31세 되던 1901년에 전주 모악산 대원

8) 盧吉明, 韓國新生宗教의 形成過程 研究(서울: 서강대사회문제연구소, 1976), pp. 43~55

사(大院寺)에 들어가 수도를 시작했다. 수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행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이다가 그 해 7월 5일에 천지대도(天地大道)를 깨달아 성도(成道)하게 되었다. 그리고 증산은 자신이 천제(天帝)의 권한으로서 후천 개벽(後天開闢)의 세계를 만드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였으며, 기행이적(奇行異蹟),神通묘술(神通妙術), 치병(治病) 등 보통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연속적으로 행하였다. 또 종도들에게는 태좌정심법(胎坐正心法)을 수련시켰으며, 태을주(太乙呪), 운장주(雲長呪), 시천주(侍天呪), 오주(五呪), 도리원서문(桃梨園序文), 서전서문(書傳序文) 등을 많이 읽게 하여 연력(鍊力)을 쌓도록 가르쳤다.⁹⁾

증산은 윤리 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 개조와 정신 개혁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구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념을 세웠으며 해원, 상생, 보은을 근간으로 천지공사를 행하였다. 이같은 증산의 사상은 강일순, 즉 증산 구천상제(九天上帝)로부터 천부의 계시를 받은 조정산 도주(趙鼎山 道主)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이를 유명(遺命)으로 종통(宗統)을 받은 박한경 도전(朴漢慶 都典)에게로 이어져 「대순사상」이 보다 확고해지는 연원(淵源)을 가지고 있다.¹⁰⁾

증산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조정산(1895~1958)¹¹⁾ 도주는 조부 전래의 배일사상을 품었던 부친 조용모(趙鏞模)를 따라서 15세 되던 1909년 4월에 만주 봉천지방으로 망명, 동지들과 구국운동을 하면서 보천교인 김혁(金赫)과 자주 만나는 가운데 증산의 도력을 알게 되어 구세 제민의 큰 뜻을 품고 수도 생활을 시작, 23세 되던 1917년 2월 10일 증산의 삼계 대순(三界大巡)의 진리를 감오(感悟) 득도하고 개안영통(開眼靈通)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인(神人)이 나타나 “왜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¹²⁾는 말을 받고 1917년(정사년) 4월에 친계 가족을 거느리

9)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행록”, 앞의 책, 참조

10)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第一輯」(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p. 1

11) 趙鼎山(성은 趙씨, 존휘는 哲濟, 자함은 定普, 존호는 鼎山)은 1895년 12월 24일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에서 태어나, 을미년 12월 4일 증산의 뒤를 이어 道主가 되었다.

12)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운: 2-1~8.”, 앞의 책, pp. 191~192

고 뱃길로 전북 태안에 도착하여 이정률(李正律)의 도움으로, “오도자 금불문 고불문지도야(吾道者今不聞古不聞之道也)라 믿고 닦기가 어려우니라” 하시고 다시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을 모으고 무극대운(無極大運)의 해원 상생 대도(解冤相生大道)의 진리를 설법하여 도를 밝히는 등¹³⁾ 여러 곳을 다니면서 증산사상 포교에 진력하였다. 그러던 중 을축년(1925년) 구태인 도창현에 도장을 만들어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였다. 그는 증산을 구천응원뇌성 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을 정하였다. 종지로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 신조로 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의 사강령(四綱領)과 성(誠)·경(敬)·신(信)의 삼요체(三要諦), 목적으로 무자기·정신 개혁·지상 신선 실현(地上神仙實現)-인간개조·지상 천국 건설-세계 개혁을 정하였다.¹⁴⁾ 그러나 일제가 계속 탄압, 1941년 종교단체 해산령에 의하여 무극도 또한 해체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한 그는 1948년 9월에 도본부를 부산시 보수동에 정하고 「태극도(太極道)」란 이름으로 교명을 바꾸어 포교를 시작하였다.¹⁵⁾ 교인들 수는 나날이 늘어 갔다. 1955년에는 도본부를 부산시 감천동으로 이전하였다.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신앙촌도 형성하였다. 그러던 중 1958년 3월 6일 박한경을 도전으로 종통을 전수하고, 그 해 4월 24일(음력 3월 6일) 향년 64세로 화천하였다.¹⁶⁾

이러한 대순사상을 민중 깊숙히 뿌리 박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도주 조정산에 이어 1958년에 도전이 된 박한경 도전이 구체화·활성화시켰다. 도

13) 같은 책, “교운: 2-9~18.”, pp. 193~195

14) 같은 책, “교운: 2-32.”, p. 201

15) 金洪喆·金相日·趙興胤, 韓國宗教思想史(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pp. 91~93.

16) 박한경은 1917년 11월 30일 충북 괴산군 상모면 문강리 207번지에서 태어났다. 어릴적의 이름은 景浩, 호는 牛堂이다. 그는 수안보 보통학교를 졸업, 일본 등지의 해외유람을 하며 견문을 넓혔다. 30세가 되던 해인 1946년 4월에 조정산이 창도한 태극도에 입도했다. 1958년 음력 3월 6일 조정산의 유명에 의하여 종통을 계승받았다. 그러나 도주가 사망한 후 얼마 안되어 태극도는 신파와 구파로 분열, 구파는 조정산의 아들 趙永來가 도전으로 취임하였다. 신파는 몇 년간 도전으로 있었던 박한경이 1968년 7월 20일 이곳을 탈퇴, 서울 중곡동에 1969년 4월 「대순진리회」를 창설하고, 그 해 6월에 본부 도장을 설립했다.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운: 2-60~66.”, 앞의 책, pp. 218~220

전이 된 박한경은 1969년 6월에 서울 성동구 증곡동에 대순진리회 도본부를 열었다. 대순진리회는 증산을 교주로 모시고, 조정산을 도주로 하고 있다. 도전은 80세를 일기로 1996년 1월 23일 화천하였다. 그는 살아 생전에, 종단 사업을 포덕, 교화, 수도 공부와 구호 자선, 사회 복지, 제반 교육사업으로 나누어, 그를 통해 대순 사상을 실현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앞장서 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세가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할 수 있다.

증산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바로 잡고 후천의 선경을 열겠다고 하였다. 또한 천상세계, 인간세계, 자연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선천의 도수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으며, 이를 실현하여 선경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17)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18)

증산은 선천시대를 진단하고 선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해원과 상생을 부르짖었으며 신인조화를 통해 천지의 도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증산은 선천시대는 원한이 너무나 커서 삼계에까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참혹한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원한으로 인한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천지 도수를 바로 잡고, 해원을 통한 상생으로 선경을 만들 수 있는 조화정부(造化政府)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다. 선천시대에는 천상세계, 인간세계, 자연세계 등 삼계가 원한으로 맺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간사회는 상극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던 증산은 상극세계가 아닌 삼계가 상생할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생애 중 그 기틀을 바로잡는 천지공사

17) 같은 책, “공사: 1-3.”, p. 98

18) 같은 책, “공사: 3-5.”, pp. 130~131

를 수없이 행했다.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19)

이와 같이 증산의 우주관은 개혁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선천개혁(先天開闢)이 아니라 후천개혁에 더 무게중심을 둔 것이어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세기말적 위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강대국간의 핵무기 경쟁에서 보듯 이 선천세계는 음양의 분화(分化)와 다양한 존재의 갈등, 투쟁 대립 등으로 이제 그 종국에까지 이른 음양 배덕(背德), 음양 분덕(分德)의 세계이다. 따라서 증산은 앞으로 전개될 후천시대에는 음양의 배덕과 분덕으로부터 파생된 혼미의 세계를 선경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덕(德)을 합해야 하며 신과 인간의 합일을 통해 모든 인류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상향(理想鄉)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主宰)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仙境)을 만들이라.” 20)

음양이 그 덕을 합하면 강유가 생기며, 사계절의 운행과 만물의 성장도 원활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땅을 본받고, 땅이 하늘을 본받고, 하늘이 도를 본받고, 도가 자연을 본받는다면 선천세계의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발생한 분열과 혼란, 대립과 갈등, 불안과 저항 등도 사라지고, 인간세계는 질서와 안정, 설득과 이해, 관용과 토론, 승복과 합의 등으로 이루어져 이상적인 인류 사회, 즉 후천시대의 선경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대순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대립된 세력이 조화와 타협을 이루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현실 정치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참여의 정치이며 화합의 정치인 셈이다. 이는 증산이 일찍이 설파한 것처럼

19) 같은 책, “공사: 1-3.”, p. 98

20) 같은 책, “권지: 1-21.”, p. 271

선천세계의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발생된 혼란과 갈등 양상을 극복하고 설득과 합의를 통한 이상적인 인류 사회, 즉 후천시대의 선경사회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참여와 화합, 대화와 타협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한 대화의 정치이며 타협의 정치가 민주주의이다. 화합과 타협이 없으면 국민 상호간에는 일종의 위화감 내지 이질감이 생겨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조화와 타협의 전통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인류 구원 사상인 대순진리와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음양합덕, 해원상생, 신인조화, 도통진경 등 4대 종지는 개인과 개인의 원한과 민족과 민족간의 전쟁 등 맺힌 한을 풀고 반목과 파멸의 상극(相戾)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순사상은 민주주의의 발전 단계를 논할 때 쉽게 인용할 수 있는 인류 구원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순사상의 음양합덕 사상은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합덕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그 바탕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짧지만 눈부신 민주주의 발전을 기록해온 한국의 근대 역사와 연관지어 보더라도 대순사상의 보편적 진리성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대순진리의 4대 종지와 민주주의는 유난히 합치하는 바가 많은데 이는 또한 오늘날 목표를 잃고 난국에 빠져 있는 우리 현실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요즘 여야간의 정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세풍(稅風: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설)」 「총풍(銃風: 관문점 총격요청설)」 관련 사건으로 여·야는 연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야당은 거리에서 정부 여당을 성토했고 나섰다. 정부 여당이 사정이라는 이름으로 벌이고 있는 검찰의 각종 비리 수사는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야당 역시 무조건적인 탄압 주장만 펼치고 있다.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이 지나치게 소속 정당

을 의식, 감사보다 정쟁(政爭)에 몰두하고, 일부 행정부 장관들도 무소신, 눈치보기 답변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감(國監)은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현 정권의 정책 실택과 실세 비리(예를 들면 수사기관의 정치화·도청·고문·인사 편중·특검제도 도입문제 등)를 따지면, 여당은 야당의 그러한 공격을 맞받아 치는 이른바 ‘격돌장화’ 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국감에서의 여야 의원들의 특징인에 대한 폭로나 의혹 제기는 잇따라 송사(訟事)로 비화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한해가 다가오지만 경제개혁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경기 침체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동안 경기지표들은 사상 최악의 기록을 경신했고 전망치는 다달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또,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계의 조직적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그렇지 않아도 무기력에 빠진 국민들을 파멸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국민 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켜 사회의 근본마저 무너지려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참여와 화합」 「대화와 타협」이 실종상태에 있으며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는 부작용을 낳은 상태에서 「독선과 자만」이 가득한 정치 행태만이 난무하고 있다. 이같은 독선은 현실을 무시한 「금융실명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기본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만의 독특한 금융 문화를 무시한 금융실명제’는 일본마저도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실시를 하려다가 포기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제도의 수용이 지금과 같은 파국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로 인해 국가 및 국민 경제가 총파국에 이르렀고, 마침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지만 과거 김영삼 정부의 책임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 근본원인을 개혁할 태세는 갖춰져 있지 않다. 과거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해제 등 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킨 구시대의 잘못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구시대의 잘못된 원인을 없애고 소원하던 바를 충족시키는 일은 대순진리에서 말하는 해원과 같다. 증산은 일찍이 후천개벽을 외치며 민중의 해원상

생(解冤相生·한을 풀어줌으로써 서로가 함께 사는 것)을 위한 천지공사(天地公事)에 주력했다. 천지공사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돌리고 척을 짓지 말 것을 강조했으며, 해원상생을 통한 인류 평화를 제창했다. 근원을 해소한 뒤 영원한 척의 윤회를 어느 순간에 끊고 분풀이 대신 참회란 의례를 통해 척을 없애는 것에 해원의 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상극되었던 척의 장벽은 무너지고 상생(相生)의 화평 상태가 새롭게 열리는 것이다.

상생의 원리는 현대 문명 사상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구원(救援)의 진리이다. 대순사상이 설파한 상생의 도는 묵은 원한을 풀고 서로간에 맺힌 척을 해소시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의술이며,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절대 진리라 할 것이다. 해원이 필요한 것은 선천에 맺은 인연이 후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상극에 지배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원한은 또다른 원한을 낳고, 그 원한이 또 원한을 낳음으로써 인간과 사물은 모두 원한에 얽혀 있었다. 결국 상도(常道)는 무너지고 무도(無道)의 지경에 다다라 진멸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극에 달한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은 쌓인 원을 푸는 것이고, 그것은 증산이 말한 해원상생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해원상생 사상의 위대함은 기독교의 추상적 원죄나 불교의 연기연생론과 달리 개인, 사회 구성원, 인류 전체가 각자의 내면에 도사린 원통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또다른 창조를 낳는다는 점이다. 이는 프로이드 이후 1세기를 맞은 현대 정신분석학의 결론과도 일치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둔자적(隱遁者的)인 자기 성찰의 소극적 입장이나 맹목적 자기 희생의 사랑만을 강조하지 않고 원한의 대상이었던 상대방까지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상생(相生)의 진리를 선보여 새로운 인류구원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증산은 법신으로 나서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이라는 인류구원사상을 제시했고, 천지공사를 통해 이를 뜯어 고치고자 하였다. 4대 종지 중 하나인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합일하여 변화를 만들고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역사의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신인조화 사상은 하늘과 사람, 인간과 자연의 상보 조화(相補調和), 보이지 않는 것(陰)과 보이는 것(陽), 통일(陽)과 분화

(陰), 전체(陽)와 개체(陰), 인(仁·陽)과 의(義·陰)의 상보 조화 등 조화와 통합을 의미하는 구원의 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후천선경의 세계이다. 분열과 갈등이 선천세계의 상징이라면 상극으로 맺어진 하늘과 땅, 동과 서,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의 조화와 화해는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의 신과 인간은 산술적으로나 질적으로 동등함을 전제로 한다. 신은 사람이 없는 다음에는 의탁할 바가 없고, 사람은 신 앞에서 없으면 이끌어 의지할 바가 없다고 한다. 또 신과 사람이 화합해야 만사, 즉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신인조화 사상은 전체와 개체를 같이 존중한다. 그리고 양자의 조화와 합일의 상태를 이상으로 한다.

증산은 「음양경」(陰陽經)에서, “신은 사람이 없는 다음에는 의탁할 바가 없고, 사람은 신 앞에서 없으면 이끌어 의지할 바가 없다. 신과 사람이 화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인(神人)이 화합해야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 신은 사람을 기다려 밝아지고, 사람도 신을 기다려 밝아진다. 음양이 서로 화합하고 신인이 서로 통한 다음에야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²¹⁾고 하였다. 이 말은 하늘과 땅, 그리고 신과 인간은 모두 음양의 성질을 부여받으며, 음과 양 즉 신과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합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은 대순사상의 음양합덕 사상을 통해 역사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고 할 때 어느 하나만으로는 만물이 생성 발전하지 못하며, 음과 양이 서로 조화하고 합덕이 잘 되어야 우주 만물이 제대로 성장 발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순 사상의 신인조화 사상은 통합과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고, 혼미와 혼돈은 그 큰 틀 속에서 만법,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마음 속의 신성을 깨우침으로써 근원의 자리를 찾아감으로써 드넓은 신인조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사상으로서의 대순사상의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의 요체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음양합덕, 해원상생, 신인조화를 통한 구원사상으로서의 대순사

21) 같은 책, “교운: 2-42.”, pp. 206~207

상을 말했는데 이제 이쯤에서 대순 사상에서 말하는 구원세계는 곧 도통진경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의 세계는 곧 바른 인간의 길이며 인간의 길이 곧 도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도통진경의 세계는 우주의 원리가 도수이며, 도수는 삼계를 순환하고, 신명과 인간도 우주의 도수에 따라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대순진리의 큰 뜻으로 귀결된다. 앞에서 말한 음양합덕과 해원상생, 그리고 신인조화도 바로 이같은 도통진경을 향해 나아가는 우주의 원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을 통해 신인조화를 이루고 마침내 후천의 선경을 세워간다는 게 대순의 진리이다. 도의 끝까지 나아가면 마침내 이를 수 있는 세계, 대순의 이러한 세계관이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을 거친 신인조화 사상, 궁극적으로는 도통진경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류가 고안해낸 최선의 정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세계의 완성을 이루고자 한 대순사상이 그 바탕으로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결함과 천민 자본주의, 인간의 이기심 극복 실패 등으로 많은 나라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서구 문명의 종말을 운위하는 학자가 있기도 하다. 대순 사상은 인간과 우주의 변천을 하나로 통합한 순환 사상으로서 모든 종교의 진리를 아우르는 인류 구원 사상이다. 대순 사상은 좌절과 혼돈의 극에 다다른 현 인류가 이러한 혼란과 좌절을 막을 수 있는 인류 구원의 종교 사상이며, 이 사상이 현실 정치 제도인 민주주의로 구현될 때 더욱 빛을 더하게 된다고 본다.

반만년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의 개국 이념인 홍익인간 사상이 민족종교화한 것이 대순 사상이며 이 사상은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국가의 개념을 명쾌하게 담고 있다. 이 홍익인간 사상은 대순사상의 인간 존엄성을 전제로 한 후천 선경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더불어 사는 호혜적 공존의 원리를 통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주주의 사상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필자는 음양합덕, 해원상생, 신인조화, 도통진경 등 대순 사상의 4대 종지를 중심으로 대순 사상과 관련된 한국 정치의 발전 방안을 「대순사상

논총」 제1집부터 제5집(대순사상학술원 편, 1996~1998)에서 다양하게 밝힌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대순사상의 4대 종지를 민주주의와 연관시켜 각각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논구해 보고자 한다. 인류 구원의 사상으로서 대순사상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II. 음양합덕과 민주주의

1. 음양합덕 사상의 의의

(1) 음양의 의미

음양이라 함은 그저 단순한 음과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음양에는 덕(德)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 덕의 작용을 통해 우주가 생성되고 유지 발전되어 왔다. 모든 사물의 변화도 음양으로 인해 나타난다. 대순지침에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경위이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²²⁾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동양 사상에서는 음양의 변전과 조화를 통해 사물의 양태를 인식해왔다.

『주역』에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변동 변화 과정은 반드시 대립적인 두 성질이 서로 밀고 당김에 따라 생긴다고 했고, 그 대립적인 성질 중의 하나는 음(陰: --)이며 다른 하나는 양(陽: --)이라고 했다.

동양 사상에서는 변화하는 그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질서로 이해되고 있었다. 즉 변화하는 세계를 부정한다거나 세계는 고정 불변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음양으로 표현되는 대립적인 세계의 조화와 변전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 셈이다. 공자도 이러한 사상을 자신의 우주관으로 수용하여 변화하는 사계절의 운행과 만물의 생육 및 물의 끊임없는 흐름에 대해 깊은 감회를 느꼈다고 말한다.

『주역』 <설괘전>에서는 “하늘의 도를 세워서 음과 양이라 하고, 땅의 도를 세워서 유와 강이라 하고, 사람의 도를 세워서 인과 의라고 한다” (是

22)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 18

以立天之道，曰陰與陽，立地之道，曰柔與剛，入人之道，曰仁與義)고 하였으며, <계사전>에서는 역을 설명하면서 “세상에는 천도도 있고, 인도도 있고, 지도도 있어서 삼재를 합하여 두 배로 하면 6이 된다”(有天道焉，有人道焉，有地道焉，兼三才而兩之，故六.)고 하였으며 이같은 여섯에 대해 “여섯효의 움직임은 삼극의 도이다”(六爻之動，三極之道也)고 하였다. 또 <문언전>에서는 “대저 대인이라는 것은 천지와 그 덕을 합한 것이다”(夫大人者，與天地合其德)라고 하였다.

주역의 이같은 언급은 우주내의 모든 만물은 하나같이 천지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은 천지와 병립하는 존재라고 함과 동시에, 하늘도 음과 양의 합덕에 의하여 삼극(三才)이 만들어지듯이 땅도 음과 양의 합덕으로 삼극이 만들어지고, 인간도 음과 양의 합덕으로 삼극이 만들어져, 이 천지인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음과 양을 합하면 6가지 기운이 되며, 드디어 우주 만물이 조화로움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하겠다.

예로부터 인류는 「천도」 「신도」 「인도」의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천지와 병립하게 된다. 이런 과정은 마치 자녀가 부모의 양육 속에서 자라나 성인이 되는 것과 같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그 자녀의 생각은 자신의 존재보다 부모를 오직 천지로 생각한다. 이런 시대를 「천도사상」의 시대라 한다. 자녀가 점점 성장하면은 세상에 대한 신기한 생각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환상을 갖게 된다. 이런 시대를 「신도사상」의 시대라 한다. 자녀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 자아가 싹트기 시작하고 자기 의사, 자기 결정에 의한 독립된 개체로서 유지하기를 원하게 된다. 이런 시대를 「인도사상」의 시대라 한다. 이같은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도사상」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인간은 천지와 더불어 삼재(三極)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천이」(天二) 「지이」(地二) 「인이」(人二)는 우주 만물의 창조가 되는 근본 원리가 같으며, 동체성(同體性) 자유성 평등성을 함께 갖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천삼 지삼 인삼」(天三 地三 人三)은 「천일 지일 인일」(天一 地一 人一)과 「천이 지이 인이」(天二 地二 人二)에 이어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함께 각자 갖고 있는 음양 조화와 뒤에 말하게 될 합덕에 의해 나름대로의 우주 만물이 생성 발전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

다.

대순 사상의 『음양경』에는 “천지의 일이 모두 이 음양 중에 만물의 이름이 있으니 모두 이 음양 중에 마침내 천지의 음양이 변한다. 신인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하늘은 땅의 변화가 없으면 그 아래에 펼침이 없고, 땅은 천공(天功)이 없으면 그 위에 이름이 없다. 천지가 화합해야 만물이 창달하고, 천지가 평안해야 만상(萬象)이 갖추어진다” 라고 하였다. 음양은 무한한 변화를 창출한다. 그러기에 음과 양은 대립적인 관계이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하겠다.

위 인용문들은 모두 우주 만물은 각각의 방향, 성향, 원근, 친소, 귀천 등을 갖고 있어 서로 같지 않으나 “음은 음을 양은 양을” 좇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정도(正道), 즉 정의로서 규율되고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늘은 높고 낮으며, 남자와 여자의 바탕이 서로 다르고,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만 가지로 서로 다르지만, 양의 기운이 내려가고 음의 기운이 올라가는 이치에 따른 상합(相合)에 의해 화육함은 같으며, 남녀가 서로를 구하는 뜻도 통하고, 만물이 모두 음양의 기를 받은 점에서 서로 다를 바 없는 까닭에 만물의 형상은 다르나 이치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주역』의 <계사전>에서, “천하의 움직임은 일자에 근거한다”(天下之動貞夫一者也.)²³⁾ 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복희(伏羲)²⁴⁾가 전개한 정(正)과 반(反), 즉 음과 양의 두 작용이 원래 태극의 「—」이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체로 말하면 하나이고, 나누어 말하면 둘이다. 그는 태극에 반작용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의 부호 「--」을 창조하였다. 「--」은 짧은 두 개의 선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두 번째 움직임의 작용, 즉 반동의 작용을 표시한다. 이 정과 반의 두 작용, 「—」과 「--」을 후대인들은 양의(兩儀)라고 말한다. 양의의 「—」과 「--」은 본질적으로는 태극의 「—」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태극의 「—」이 첫

23) 『周易』, <繫辭傳>

24) 伏羲는 東夷族으로 기원 전 4700여 년, 중국 역사상의 첫 번째 왕을 일컫는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周易」을 저술하였다. 「周易」을 흔히 易 또는 伏易이라고도 말한다.

번째 단계의 의미이고, 「一」과 「--」은 그 다음 단계이므로 “태극에서 양의가 생성됐다”라고 할 수 있다. 「一」의 부호는 양이라 하고 「--」의 부호를 음이라 하는데, 우주 만물의 모든 변화와 변동은 이 음양의 유행과 소장(消長: 줄어들고 늘어남) 아닌 것이 없고, 모두 이 두 가지 성질을 갖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때문에 <계사전>에서도 “한 번 닫히고 한 번 열림을 변화라 한다”(一闔一闢謂之變)²⁵⁾고 하고,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것을 계승하는 것은 신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은 성이다”(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²⁶⁾라고 했다.

이렇게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음과 양이 조화로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서로 교감을 이루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천지가 화합하게 되고 만물이 창달하고 천지가 평안하게 되어 정의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만물이 제대로 된 형상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바로 건과 곤, 음과 양이 각자 바른 덕을 지녀야 하고, 양이 음을 받들고 음이 양을 받드는 태도와 교감의 운동이 정대(正大)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 사상은 만물을 이루는 음양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며 뒤이어 나올 대순진리의 음양합덕 사상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현대의 민주주의 사상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2) 합덕의 의미

『주역』에서는 위에서 말한 음과 양의 결합을 통해 모든 사물과 일의 형세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우주의 모든 일과 현상은 음과 양의 결합, 즉 합덕(合德)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강유(剛柔)가 서로 밀어서 변화가 생긴다”(剛柔相推而生變化)²⁷⁾거나 “강유가 서로 미는데 변화가 그 속에 있다”(剛柔相推 變在其中矣)²⁸⁾고 하는 것이 이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해가 뜨면 달이 지고,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꽃이 지고, 성장하고 늙고 하는 등의 자연과 인간의 모든 현상들은 분명히 두 가

25) 『周易』, <繫辭傳>

26) 같은 책, <繫辭傳>

27) 같은 책, <繫辭傳>

28) 같은 책, <繫辭傳>

지 작용이 서로 교체하여 변동하는 것이다. 한 번은 움직여서 올라가고, 가고, 나아가고, 성장하지만, 거기에는 또한 움직여서 내려오고, 오고, 물러나고, 노쇠함이 이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변동이나 변화라도 모두 그 반작용의 변동과 변화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의 변동이 자연스럽게 조화하여 순응하면 상득하고, 음양이 서로 합덕(陰陽合德)하지 못하면 불상득하고 만다. 모든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성 변동이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는 덕으로서 교감·합덕해야만 만물이 화생하고, 형통하고, 모두 빛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과 양이 그 덕을 합해야만 교감이 잘 되어 만물을 낳으며, “변동하여서 이로움을 다한다”(變而通之以盡利)고 하는 말이 나왔다. 만약 덕으로서 합덕하지 못하면,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하지 않아 만물을 생하지 않게 되고, 또한 만물은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음과 양이 덕으로서 잘 조화되어 교감하면 만물이 화생하여 태안(泰安)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불흥(不興)하고 불통(不通)하게 된다.

합덕이라 함은 음과 양의 만남이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함괘에 택(澤)과 산(山)의 만남이 있다. 즉 태소녀(兌少女)와 간소남(艮少男)의 젊은 남녀의 만남이다. 이러한 만남이 바른 자세의 정상적인 만남이라고 한다. 또, 몽괘(蒙卦) 육삼(六三)에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안된다”란 말이 있다. 이 내용의 만남은 정당한 사랑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金夫)을 만나 정신이 현혹되어 도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경계하고 있다(勿用取女 見金夫不有躬 死攸利)²⁹⁾ 또 대과괘(大過卦)에 보면,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얻은 경우와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얻은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 모두는 다같이 비정상적인 만남으로 머지않아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상적이고 정당한 만남을 권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합덕을 강조하고 있다. 음과 양이 만나되 서로 합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주 만물이 제대로 생성·발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음과 양은 서로 통지(通志)함에 있어서 바른 덕을 지녀야 한다. 그건 「주역」에서 말하는 ‘역지(易知)’와 ‘대생(大生)’, 곤의 ‘간능(簡能)’과 ‘광생(廣

29) 같은 책, <蒙>, 六三

生)’, 건의 ‘확연(確然)’ 과 곤의 ‘퇴연(隕然)’ 의 자세를 말한다.³⁰⁾ 또한 건은 만물의 ‘자시(資始)’ 요, 곤은 만물이 ‘자생(資生)’ 하는 바이며, 천은 베풀고(施), 지는 키운다(生). 모든 교감의 궤에서 겸도(謙道)가 그 바탕에 깔려 있음을 본다.³¹⁾ 체(體)로서는 천존지비(天尊地卑), 건상곤하(乾上坤下)이지만, 용(用)에서는 건천(乾天)이 낮아져서 곤지(坤地)를 받들어야 비로소 합덕·교감이 가능하고 그 결과 만물이 화생하는 것이다.³²⁾ 이러한 겸도를 대장괘(大壯卦)에서는 ‘정·대(正·大)’ 로 규정한다. 즉 대장괘 단사(象辭)에서 “바르고 큼에서 천지의 정(情)을 볼 수 있다” 고 했으며, 그 상사(象辭)에서는 “군자는 이 궤상을 보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고 했다. 이 모두는 음과 양, 건과 곤의 교감에는 반드시 바른 덕으로써 합해지지 않으면 올바른 합덕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음과 양의 만남에 있어서는 그 만남 자체가 동등한 자격을 가진 1대 1의 만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빠져야 하고, 한 사람이 가면 친구를 얻게 된다. 이는 하나됨을 말한다” (三人行則損一人 一人行則得其友 言致一也.)³³⁾고 했다. 구괘(垢卦)는 한 여자가 다섯 남자를 만나는 상이다. 양이 비로소 음을 만나기 때문에 유(柔)가 강(剛)을 만나고 천(天)과 지(地)가 서로 만난다고 했으나, 능히 다섯 양을 상대하는 하나의 음이므로 “그 여자에게 장가들면 안된다” (勿用取女)고 하여 금하고 있는 것이 그같은 경우라 하겠다.

(3) 음양합덕의 의의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음양합덕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저 “음과 양의 덕을 합친다” 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한 접근법으로는 이 어휘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진리의 근처에도 가기 어렵다. 증산은 “...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道)이 있다(陰陽相合然後有變化之道)

30) 박신환, 주역의 이해 - 주역의 자연관과 인간관(서울: 서광사, 1990), pp. 104~

109

31) 『周易』, <謙·象>

32) 교감의 대표적인 궤인 咸, 泰, 益이 모두 上陰下陽으로 되어 있다.

33) 같은 책, <계사전> 下

...”³⁴⁾ 라고 했다. 이 말은 후천 선경을 이를 변화의 길(道)을 찾는 것은 바로 음양합덕에 의해서 가능해짐을 암시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음양합덕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대순의 음양합덕 사상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연원부터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음양합덕은, 증산이 성육신(成肉身)하여 인간 세상에 오기 전, 법신(法身)으로서 천지 개벽 이래 인간을 교화할 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 진리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천부경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사상을 살펴보고 주역을 비롯한 동양 사상의 정수와 선행(先行) 개념부터 더듬어 음양합덕 사상의 뿌리를 추적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에는 “대개 문자의 근원은 국속(國俗)을 존신(尊信)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 일기(一氣)로부터 이기(二氣)로 갈라진 것이, 즉 극(極)이다. 극은, 즉 무(無)다. 무릇 하늘의 근원은 곧 삼극을 꿰뚫어 허(虛)가 되고 공(空)이 된 것이다... 기(氣)가 곧 천(天)이요, 곧 공(空)이다. 그리하여 중일(中一)의 신(神)이 있어 능히 삼(三)이 된다. 삼신은 천일·지일·태일(人一)이다. 일기(一氣)가 스스로 동작하여 조·교·치(造·教·治)의 삼화(三化)의 신이 된다. 신(神)은 즉 기(氣)이다. 기(氣)는 즉 허(虛)이다. 허(虛)는 즉 일(一)이다”³⁵⁾ 라고 했다. 또 노자는 <도덕경>(道德經)에서 “일(一)은 태극을 의미하고, 이(二)는 양의(兩儀: 음양 또는 천지)를 의미하며, 삼(三)은 천지인 삼재를 의미한다”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³⁶⁾ 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삼재일체(三才一體)는 첫째, 천일·지일·인일을 회합(會合)하면 일체가 됨을 의미한다. 즉, 천+지+인=일체라는 등식을 의미한다 하겠다. 삼재일체는 삼신일체로도 표현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를 잡으면 셋이 들어 있다(執一含三)’ 고 풀이함이 그 뜻이다. 둘째, 주체

34) 상제가 전주 이치안의 집에 써놓았던 고견 원려 왈지(高見遠慮曰智)란 글 속에 「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每事 任意用之 謂之智慧勇力...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 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在於陰陽 人可用陰陽然後 方可謂人生也...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란 글귀가 있다.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제생: 43.”, 앞의 책, p. 309

35) 金殷洙 譯(桂延壽 編), 『桓檀古記』 <太白逸史, 蘇塗經典本訓>(서울: 가나출판사, 1985)

36) 『老子』, <道德經>, 제42장

는 하나이나 그 기능이 조화, 교화, 치화 등 셋이라는 뜻이다. 삼재일체를 용삼체일(用三體一) 또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이라 풀이함이 그 뜻이다.³⁷⁾ 셋째, 천지인이 동등하다는 뜻이다. 즉, 천=지=인이라는 등식을 의미한다 하겠다.³⁸⁾

따라서 천일·지일·인일은 천계와 지계와 인계로서 음양합덕에 의해 지극한 하나가 될 때 모든 우주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하고 발전함이 제대로 순환될 수 있다 하겠다. 다시 말해 음양합덕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바람직한 조화와 교화, 그리고 치화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인류 구원의 사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장자(莊子)의 경우는 천지를 시간적으로 무시무종(無始無終)하고, 공간적으로 무궁무진(無窮無盡)하다고 하며 이 때문에 천지의 기점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자는 <제물론>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초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이전에, 아직 시초가 없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시초가 없는 때조차 없던 때가 있을 것이다.” (有始也者, 有未始有始也者, 有未始有不未始有始也者.)”

위의 글은 일종의 형식 명제로서 그 실제 내용은 있는 듯 없는 듯하다. 다만 무시무종하고 무궁무진한 천지는 시작도 끝도 없다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근본에서 나가는 것이 무궁하고, 끝을 구하니 오는 것이 무궁하다” (其往無窮 吾求之末 其來無窮.)³⁹⁾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천지는 시초도 끝도 없다는 것이다. 장자는 또 말한다. “무궁의 세계를 노닌다” (以遊無窮, <逍遙遊>), “사해의 밖에서 노닌다” (遊乎四海之外, <齊物論>), “경계 없는 세계에 뛰어들어 그 세계에서 산다” (振於死竟 故寓諸於死竟, <齊物論>), “무궁의 문으로 들어가서 무궁의 들에서 논다” (入無窮之門 游無窮之野, <在宥>), “만물의 근원에서 떠다닌다” (浮遊乎萬物之祖, <山木>), “하늘은 무위로서 맑고 땅은 무위로서 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두 개의 무위가 서로 결합하여 만물이 화생한다” (天無爲以之清 地無爲以之寧 故兩無爲相合 萬物皆化, <至樂>) 등의 말은 모두 다 현세의 상대

37) 金股洙, 앞의 책, p. 207

38) 安昶範, 民族思想의 源流(서울: 교문사, 1995), pp. 70~79

39) 『莊子』, <則陽篇>

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경지를 가리키며, 천지가 음양합덕에 의해 서로 교감하고 조화를 이룸에 따라(兩者 交通成和而物生焉) 만물이 화생한다는 것이다.

『주역』은 또한 세상의 모든 일을 상제(上帝)나 천(天)이라는 종교적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 질서를 찾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격화된 어떤 존재가 우주 만물을 창조, 운영하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자연의 이법과 질서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였다. 즉 우주 운행에 일정한 질서가 있다고 믿고 그 질서를 알아내어 모든 인간사에 적용하려 하였다.

우주 자연을 이해하고자 할 때 『주역』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첫째, 변화하는 자연 세계이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같이 자연 현상에 대해 경외심을 갖는다. 모든 만물이 끊임없이 사라지고 생겨나며, 가득 차고 비고하는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사람들은 많은 의문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복희씨가 괘를 그림으로써 우주의 신비를 드러내었다”⁴⁰⁾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을 복희가 8괘라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어, 그 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우주 자연의 신비를 어느 정도 밝힘으로써 그러한 의문과 두려움을 해소시켰다.

한편 「천부경」은 단군의 우주관을 기록한 글로서 환웅으로부터 단군이 물려받은 신서(神書)라는 설과 단군의 저작물로 보는 설로 나뉜다.⁴¹⁾ 처음엔 입에서 입으로 이것이 구전되어 오다가 단군의 맏아들이며 고조선의 제2대 왕인 부루제(帝)가 경신관에게 명하여 처음으로 이를 해설하게 하였고,⁴²⁾ 신지(神誌)의 편찬 기록과 고대 비문에 보이는 이 천부경을 신라학자 최고운

40) 『周易傳義大全』, <序卦傳> 下, 韓 註. “伏羲一畫 揭開宇宙之秘.”

41) 『蘇塗經典本訓』에 “天符經 天帝桓國 口傳之書也.” “桓雄大聖尊 天降後 命神誌赫德 以鹿圖文記之.” 의 기록과 安舍老撰(檀紀 2912~2973)의 『三聖記』에 “桓雄天王 肇自開天生民 施寅天經 講神誥大訓于象.”, 그리고 杏村 李岳(檀紀 3710~3787)의 『檀君世紀』에 “國子師傳有爲子 曰惟我神 實自桓雄開天納象 以佺設戒而化之 天經袖誥 策迷於上 反慰…” , 또 李陌(檀紀 3953)의 『太白逸史』에 “世傳桓雄天王 巡 駐於此 佃獲以祭 風伯天待 刻 鏡而 雨師迎鼓 環舜雲師 伯劍劒 天帝就山之伏 若是之盛嚴也.” 란 기록이 있다.

42) 番韓世家 上篇에 이런 말이 나온다. “北極水精子也…汝后請子以欲等活水土極救百姓 三神上帝悅 子往助故來 世逐以王土篆三人是之曰 用之則能瀝不危逢凶無宮.”

(崔孤雲)이 해자(解字)해서 태백산 어느 곳에 비문으로 새겨 세웠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비문의 서문이 삼국사기 진흥왕장(章)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⁴³⁾

이 「천부경」은 우주 만물의 생성과 운영에 관해 그 진리를 81자의 한문 속에 압축해 놓은 것이어서 오늘의 사람들이 완전한 해득(解得)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천부경은 본문이 81자로 구성된 글귀이다. 글의 내용 표시는 수리숫자(數理數字)로 기록, 한 일자(一)로부터 열 십자(十)까지 있다. 그 내용 속에 있는 같은 글자를 빼면 각기 다른 글자 수는 모두 45자이다. 작문법은 수리에 맞춰서 되어 있으며, 총수는 섭리(攝理)의 기본수 석삼자로 정하여 “ $3 \times 3 \equiv 9$, $9 \times 9 \equiv 81$ ”로 하였고, 문장의 내용은 첫째는 원시론(原始論), 둘째는 체계론(體系論), 셋째는 발생론(發生論), 넷째는 능력론(能力論), 다섯째는 종결론(終結論)으로 구분, 작성되어 있다.⁴⁴⁾

『천부경』은 태고 때부터 전승된 세계경전사상 제일 오래된 경전으로 세계의 어떤 사상과 철학도 이 천부경에 숨어있는 신비한 진리를 따르지 못한다. 따라서 이 천부경의 글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비밀을 정확히 알게 될 때 한국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기도 한다.

이 천부경의 형식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기독교 바이블의 계시록, 정감록 비결의 문장들처럼 매우 난해하고, 그 사상은 불교 유교 도교를 모두 포용한 내용이라고 풀이되기도 하는데, 우주가 하나로 시작되어 하늘과 땅, 두 극으로 나뉘었다는 것은 곧 음양 양극의 조화와 합덕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며, 여기에 흥익인간의 신적인 경지로까지 성숙된 인간의 세계가 도래함으로써 후천 선경, 즉 하늘과 땅 사람이 하나이며 셋인 ‘다 함 없는 세계’가 열리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결국 시작과 끝은 같은 하나로 되며,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도 같은 하나로 되어 계속 불변하며 계속 순환하고 있음을 말한 셈이며 이는 음양합덕의 진리와 통한다. 음

43) 「천부경」은 桂延壽가 묘향산에서 발견하였다는 묘향산 石壁本과 崔孤雲의 史積本, 그리고 蘆沙 寄正鎭으로 전유하여 내려오던 蘆沙傳碑文本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은 묘향산 석벽본이다.

44) 황우연, 天符의 脈(서울: 우리출판사, 1995), p. 152

양합덕은 자연의 순환 논리를 충실하게 따르는 사상인 셈이다.

음양합덕에서 양은 화하며 적극적이고 밝은 기를 말한다. 음은 순하며 소극적이고 어두운 기를 말한다. 인간에 있어서 남성을 양이라 하고 여성을 음이라 하며 자연에 있어서 천(天)을 양이라 하고 지(地)를 음이라 한다. 이 두 가지 음양이 오행과 더불어 상생·상극·전화(轉化)로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가 있다고 믿는 사상이 대순사상의 음양합덕 사상이며 이것은 양과 음의 조화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우주관을 바탕으로 천지와 인간의 조화와 화합을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순사상이다. 대순사상은 곧 자연의 순리를 따라 진리를 추구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고, 그 중에서도 음양합덕을 통한 인간 구원을 제1의 위치에 두었다.

2. 음양합덕과 민주주의의 상관성

(1) 인간생활과 음양합덕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사회를 떠나서도 살 수 없다. 인간은 그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자신이 속한 우주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간 생활은 온 우주에 뻗친 음양의 기운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음양의 조화 없이는 인간의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다. 잘못된 길을 걷는 경우는 모두 이 음양의 조화를 깨뜨리는 데서 나온다. 따라서 음양합덕과 인간 생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가 화합치 못하고 상하가 조화하지 못하는 부부관계나 사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우주 만물의 작용과 변화는 하나의 '도' 즉, 음양의 조화와 합덕에 의한 것이다. 이른 바 입천지도(立天之道), 입지지도(立地之道), 입인지도(立人之道)라고 하는 말도 따지고 보면, 천지인의 오묘한 작용은 하나라는 것이다. 천지의 도가 세상에 유행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의 조화 있는 가정을 이루고, 천과 지의 도를 채득하여서 인간됨의 원칙을 만들고, 그러한 인간은 모든 세상의 「부도(不道)」⁴⁵⁾를 제거해나가는 것이다.

45) 不道란 常道를 준수하지 않고 제멋대로 함을 의미한다. 「좌전」 <僖公二年>, “今虢爲不道” ∴ 「도덕경」 제55장, “物壯則老, 謂之不道, 不道早已.” 참조

그래서 노자는 말하기를, “(만물을) 발육 생성케 하며, 생성하고도 소유로 하지 않으며, 하고도 내세우지 않고, 자라게 하여도 주재하지 않는 것을 현덕이라 한다” 46)고 했다. 또 공자는 말하기를, “재화를 땅에 버리는 것은 나쁘지만 반드시 자기만 위해서 감추어 두어서는 안된다. 힘을 몸에서 내지 않는 것은 나쁘지만, 반드시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더욱 안된다” 47)고 했다. 스스로를 감추는 곳에 덕이 발생하며 그것으로부터 화평한 인간 생활은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런 말들은 모두 인간의 근본적인 심성 속에서 도덕의 뜻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천인 합덕의 자리로 인도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다. 천부경의 「앙명인」 역시 「인의」를 중요시하는 가운데, 「자연(天)에의 순응」과 「만물의 애호」; 그리고 「천인 합덕(天人合德)」을 생활의 신조로 삼는 「성현」의 길을 걸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하겠다.

대순사상을 밝힌 증산도 역사의 발전 과정을 천존시대, 지존시대, 인존시대로 전개된다고 하면서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리라” 라고 하였다. 또 인존시대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역사를 주도하고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시대이며, 선천시대에는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고 각종 차별과 학대를 받았으나, 후천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시대라 하였다.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하늘은 도이므로 인간은 하늘이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의 생명이 도(道)의 근원인 무극의 통일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품성을 갈고 닦아 존엄했던 옛 고향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인간과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의 절대 자리인 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절대 진리, 절대 구원의 세계를 향해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한다는 구원의 진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대순사상의 특징은 한 마디로 후천 선경의 건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순 사상의 이상과 목적을 나타낸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

46) 「老子」, 제10장, “生之, 畜之,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 是謂玄德.”

47) 「禮記」, <禮運篇>,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진경 등 네 가지의 종지 중에서 특히 ‘음양합덕(陰陽合德)’은 우주가 생겨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성 발전 과정을 거쳐 진멸에 이르기까지의 원인이 음양의 부조화 불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후천 선경은 이 음양의 부조화와 불균형을 극복한 음양합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 음양합덕을 통한 후천선경의 건설은 민주주의 정치 이념이 추구하는 이상이기도 하며,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과도 그대로 일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같은 진리는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삼일신고」는 인간의 참된 본성에 착안하여 조화로운 정치와 백성을 다스림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삼일신고(三一神誥)는 단군이 백성을 교화할 목적으로 밝힌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천부경 및 참전계경과 함께 삼대 경서(經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천부경에 대해서는 앞에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이조 명종(李朝 明宗)때 석학 남사고(南師古)⁴⁸⁾는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진경(珍景)이라고 하였다. 삼일신고는 우주 만물의 생성 발전과 인간의 참된 본성을 파악하는 진리로, 또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치화와 치민의 원리로 단군이 설파한 경전이다. 단군의 사상을 담은 이 경전은 천훈(天訓) 신훈(神訓) 천궁훈(天宮訓) 세계훈(世界訓) 진리훈(眞理訓) 등 모두 8절 366자로 기록되어 있다. 「삼일신고」는 천훈에서 시공을 초월한 우주의 무시무종성과 천도(天道)의 무소부재성(無所不在性), 무소불용성(無所不容性), 무소불능성(無所不能性)을 밝히고 있다. 또 천궁훈에서는 우주론을, 세계훈에서는 지구생성론을, 신훈에서는 신의 개념을, 진리훈에서는 윤리 도덕을 펴고 있다.

한편 장자는 천지의 만물 창생에는 어떤 의도나 기원이 없고 어떤 목적도 없다고 하면서 이를 무위(無爲)라고 하였다. 장자는 또 천지는 함이 없으되 하지 않음도 없으며, 하늘은 무위로서 맑고 땅은 무위로서 안정되어 있으며, 하늘과 땅 두 개의 무위가 서로 결합하여 만물이 화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천지는 형(形)의 큰 것이요, 음양은 기(氣)의 큰 것”(天地者 形之大者也 陰陽者 氣之大者也.)⁴⁹⁾이라 하고, 음양합덕의 기(氣)가 천지가 서로 교감

48) 南師古는 號가 格庵이며, 天文地理人相에 博通하고, 當代 大豫言家로 明宗代 天文學教授를 지냈다. 宋鎬洙, 韓民族의 뿌리思想(서울: 인간연합; 1983), pp. 89~91

49) 「莊子」, <則陽>

하고 조화를 이루어 만물을 화생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역』에서도 ‘천(天)’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옴을 볼 수 있다. 이 역에 나오는 천은 하늘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자연 현상의 배후에 있는 무형의 불가사의한 신성과 지고무상한 능력이나 자연의 이법을 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순천(順天)’, ‘응천(應天)’, ‘승천(承天)’, ‘어천(御天)’, ‘통천(統天)’, ‘숭효천(崇効天)’ 등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중시한다.

전통 동양사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후에서 말하는 하늘은 처음과 끝이 없고 안과 밖이 없는 무한 시간이자 무한 공간이며, 하늘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모두 다 평등·균일하고, 통일성과 영원성 그리고 자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하늘(자연)의 본성을 훼손하지 말고, 인간도 그 마음 속에 하늘의 도를 가져 음양합덕에 의해 이천합천(以天合天)하는 삶을 가져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의 모든 말들은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음양이 조화롭게 교감하고 합덕할 때 이루어진다고 대순사상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증산은 사람이 없으면 하늘과 땅도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 하늘과 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쓴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없으면 천지도 신도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 천지일월의 주인은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말과 뜻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2) 민주정치와 음양합덕의 관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말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자유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진보라는 말과 같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삼스레 물을 필요가 없는 말이 되어 버렸다. 어떤 기준이 되는 개념도 없으며, 정확하고 명확한 대상이나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말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으며, 우리가 그 속에 넣어 가기를 원하는 어떤 사회적 사물 꾸러미를, 약간의 교묘한 처리를 해서 전부 넣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종의 개념적인 커다란 여행용 가방(a kind of conceptual Gladstone

bag)”⁵⁰⁾과 같은 것으로서 다의적(多義的)이고 애매모호한 말이 되고 있다. 정치적 논쟁에 있어서 때로는 저항(抵抗)의 상징으로, 때로는 지배(支配)의 상징으로 조작,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대순의 진리는 그대로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천과 통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순의 사상은 곧 인간 존엄성의 사상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을 모든 것의 우위에 두고, 인간을 목적으로서 대접하며,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을 목적시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은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인간 각자가 가지는 개성을 존중하여, 각자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있는 생활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음양합덕 사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사상은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신념과 통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작된 사상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중요 사상인 자유와 평등도, 그리고 그 사상을 달성시키기 위한 민주적 정치 제도나 법률, 자유주의 경제나 시장 경제 체제도 다같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더욱 신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개인이 정부나 국가보다 앞서는 사상이다. 미국 버지니아의 ‘권리장전’⁵¹⁾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독립하고 있고,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이들 권리는 인민이 사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도 인민의 자손으로부터 박탈할 수 없다. 그러한 권리란 재산을 취득·소유하고, 행복과 안녕을 추구·획득하는 수단을 수반해서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이다. … 정부란 인민·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보호 및 안전을 위해 수립되었고 또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최대한의 행복과 안녕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실정(失政)의 위협에 대한 보장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그 최선의 것이다. 어떠한 정부일지라도 그것이 이와 같은 목적에 반하거나 불충분한

50) Carl L. Becker, *Modern Democracy*(New Haven: Yale Univ. Press, 1941), pp. 4~5:

楊茂木 역, *현대민주주의*(서울: 거목, 1987), p. 14

51) 楊茂木 역, 같은 책, pp. 141~147

것이라고 할 경우에는 사회의 다수인은 그 정부를 개량하고 변혁하고 또는 폐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하였다.

증산도 “때는 해원시대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⁵²⁾,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⁵³⁾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을 위주로 하는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이념은 국민 각자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일, 곧 인간의 완성을 말한 대순의 진리이며, 이는 라스키(H. J. Laski)가 말하는 「최선아 실현(最善我實現)」⁵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오랜 세월과 많은 시련 끝에 드디어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찬양하고 추종하고 있는 사상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인류 구원의 사상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더구나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통치 방식을 성취하고자 피비린내나는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에서나 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또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가정하거나 믿는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⁵⁵⁾ 그러나 이같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앞에서 말한 대순사상은 이미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순사상은 고유한 우주관을 바탕으로 천지와 인간의 조화·화합을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자연의 순리를 따라 진리를 추구하면 그 과정에서 인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음양합덕을 통한 인간 구원을 제시하여 인간의 존엄성은 음양이 조화롭게 교감하고 합덕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음양합덕 사상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인간 존엄성」 사상이기 때문에 음양합덕을 통한 민주주의의 완성이 가능해진다. <계사전>에서 음양합덕은 「순음 순양(純陰純陽)」의 합덕을, <대순 사상>에서 음양합덕은 「정음 정양(正陰正陽)」의 합덕을 말한다. 이는 각 개체의 존엄성의 인정을 말하고 있다.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각각의 특이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음

52)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법: 2-20.”, p. 237

53) 같은 책, “교법: 2-56.”, p. 244

54) H. J. Laski, *Democracy in Crisis*(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33)

55) Roy C. Macridis,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Movements and Regimes*(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3), p. 68

은 양의 특이성과 존재 가치를, 양은 음의 특이성과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전제로 한 음양의 감응과 교감이라야 진정한 「합덕」이 되는 것이다. 그건 모든 우주 만물이 대개 피동적으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각자 자신의 내면적 요청에 의해 자유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더욱 존엄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바로 이 자아 관념, 즉 천부의 인권으로 보고 있는 자연법 사상에서 시작된다. 여기에는 내 존재의 가치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개체의 존재에도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야 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음양합덕 사상이고, 민주주의 사상의 요체가 된다 하겠다.

음양합덕 사상은 또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 사상과 맞닿아 있다. 음양합덕 사상에서 음과 양의 교감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인격적 주체로서의 만남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다고 믿는 바를 따라서 행동하는 도덕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미생물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운동을 한다. 일반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스스로 하고 이런 분석 위에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행동한다.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구현하고 최선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 권리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자유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구속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고 행동에 옮기며, 각자가 바라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재, 자유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도 인간이 자유를 가진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순 사상에서 말하는, 신명과 인간도 우주의 도수에 따라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순환의 원리」도 바로 「자유 사상」을 말한다. “천하의 이치는 마치면 다시 시작한다. 따라서 항구(恒久)하여 막히지 않는다. 항구하다는 것은 일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하면 항구할 수 없다. 때에 따라 변역(變易)함이 우리가 지킬 영원한 길이다” (주역·程傳) 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만물에는 박진(剝盡)하는 이치가 없으며 궁진(窮盡)하면 다시 회복된다. 천지와 자연은 부단히 변화하며, 그 변화는 ‘종척유시(終則有始)’ 나

‘박복지리(剝復之理)’에 따라 끊임없이 계속된다. 천지가 서로 감응하고 만물이 변화하고 생성하려면 인간이 먼저 해원하여 마음의 자유를 되찾고, 다음에는 목은 하늘과 땅이 해원함으로써 선천의 부자유한 존재에서 벗어나 진정한 음양합덕을 통한 자유로운 순환 과정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고 또 대순 사상에서는 말한다. 이것이 곧 ‘순음 순양’ ‘정음 정양’의 합덕인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음양합덕 사상이고, 민주주의 사상의 요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음양합덕 사상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평등」 사상의 기반이 된다. 음양합덕은 순음 순양과 정음 정양이 덕으로 합해짐을 말한다. 앞에서 이미 음양의 교감은 일 대 일의 동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만남을 가져 음양합덕이 이루어질 때 모든 우주 만물은 정상적으로 생성하고 변화한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바로 이러한 관념이 평등 사상이다. 일반적으로 평등이란 신분, 재산, 종족, 성별, 노유(老幼) 등에 관계없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 가치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역』 <겸·상>(謙·象)에서 “사물의 균형 상태를 저울질하여 고르게 베푼다”(稱物平施), <무망·상>(无妄·象)에서 “때에 따라 만물을 무성케 하고 생육케 한다”(茂對時 育萬物)라든가, 『대순 사상』에서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⁵⁶⁾든가,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⁵⁷⁾든가, “후천에서는 그 닭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⁵⁸⁾라고 한 말들은 명실상부한 인간의 평등은 물론 우주 만물의 평등 사상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음양합덕 사상이고, 민주주의 사상의 요체가 된다 하겠다.

그러면 음양합덕 사상과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사회 정의」 사상과의 일치

56)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법: 1-9.”, p. 222

57) 같은 책, “교법: 1-10.”, p. 222

58) 같은 책, “교법: 1-68.”, p. 233

점을 밝혀보자. 자유와 평등 사상에 생동감 넘치는 힘을 불어넣어 주고, 일상 생활 속에서 그 사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 정의' 사상이다. 사회가 아무리 자유롭고 평등이 충만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정의로서 모든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회를 가리켜 민주 사회라고는 할 수 없다. 정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 관계란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음과 양이 하늘의 도에 따라 조화로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교감을 통한 합덕을 하여야 한다는 음양합덕 사상의 다른 표현이다. 음양합덕 사상은 이런 과정을 거쳐 천지가 화합하고 만물이 창달하며 천지가 평안하게 되어 만물의 형상이 제대로 갖춰지는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건과 곤, 음과 양이 각자 바른 덕을 지녀야 하고, 양이 음을 받들고 음이 양을 받드는 태도와 교감의 운동이 정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상이 음양합덕 사상이고 민주주의 사상의 요체인 「사회 정의」 사상과 통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음양합덕 사상과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대화와 타협」의 사상이 통하는 점은 무엇일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로 태어나서 사회화되면서 인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디까지나 사회 안에서만 혹은 사회와 더불어서만 생각할 수 있으며, 인간성도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 사회적인 상호 작용과 상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개인은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며, 음양 사상으로 따져 보면 개인을 음, 사회를 양이라 한다. 그래서 주자는 “우주는 하나의 태극을 갖고 있는 동시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각기 태극을 갖고 있다” (萬有一太極 萬有各有太極)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는 그 성격상 어느 쪽을 중요시 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 하나는 개인이 으뜸이라는 생각이다. 개인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 살았으며 이성과 자연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정치적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그것은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개인의 보호와 생존을 위해서 협동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음 따로 양 따로와 같이 일련의 무리나 집단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만약 음이 양을 무시하거나

양이 음을 무시하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게 되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전체를, 전체가 개인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서로의 대립과 갈등이 깊어져 서로 투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 개인주의와 전체주의가 음과 양의 관계처럼 따로 따로 분리해서도 무시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음이 양의 주재력에 도전하거나, 양이 교태(驕泰)하여 수용의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충분한 인온(細縑)이 되지 않으면, 만물은 불흥(不興)·불통(不通)·불녕(不寧)의 상태가 되고 만다. 그러나 이질적인 존재의 갈등 속에도 자체 내에 조절 작용이 있어 궁극적으로 타협과 화해를 이루어 만물을 화생시킨다는 것이다. 즉 음과 양의 합덕에 의해서 새로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듯이 개체와 전체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민주적 개인과 민주적 사회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민주주의를 그래서 “개(個)와 전(全)의 변증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상이 음양합덕 사상이고, 「대화와 타협」의 사상으로 표현되는 민주주의 사상의 요체가 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음양합덕 사상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순환(循環)」 사상에 다름 아니다. 순환이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의미이며, 대순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 바로 순환 사상이다. 이것은 음양합덕 사상이며, 천지인의 인격적 합일 사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천인합일(天人合一), 지인합일(地人合一), 인인합일(人人合一)이 되는, 즉 미개한 인간을 하늘과 같은 신성한 경지와 땅과 같은 풍성한 성격으로 착하고 자애로운 인간으로 개조하여 지상 낙원을 만든다는 후천 개혁 사상이 된다. 천지의 도는 일음일양으로 유행한다. 천지는 일체 만물을 날로 새롭게 창화하고 창달한다. 변역(變易)이 단순히 사물의 변역이나 만물의 변화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덕(盛德), 대업(大業), 인(仁) 등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부단한 창달, 창화이다. 천일(天一)·지일(地一)·인일(人一)의 일(一)은 천계·지계·인계의 삼계 일체를 의미하며, 또 과거·현재·미래를 의미한다. 우주의 시공을 크게 보면, 천계·지계·인계도 하나의 공간이며, 과거·현재·미래도 연결된 하나의 시간이라는 의미이다. 우주 만물의 생성 발전 변화 과정에서 음양합덕 사상은 시공을 초월해서 시작도 끝도 없다는 무선무후 무두무미(無先無

後 無頭無尾)를 뜻하는 하나의 일원사상(一圓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천지를 시간적으로는 무시무종하고, 공간적으로는 무궁무진하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한 대순 사상은 그대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순환(循環)」 사상과 통한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민주주의 사상의 요체는 모두 음양합덕 사상과 통하는 것이며 이는 크게 보면 대순의 순환 사상이고, 윤회 사상이고, 만민일체 사상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은 인류 구원 사상이고, 민주주의 사상의 요체가 된다 하겠다. 지금까지 음양합덕 사상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인간존엄성」, 「자유」, 「평등」 사상과 통한다는 점을 살펴보고, 「사회 정의」, 「대화와 타협」, 「순환(循環)」 사상 등 민주주의 사상의 요체가 된다는 사실을 논구해보았다. 민주정치와 음양합덕의 이념은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셈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미래의 한국 사회는 음양합덕을 사상적 기초로 한 민주 정치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야 한다. 미래의 한국 사회와 세계의 인류를 위한 「선경 사회」를 모색하는 입장에서 「음양합덕」 사상으로 잘 조화된 시대가 돼야 하겠다. 정치만이 아니다. 경제도, 경영도, 법률도, 문화도, 언론도, 교육도, 가정도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인류가 갈구하는 구원과 평화도 음양합덕 사상으로 재무장하여 틀을 재구성하여야 되겠다. 즉 「합덕」과 「조화」가 넘쳐 인간 삶의 질이 충만한 민주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음양합덕 사상은 한국 민족의 고유한 인간 구원 사상이며, 이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 사상임을 살펴 보았다. 세계 평화의 원동력으로서 음양합덕의 사상이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해 본다.

Ⅲ. 해원상생과 민주주의

1. 해원상생 사상의 의의

(1) 해원의 의미

해원(解冤)은 어의대로 보면 원통함을 풀어 평안한 상태를 갖는다는 뜻이다.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 벌을 받았을 때 원통함을 갖게 된다. 또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통함을 갖는다. 인간이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대개 원한을 갖게 된다. 원한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커다란 피해나 고통을 주었을 때, 자신이 받은 것만큼의 피해나 고통을 되갚으려는 것을 말한다. 즉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나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원한과 유사한 용어로는 척, 원통, 한 등이 있다. 척(慼)이란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원한을 의미한다. 척은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여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갖는 것이 척이다.

원한은 한과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恨)이란 사람이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한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살지 못한다거나,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였다거나,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을 때 스스로 자신을 한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원한(怨恨)을 척, 원통, 한과 같은 의미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원한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등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발생하게 된다. 사람이 원한감정을 느끼는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원한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생긴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누명을 써서 형벌을 받았을 때에 원한을 갖게 된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받아 큰 피해를 입게 되면 원한감정이 저절로 생기게 된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원한이 생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데,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 억울해 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노력한 정도라면 충분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 억울해 하고 원통하게 생각한다.

셋째, 원한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생기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원통함을 느끼게 된다.

넷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도 원한감을 갖게 된다. 인간의 욕구는 동물적 욕구라 할 수 있는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인간의 최고 욕구라 할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사람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스러움과 원통함을 갖게 된다.

증산은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⁵⁹⁾ 라고 가르쳤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원한을 갖게 된다.

다섯째, 항상 선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척을 짓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로 부터 생각지도 않은 비난이나 모함을 받거나, 자연재해 등을 입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이유없이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원한이 생기게 된다. 이것을 전생의 척이라 하는데, 이는 상극으로 선천시대에만 나타나는 원한이라 할 수 있다. 증산은 원한에 대해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⁶⁰⁾고 하였고, 나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을 무시하는 데서 반발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다가 원한을 품어 척을 맺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한과 척을 풀어 버리는 것이 바로 해원이다. 해원을 하기 위해

59)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법: 3-24.”, p. 254

60) 같은 책, “공사: 3-29.”, p. 144

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해원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원은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척을 짓지 말고, 척을 지었다면 먼저 척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증산은 “해원은 척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척을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어버림으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이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⁶¹⁾고 하였고,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⁶²⁾고 가르쳤다.

둘째, 이유 없는 봉변을 당했거나 자연적 재난을 당했을 때에도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원한을 갖지 말아야 한다. 증산은 “허물이 있거든 다 자신의 마음 속으로 풀라. 만일 다 풀지 않고 남겨 두면 몸과 운명을 그르치느니라”고 하였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사유없이 피해를 입거나 비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를 반성하며 덕을 베풀라고 가르쳤다.

셋째, 해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와 예의를 지키라고 하였다. 증산은 “지금은 해원시대이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⁶³⁾고 하였다.

넷째, 해원을 하기 위해서는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덕을 베풀고, 잘 되도록 빌어 주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원한을 갖고 복수를 하고 싶은 경우에도 복수심을 갖지 말고 덕을 베풀면, 해원이 되고 오히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증산은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⁶⁴⁾고 하였다.

61)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 27

62) 같은 책, “교법: 2-15.”, p. 249

63) 같은 책, “교법: 1-9.”, p. 222

64) 같은 책, “교법: 1-56.”, p. 231

다섯째, 사회에 대해 원한을 갖고 있는 경우의 해원은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사회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계층과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존하여 함께 살고 있는데, 열악한 소외계층의 원한을 풀어주는 해원은 이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해원은 다양한 갈등과 욕구불만을 지닌 인간의 삶에 대한 명쾌한 해결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기적인 삶에 대한 순화와 적응 방법을 말하고 있으며, 척을 짓지 않고 해원을 통해 서로를 이롭게 하는 광의의 이타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안심과 안신, 그리고 훈회(訓誨)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을 가꿔갈 수 있다는 것을 『대순진리회 요람』에서는 말하고 있다.⁶⁵⁾ 대순사상 실행 규범은 한 마디로 남을 해코지하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척을 짓지 말아야 하며, 쌓인 원은 풀어야 한다. 해원의 양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근본에 대해 증산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멧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⁶⁶⁾

해원의 양태 중에는 명부신명의 공사를 처결하는 것이 있다. 증산은 선천에서의 착란이 명부신명들의 포한(抱恨)에 따른 착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그 원한을 풀지 않고는 후천의 상생 세계가 건설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증산이 이같은 천지공사에서 우주를 조화하게 된 것은 까닭이 있었다. 왜냐 하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세 세계에서 하늘과 땅의 운도수(運度數)에 부정과 불응이 생겨서 우주 안에 있는 신명들의 세계와 사람들의 세계에서 제각기 공격해대는 상극(相克)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가 원한을

65)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p.15

66)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같은 책, “공사: 1-3.”, p. 98

품게 되어 진멸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 원한이 쌓이고 쌓여 신명이나 약자는 그보다 강한 신명이나 강자에게 먹히게 되었으며, 하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천기가 고르지 않게 되어 비가 올 때에 제대로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나와 하는데도 햇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아서 재앙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니, 질병이 따라서 일어나 모든 사물이 병들고 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산가 세상을 구하고 병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덕을 베풀게 되었으니 이것이 천지공사이다.

천지공사 중 해원공사는 크게 신명계 해원, 인간계 해원, 지계(地界) 해원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명부신명의 공사 처결은 만고의 원을 품고 명부에 있는 신명들의 원을 풀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원이 단주(丹朱)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그 단주의 원을 풀어주므로써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는 것이다.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는니라.” 67)

증산은 원을 풀어주는 이같은 공사를 해원공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리고 그 해원의 대상자들은 억울하게 원한을 품은 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품은 원한을 풀도록 처음 품은 소원을 충족하는 공사를 보게 된다.

이를 두고 증산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 말하고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고는 그것을 불살랐다.⁶⁸⁾ 이 공사에는 때로는 주육과 단술이 쓰였고 증산은

67) 같은 책, “공사: 3-4.”, p. 130

68) 같은 책, “공사: 1-5.”, p. 99

여러 종도들과 함께 그것을 먹기도 하였다.

해원의 또다른 양태로 증산은 때로 역신(逆神)들의 원을 풀어주는 공사를 처결하기도 하였다. 증산은 이러한 공사를 통해 척을 짓지 않는 것에는 어떤 한계도 없음을 몸소 보여준 셈이다. 역신이란 한 군주의 신하이면서 딴 마음을 품고 역적질을 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조선왕조에서 벼슬한 신하들이 조선왕조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일제에 붙어 간악한 짓을 한 것을 말한다. 증산은 이렇게 두 마음을 먹고 매국이란 난법 난도를 일으킨 역적들이 사람들로부터 ‘역적놈’들이라고 비난을 받는 자리에서 해원을 생각하고 실제 이런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런 역적들을 통해 일본은 임진란에서 맺힌 원한을 한일강제합방 조약으로 풀었다.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 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잘 지킬지어다.”⁶⁹⁾

이처럼 해원의 여러 양태는 억울한 사람뿐만 아니라 욕설을 당하여 한을 품은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또 ‘역지사지’ (易地思之)의 정신을 전제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원에는 진실로 사랑할 수 없는 자마저도 사랑하는 극진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

(2) 상생의 의미

상생(相生)은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상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환경과 서로 협력하면서 공생 공존하는 것을 뜻한다. 즉 상생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루고 협력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상생의 의미를

69) 같은 책, “공사: 2-4.”, p. 115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생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연은 본래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시적으로 균형이 파괴되어도 자체의 조절능력에 의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자정능력이 있다. 따라서 자연의 균형과 평형상태는 모든 생물이 생존하는데 기본조건이 된다. 상생은 인간이 자연의 균형과 평형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인간이 자연적 질서를 존중하고 순응하면서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의 자정능력의 범위내에서 인간의 자연 이용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은 태고로부터 자연의 위협과 미지의 세계에 대해 불안해 하여 왔으며, 문명의 발달로 자연에 대한 불안은 극복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문명과 과학기술의 고도화는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여 인류와 생물의 멸망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다.

둘째, 상생이란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상생이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신을 의식하고 스스로 옳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인간은 자기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인간은 성장 환경, 개인이 처한 상황, 가치관, 소질과 능력, 교육 정도와 관심사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선택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생활의 다양성은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결정이나 가치도 존중해야만 한다. 자신이 결정한 것과 가치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과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독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자신의 삶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한 것이다. 자신의 삶을 중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활과 삶의 의미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인간 상호간의 생활에 있어서 상호 인정과 존중이 상생인 것이다. 그리하여 상생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 또는 공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생은 인류가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 조건이며, 보다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윤리인 것이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상생의 의의와 실천을 가르치기 위해서 증산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 70) 하였고,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하지 말며, 남과 다투지 말며, 천한 사람이라 천대하지 말며,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 속에 낭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느니라” 71)고 가르쳤다.

셋째, 상생은 인간과 신과의 공존도 의미한다. 우리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신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살고 있다. 신의 세계를 명료하게 인지할 수 없고 또 구체화할 수도 없지만, 인간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여 왔다. 증산은 신명세계를 인정하고 신명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가도록 가르치고 있다. 증산이 신명을 인정하고 교법(教法)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은 사람이 먹는대로 흠향하니라.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4대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그리고 서교는 신명의 박대가 심하니 감히 성공하지 못하리라.” 72)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 지금은 신명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갈을 들고 죄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 73)

70) 같은 책, “교법: 1-34.”, p. 227

71) 같은 책, “교법: 1-38.”, p. 227

72) 같은 책, “교법: 1-49. 50. 66.”, pp. 230~232

73) 같은 책, “교법: 3-5.”, p. 246

그리고, 증산은 박공우가 아내와 다투고 구릿골을 찾아오자 별안간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독하면 천하의 독을 다 가졌고 선하면 천하의 선을 다 가졌노라. 네가 어찌 내 앞에 있으면서 그런 참되지 못한 행위를 하느냐.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 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일에 뜻하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 74)

또 증산은, ‘인간의 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한 처사를 삼가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 75)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 가느니라.” 76)

이처럼 증산은 신명을 존귀하게 모시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며, 상생할 수 있는 방향임을 가르쳤다. 인간이 신명을 존중하는 것은 곧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인간이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쌓으면, 신명이 인간을 도와주어 복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고 있다.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갖지 말라고 했다. 또 척을 지었다면 먼저 스스로 척을 풀려는 노력을 하라고 가르쳤다.

증산은 상생을 가르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 말라. 아직도 남아 있는 복이 많으니 남은 복을 구하는 데에 힘쓸지어다” 하고, “너희들은 항상 평화를 주장하라. 너희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밖에서는 난리가 일어나리라” 하고, “후천에서는 약한 자가 도움을 얻으며, 병든

74) 같은 책, “교법: 1-42.”, pp. 228~229

75) 같은 책, “교법: 1-29.”, p. 226

76) 같은 책, “교법: 2-17.”, p. 237

자가 일어나며 천한 자가 높아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요.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 스스로 꺾일지라” 77) 하였다.

그리고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화화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신인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하의 학교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봉록 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관 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 78) 하였고,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 오리라” 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후천에서는 그 닻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 79)고 하였다.

즉 모든 사람들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남이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이 더욱 잘 되도록 빌어 주어야 하며, 그리고 후천시대에는 선천시대에서 핍박받던 소외계층들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권리를 갖고 유능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고 설파하였다.

해원이란 원이 된 원인을 없애고 소원하던 바를 충족시키는 일을 통해서 근원을 해소함을 말한다. 영원한 척의 윤회를 어느 순간에 끊고 분풀이 대신 참회란 의례를 통해 척을 없애는 것에 해원의 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상극되었던 척의 장벽은 무너지고 상생(相生)의 화평 상태가 새롭게 열리는 것이다.

상생에 대해서는 『전경』의 기록에 여러 번 나와 그 의미를 체득케 하고 있다. 먼저 「전경」의 한 대목을 보면 <예시편>에서는 “선천의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 세계의 참생을 건지려는 증산의 뜻은 이미 세상에 흥포된 바이니라” 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후천 선경의 새 세상을 열겠다는 대순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

77) 같은 책, “교법: 3-9. 1-53. 2-11.”, p. 231. p. 237. p. 247

78) 같은 책, “교운: 1-17.”, p. 160

79) 같은 책, “교법: 1-68.”, p. 233

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⁸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증산은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을 명부의 착란에 있다고 보고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쳤다. 이를 통해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잡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상생원리에 의해서 인존 역사는 처결되고 후천세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상생의 의미는 여러 인간 관계에 고루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상생에는 인간 평등 사상이라는 인류 구원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경」에, “...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리라” 고 한 말이나, “부인이 천하사(天下事)를 하려고 염주를 딱딱거리는 소리가 구천(九天)에 사무쳤으나, 장차 부인의 천지를 만들려 함이로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할 것이오. 남녀 동권시대가 되리라” 고 한 말 등은, 모두 하나같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 밑에서 인간 평등사상을 일찍부터 주창한 것이 된다 하겠다.

상생의 원리는 현대 문명 사상에도 적용된다. 즉 세계의 모든 인종과 족속들이 제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하는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으므로 후천세계에서는 각각의 문명이 척을 짓지 않도록 한 것이다.

즉 증산은 동양의 도통신을 서양으로 옮겨 서양의 문명신들로 하여금 천국의 것을 본따게 하고, 그 문명신을 동양에 옮겨 와서 문명을 계발케 하셨다. 이로써 하늘의 문명, 도통이 이 땅의 곳곳에 스며들어 후천 선경의 삶을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⁸¹⁾

동서양 문명의 상호 보완은 오늘날 서양 세계에서 정신 문명의 결핍을 극도로 우려하고, 동양에서는 현실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기계문명의 결핍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늘날 동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증산이 갈등과 대립의 상생이라는 상생의 원리를 통해 선천의 도수를 풀고 후천세계를 연 데서 연유한다 하겠다.

80) 같은 책, “예시: 9.”, p. 313

81) 張秉吉, 大巡宗敎思想(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pp. 135~136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놓으시니라.” 82)

증산은 이 세상에 와서 도수로써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어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음으로써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로운 기틀이 열리게 하였다. 만고의 원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 세상을 고친 것이며 이같은 내용은 교운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제생 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 혁세(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 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83)

결국 세상에 화평한 기운을 베풀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상생의 원리는 작용한다 하겠다. 이처럼 상생의 도는 목은 척을 풀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의술로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절대진리라 할 것이다.

(3) 해원상생의 의의

인간 사회는 유사 이래 대립과 갈등, 반목과 질시, 부조리와 투쟁, 그리고 전쟁 등으로 개인과 사회가 고통스럽고, 때로는 파멸을 당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인류가 평안하고 화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인간 사회가 이러한 불행과 갈등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뜻을 이루지 못하여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해 하고 원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인하여 서로 척을 짓고 서로 원한관계가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인간 사회가 만약 이기적 심정에 의해서만 유지된다면, 약육강식의 무질서로 인하여 약자는 강자에 의해 피해를 보고 희생만 당하게 된다. 이러한

82)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같은 책, “예시: 12.”, p. 313

83) 같은 책, “교운: 1-16.”, p. 160

생활은 사회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서는 생존까지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인간은 원래 선한 마음과 이성을 갖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인간이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는 예절과 윤리, 법 등이 있다.

예절과 윤리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고, 법률은 강제력을 통해 타율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타율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법률은 질서 유지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반면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윤리라 할 수 있다. 윤리는 사회 규범을 자신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행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며,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인간은 자기가 소속한 사회와 조직에서 형성된 윤리를 존중하고 준수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간의 윤리 규범은 어느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특정 사회에서만 적용되는 규범도 있다. 인간이 윤리 규범대로만 행동하면 사회 질서가 확립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윤리 규범 중에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도 있고,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고루 통용되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윤리 규범 중에는 상위규범도 있고, 또 하위규범도 있다. 법률도 헌법과 같이 기본법으로 최고법이 있고, 또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하위법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인간 사회의 윤리 규범 중에서 기본적이고 변화되지 않는 윤리 규범으로서 항상 존중되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특히 필요한 윤리 규범은 해원상생이라 생각한다.

해원과 상생의 의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원상생은 인간생활의 기본 규범이며,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실천해야 할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인

간이 갖고 있는 척과 원한 등을 풀어 갈등과 대립이 없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려는 노력이 바로 해원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원한을 해소할 때 상생은 가능하다. 대순사상에 따르면 선천시대에는 서로 자기가 잘되기 위해 노력하는 경쟁으로 원한이 많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빌어주고 도와주는 해원상생의 후천시대에는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한다. 해원상생이 되지 못하면 개인이나 사회, 국가나 국제 관계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원상생을 하지 못한 개인들은 원한감정을 갖게 되는 데, 원한 감정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원한 감정은 다른 사람을 저주, 증오, 복수, 좌절감 등을 심하게 느끼게 하고, 실제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 척과 원한은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신병까지 앓게 하여 인간을 파멸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해원상생을 하지 못하면, 집단적 투쟁이나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사회문제는 대부분이 사회내의 집단들이 이기적 태도로 자신들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이기적 태도는 다른 집단에 피해를 주게 되고, 이러한 피해는 원한 감정을 갖게 하여 상생이 아니라 상극으로 갈등상태를 야기하게 된다. 상극적인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집단을 증오하고 적대감을 갖게 만든다.

국가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상생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회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 국가내에서 해원상생이 실현되지 않으면 내란이 발생하여 국가 전체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 국가와 국가간에 서로 원한을 갖게 되면, 적대국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게 된다. 따라서 전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더욱 더 인간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해원과 상생은 대순진리를 나타내는 대명사격으로 대순진리의 교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해원상생은 원을 풀고 상생한다는 뜻으로 대순사상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해원이 필요한 것은 선천의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연유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미 인용한 것이지만

『전경』에서 증산은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84)

라는 내용을 통해 해원의 필연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증산이 눈을 돌리기 전의 선천 세계는 참혹한 원한의 윤회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상극에 지배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원한은 또다른 원한을 낳고, 그 원한이 또 원한을 낳음으로써 인간과 사물은 모두 원한에 얽혀 있었다. 결국 상도(常道)는 무너지고 무도(無道)의 지경에 다다라 진멸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극에 달한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은 쌓인 원을 푸는 것이고, 그것은 증산이 말한 해원상생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선천 세계에서 쌓인 원한은 인간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증산의 <행록>(行錄)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같은 사실이 잘 드러난다.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하시고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오시니 대원사 골짜기에 각색의 새와 각종의 짐승이 갑자기 모여들어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 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너희 무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려 함인가」 하시니 금수들이 알아들은 듯이 머리를 숙이는도다. 상제께서 「알았으니 물러들 가있거라」고 타이르시니 수많은 금수들이 그 이르심을 좇는도다.” 85)

이처럼 해원상생의 적용 범위는 선천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해원을 위한 방법 또한 수없이 많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중의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이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 신이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이로부터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려 하노라」는 말씀 상제로부터 들었도다.” 86)

84) 같은 책, “공사: 1-3.”, p. 98

85) 같은 책, “행록: 2-15.”, pp. 21~22

“상제께서 가라사대 「만고 역신을 해원하여 모두 성수(星宿)로 붙여 보내리라. 만물이 다 시비가 있되 오직 성수는 시비가 없음이라. 원래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이므로 원한이 천지에 가득하였거늘 세상 사람은 도리어 그 일을 밋게 보아 흉악의 머리를 삼아 욱설로 역적놈이라 명칭을 붙였나니 모든 역신은 이것을 크게 싫어하므로 만물 중에 시비가 없는 성수로 보낼 수밖에 없나니라.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는 시비와 상극이 없나니라」 하셨도다.” 87)

시비와 상극이 없는 성수의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해원상생의 원리는 후천 선경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산은 다양한 공사를 통해 이를 실천해왔다. 선천 세계를 광구할 수 있는 방법은 상극의 지배로 인해 천·지·인 삼계가 상통하지 못하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근원적인 원인인 원한을 풀어내는 것이며, 증산은 해원을 통해 막혔던 것을 뚫고 상생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신세계를 열 수 있도록 하였다. 해원과 상생의 관계는 이처럼 더이상 원한의 쌓임이 있을 수 없는 후천 선경을 이룩하기 위한 큰 목적하에 한 방향으로 어우러지고 있다.

2. 해원상생과 민주주의의 관계

(1) 인간생활과 해원상생

인간의 사회생활은 두 개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양면성이 있다. 그 양면성 중의 하나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개인화 경향이다. 인간은 사회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리하여 자신을 특정화하려는 강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자기 의지대로 처리하려고 하며, 사회 질서와 법 집행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자기 자신만은 예외적인 대우를 받으려 한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제휴하여 사회화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삶의 의미나 행복

86) 같은 책, “공사: 1-29.”, p. 109

87) 같은 책, “교법: 3-6.”, p. 246

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를 갖고 생활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인간이 능력을 개발하거나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듯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도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상태에서 인간적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어떤 조직과 집단에 소속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조직이나 집단의 일원으로 생활하게 된다.

인간의 개인화나 사회화는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개인화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회화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우월해지면 자신이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경쟁을 하게 된다.

인간은 개체로서 특정화하려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시기하며 지속적인 경쟁심과 만족할 줄 모르는 소유욕과 명예욕·권력욕 등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 사회는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 폭력과 투쟁 등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중시하는 이기심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여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산, 권력, 지위, 기회 등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이든지 이러한 재화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그럼으로써 개인들 간의 경쟁은 불가피해진다.

사회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회의 한정된 재화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많이 획득하게 된다.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정된 재화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때로는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면서까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약자를 핍박하게 되면, 이들 상호간에는 자연 원한관계가 쌓이고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빈부와 지역개발의 격차, 물질만능주의의

확산, 부조리와 부패 등 비인간적인 행태의 확산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는 발전하였지만 사회정의 또는 분배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닥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는 빈부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했고, 많은 중산층들을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했다. 대량 실업의 발생으로 생산은 위축되고 건전한 소비마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필품의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고가 사치품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욕구는 크게 증가했는데 현실은 그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열악하여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할 수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고, 분출구를 찾지 못하는 국민들의 욕구 불만은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절대빈곤층의 증가와 절제를 모르는 부유층의 과소비와 낭비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이 늘어남으로써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외래 문화의 급속한 유입과 무절제한 수용으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을 겪고 있으며, 전통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 윤리관 등이 상실되고 서구화되어 많은 사회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발전은 인간성 상실이라는 폐해를 낳았고 인간 소외와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계층의 증가를 가져왔다. 자연의 개발과 이용을 통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점은 인정하지만 자연과 인간, 그리고 내면 세계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문화가 실종되고 인성이 마비된 사회가 아닐 수 없다.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간의 단절, 경노사상과 부모공경 정신의 약화, 가족제도의 핵가족화와 기능의 변화 등으로 젊은이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확산된다면 원한은 더욱 급증할 것이다.

결국 한국 사회는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감

을 느끼며 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불안과 원한 감정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신과의 관계 등에서 폭 넓게 확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 문제는 새로운 윤리 규범을 필요로 한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윤리 규범은 해원상생이라 생각한다. 인류 사회의 원한관계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원상생의 원리를 따라야 하겠다.

해원상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순진리의 안심과 안신, 그리고 훈회를 실천해야 한다. 안심(安心)이란 사람의 행동 기능을 주관하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을 편벽하지 않고 사사(私邪)됨이 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을 갖고, 허무한 남의 꾀임에 움직이지 말고 당치 않는 허욕에 정신과 마음을 팔지 말고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항상 마음을 안정케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안심은 순결한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함으로써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심은 해원상생의 기초가 된다.

안신(安身)은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모든 행동을 법례(法禮)에 합당케 하며, 도리에 알맞게 하고 의리와 예법에 맞지 않는 허영심에 의해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안신이란 인간의 행동이 사회 규범에 적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남들로부터 척을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⁸⁸⁾

훈회(訓誨)는 안심과 안신을 실행하는 대순진리의 행동 규범이다. 훈회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이다.⁸⁹⁾

(1) 마음을 속이지 말라.

마음은 일신의 주이니 사람의 모든 언어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 마음에는 양심(良心)과 사심(邪心)의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고, 사심은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이다. 원래 인성(人性)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을 되찾기에 전념해야 한다. 인

88)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p. 15

89) 같은 책, pp. 18~21

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해야 한다.

(2) 언덕을 잘 가지라.

말은 마음의 소리요, 덕은 도심(道心)의 자취이다. 나의 선악(善惡)은 말에 의하여 남에게 표현되는 것이니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남이 잘되는 여음(餘蔭)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른다. 말을 악하게 하면 남 해치는 여양(餘殃)이 밀려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른다. 화와 복은 언제나 언덕(言德)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언덕을 특별히 삼가야 한다.

(3) 척을 짓지 말라.

척은 나에 대한 남의 원한이다. 곧 남으로 하여금 나에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거나 남의 호의를 거스리는 것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이다. 따라서 항상 남을 사랑하고 어진 마음을 가져 온공(溫恭), 양순, 겸손, 사양의 덕으로 남을 대하여 척을 짓지 않아야 한다.

(4)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은혜란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혜택이고, 저버림이라 함은 배반하는 것이니 은혜를 받거든 반드시 갚아야 한다. 생(生)과 수명과 복록은 천지의 은혜이니 성경신(誠敬信)으로써 천지 보은의 대의를 세워 인도(人道)를 다하고 보명(保命)과 안주(安住)는 국가 사회의 은혜이니 헌신 봉사의 충성으로써 사회 발전과 공동 복리를 도모하며 국민의 도리를 다한다. 출생과 양육은 부모의 은혜이니 숭선(崇先) 보본(報本)의 대의로 효도를 다하고, 교도(教導) 육성은 스승의 은혜이니 봉교 포덕(奉教布德)으로써 제도(弟道)를 다하고, 생활과 녹작(祿爵)은 직업의 은혜이니 충실과 근면으로써 직분을 다해야 한다.

(5) 남을 잘 되게 하라.

남을 잘 되게 함은 상생대도(相生大道)의 기본 원리요 구제창생의 근본 이념이다. 남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성사(成事)에는 타인과의 힘을

합하여야 된다는 정신을 가져 협동생활에 일치 협력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대순사상은 인간 생활과 해원상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인간 생활에 있어서 척을 짓지 않고, 원한을 풀고 공존 공영하는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심과 안신, 그리고 훈회를 실천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2) 민주정치와 해원상생의 상관성

인간은 정치생활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고, 서로의 이해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며 해소하여 조화로운 삶을 이루고 있다. 근대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일반 국민들은 통치권자의 지배의 대상이었지, 스스로의 의사와 결정에 따라 정치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근대 이후 정치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계층이 정치생활의 주체로 등장하였고, 일반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민주 정치제도가 발전하여 왔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하고 일반 국민들이 정치생활의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와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민주화될 때 가능하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다양한 국민 의사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민들의 능력과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적 정치제도와 국민들의 민주적 운영 능력은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각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민주 정치는 실현될 수 없는데, 정치제도가 민주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민주 정치가 실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인 정치제도가 확립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의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민주 정치가 실현되지 못한다.

민주 정치제도와 함께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태도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민주적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태도를 갖고 행동할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존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과 발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곧 해원상생의 이념인 것이다. 민주정치와 해원상생의 이념에 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와 해원상생은 인간 존중의 사상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간 존중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자기 자신의 것 못지않게 존중하는 것이다. 인간 존중은 시민사회의 질서를 이루는 기초인 평등과 정의의 원칙을 내면화한 덕목이다. 대순 사상에서도 인간이 없으면 천지도 하느님도 의미가 없으며, 우주의 주인은 인간으로 보고 있다. 천지일월도 인간이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한다.

둘째, 해원상생은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고 극대화하고 있다. 원한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다. 원한을 해소하고 상호간에 존중하고 화합적 관계를 갖는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민주 정치에서 보장하는 자유란 방종이 아니라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나의 자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야만 한다. 즉 민주 정치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해원상생적 자유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화합하면서 자유로운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셋째, 해원상생은 사회에서 소외된 열등 계층의 원한을 풀어주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에서 우월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줄 때 척을 짓지 않고, 원한을 풀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즉 해원상생은 민주 정치의 평등원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신분적 특권을 배제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평등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넷째, 해원상생과 민주주의는 준법정신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준법정신

은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준수할 때 국민들은 평안하고 안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공정하지 못하고 준법정신도 미약한 상태이다. 남의 권리를 존중하거나 공정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식과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척을 지을 수 있고, 원한을 살 수 있다. 따라서 대순 사상의 안심과 안신, 그리고 다섯 가지 훈회는 윤리 규범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법과 같은 것이다.

해원상생의 이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루지 못한 채 여야간의 극한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언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야간의 정치 행태는 과거와 같은 대립과 갈등으로 성숙한 민주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소야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여당의 무차별적인 야당의원 영입과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 사정 정국으로 인한 정국 경색이 지루하게 이어져 정치 실종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였다. 급기야 야당이 집권 여당 시절 북한과 정치적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는 이른바 「총풍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고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고문사비」 등으로 정국은 파국의 끝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정치가 민생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또는 소수의 정치 세력을 위한 정치로 국민들 뇌리에 각인된 상태에서 민주 정부의 탄생으로 이같은 구태가 타파되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 정치는 해방 이후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 정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지만,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 행태가 계속되어 왔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명시하고 민주 정치를 지향해 왔지만, 실제의 정치 상황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치 위기와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왔다. 즉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고 물리적인 비평화적 수단에 의한 정변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정치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어느 나라의 정치도 문제는 있다. 다만 문제가 크냐 작으냐, 심각한 것이냐 아니냐 등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나 정치 문제는 항시적(恒時的)이고 항존적(恒存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민주 정치가 잘 발달된 나라라 하더라도 이상적인 상태의 정치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해야 하는 정치는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화합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치적 문제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파생되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의 정치적 문제는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민주 정치가 발달한 나라의 정치문제는 위기상황이 되지 않고, 한시적 문제로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정치란 본래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해야만 하는데, 한국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안만을 안겨주고 있다. 그것은 여야 정당들이 상극적(相剋的)인 행태만을 갖고 있으며, 상대를 인정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상생적(相生的)인 정치를 실천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여당과 야당간의 극한적 대립과 투쟁의 정치가 아니라, 해원과 상생의 정치 행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원상생적 정치는 곧 민주정치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증산은 일찌기 민중의 해원상생(解冤相生·한을 풀어줌으로써 서로가 함께 사는 것)을 위한 천지공사(天地公事)에 주력했다. 선천세계의 막힌 도수를 풀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천지공사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돌리고 척을 짓지 말것을 강조했다며, 해원상생을 통한 인류 평화를 제창했던 것이다. 한국의 정치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 국민 의사를 통합하는 민주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원상생적 정치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IV. 신인조화와 민주주의

1. 신인조화 사상의 의의

(1) 신인의 의미

대순사상은 역사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정립되었다. 대순사상에서는 역사를 천존시대, 지존시대, 인존시대로 전개된다고 보고 있다. 대순사상이란 영원과 순환을 의미한다. 순환이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시작과 끝이 없으며, 항구하여 막힘이 없다는 의미이다. 대순이란 우주의 원리는 도수이며, 도수는 삼계를 순환하는데, 신명과 인간도 우주의 도수에 따라 순환하는 것으로 본다. 신명과 인간을 신인이라 하며 신인은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순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순환의 원리가 대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대순 사상의 핵심은 바로 신인의 막힘없는 순환과 조화, 곧 신인조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왔고, 신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렇다면 신인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인의 이해를 위해 먼저 인간에 대해 살펴보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품으며 살아간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가?」 등의 인간에 대한 물음은 계속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듣기 어렵다. 특히 스스로의 삶이 피폐해지거나 곤궁해지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도 생기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다.

비록 인간에 대한 개념적 혼란은 있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에 관해 정의한 개념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⁹⁰⁾

첫째, 인류는 일찍이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을 구별하지 않는 의인관(擬人觀: anthropomorphism)적인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동물

90) 秦教勳, 哲學的 人間學 研究(1)(서울: 경문사, 1982), pp. 57~59.; 柳正福, 人間과 倫理(서울: 한울출판사, 1996), pp. 16~21

이나 바위, 물고기나 나무 등은 자연으로서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상대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즉 인간처럼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서로 의사 소통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만유영유론(萬有靈有論: animism)과 토템 사상(totemism), 점성술 등이 그러하다.

둘째, 개인은 가족이나 씨족, 그리고 부족과 같은 집단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독립적, 자율적 존재로 이해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종족 중심주의(ethnocentrism)적인 인간 이해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만을 높이 평가하려는 자기중심적인 면을 갖게 한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만을 인간이라 불렀다. 사르트르(J. P. Sartre)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⁹¹⁾ 유태인이나 독일인의 선민의식(選民意識), 중국인의 중화사상(中華思想), 오스트레일리아인의 백호주의(白濠主義) 등은 열등감과 우월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인간 이해는 국가와 민족간에도, 국민이나 동족간에도 차별 감정을 낳게 하였다.

셋째, 인류는 일찍부터 종교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인간의 창조,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과 말세(末世)에 관한 생각을 종교를 통해서 정의하고 배워 왔다. 종교를 통한 인간 이해는 배타적인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인간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일상적인 인간 이해나 종교적인 인간 이해는 어떤 특수한 조건이나 특정 집단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도 있어 때로는 자기 자신과 이웃 사람들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원화되어 있는 오늘의 사회에는 때로 폐쇄적인 선입관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신이란 무엇인가?

포이에르바하(Ludwig Feuerbach: 1804~1872)는 “신이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인간의 불행에 대하여 흘린 사랑의 눈물이다. 신이란 영혼 밑에 가로 놓여 있는, 무엇이든 말할 수 없는 탄식(歎息)이다”⁹²⁾ 라고 말하면서, 내세(來世)의 종교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즉 인간성을 떠난 신의 존재는 신의 본질을 오인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람에게 의한 객관화라고 단정하였기 때문이

91) 사르트르는 “反셈족사상의 주된 원인은 자기 우월감에서 나왔다” 고 하였다.

92) Democritus, “신과 자유”, 김동원, 이성과 자연(서울: 한승, 1990), p. 308

다.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종교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탄식이요, 마음 없는 세계의 정서이며, 정신을 상실한 정신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적 비참은… 현실적인 비참의 표현이며 현실적인 비참에 대한 항의이다.”⁹³⁾ 그는 이렇게 종교의 백해무익을 주장하면서, 신의 자리에 ‘물질’ 과 ‘과학’ 을 대치한다. 그는, 역사와 정신의 주체가 ‘물질’ 이며, 그의 운동에 의하여 역사가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정신마저 ‘물질’ 의 속성으로 보는 극단주의에 빠지게 됨으로써, 인간의 정신과 자유를 부정하는 ‘유물론’ 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신을 가리켜 단순한 사물의 근원으로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영원한 자연과 같은 것이 아니고, 오성과 자유에 의하여 사물의 창조자가 되어야 하는 최고의 존재자이며, 신의 본체계는 알 수는 없지만 생각만은 할 수 있다고 하였다.⁹⁴⁾ 이 말은 계시가 이성을 초월하고, 종교가 철학을 초월하고, 신앙이 논리를 초월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5~1274)가 말한, “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였듯이 세계 안에서 최고도로 추구되는 것으로서 그 모든 추구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창조자로서 모든 사건의 시초에 존재하고 있다.… 신은 성교의(聖敎義, sacred doctrine)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기 때문에 논리를 초월한다”⁹⁵⁾ 라고 한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플라톤(Platon: 427~347 B.C.)은 신을 가리켜 선(善)하고 질투심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만 창조하고 가능한 한 자기와 동일하기를 원하였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가시적인 전 영역이 정지하여 있지 않고, 불규칙과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은 이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만들어 냈으며, 영혼에게 지능을 넣어 주었으며, 육신에겐 영혼을 넣어 주었으며, 세계 전체

93) K. Marx,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losophie, p. 378.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한 말은 마르크스가 창안한 것은 아니다. 일찍이 Heine와 B. Bauer가 사용했다. Karl-Heinz Weger(ed.), Religionskritik von der Aufklärung bis zur Gegenwart. p. 220

94) Immanuel Kant, Critique of Pure Reason(1787): 이명성 옮김, 순수이성비판(서울: 홍신문화사, 1993), p. 465

95) 이기상·이말숙 옮김, 앞의 책, pp. 144~145

를 영혼과 지능을 가지는 한 생물로서 만들었다. 그러므로 세계는 하나 뿐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크세노파네스(Xenophanes)는 “만물은 하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신이 곧 자연이요, 자연이 곧 신이라는 범신론적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 또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 1632~1677)는 그의 저서 『윤리학』 <신에 관하여>에서 신은 창조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긍정되어 온 신의 관념을 배제하였다. “신, 또는 각기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히 많은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실체의 본성에는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실체는 다른 것으로부터 산출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기 원인’ 이다. 따라서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실체의 본성이며,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고, 또 생각할 수 없다.” 실체는 신이며, 신은 자연이다. 그러므로 신은 자연이다. 더욱이 신은 “창조적인 자연” 이지, “피동적인 자연” 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창조를 허락하지 아니 한다. 그가 생각하는 신은 인격적인 것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초자연적인 것도, 세계를 창조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재며, 영원한 본질을 표시하며,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진 실체라고 하였다.⁹⁶⁾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 A.D. 354~430)는 말하기를, 인간은 자신의 일체의 인식활동과 의지활동을 통해서 모두가 “신이 존재한다” 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으며, 신은 인간 영혼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무엇을 소통해 준다고 말하였다.⁹⁷⁾ 그리고 이 세계는 신에 의해서 무(無)로부터 창조된 세계(*esse creatum*)이며, 또한 세계는 신의 존재에 유일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참여한다고 표현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 자체도 신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며, 존재론적으로 신의 지성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물들은 인간

96) Baruch de Spinoza, *Ethics*, IV.: 김동원, *이성과 자연*(서울: 한승, 1990), pp. 307~310.

97) F. J. Thonnard, VI. *Dialogues Philosophiques*, III. *De L'ame a Dieu: De Libero*, pp. 521~523 nota 29.: *intuition de participation: pp. 519~521 n. 28* *Le principe de subordinatio ou regulation.*

지성에게 투명성을 지니고 있어서 인간 지성에 의하여 인식될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보는 존재계에서는, 플라톤의 사고대로, 반드시 상위의 존재자가 하위의 존재자와 그 작용을 규제한다. 참여받는 근본 존재는 자기에게 존재를 의존하는 참여자의 활동, 따라서 인식 활동도 규제한다. 그의 인식론 역시 참여와 규제라는 원리에 입각해서 개진된다. 인간의 모든 인식과 판단의 최종 준거가 되는 것은 신적인 지혜, 달리 표현하면 신 자체이거나 로고스이다. 그 이상으로 소급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⁹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에 대한 관념은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신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종교심의 대상이 되는, 초인간적 위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명명(冥冥)한 중에 존재하여,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인류에게 화복(禍福)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신령, 곧 종교에 귀의(歸依)하고 또 두려움을 받는 대상이나 하느님, 귀신(鬼神),神明(神明)⁹⁹⁾ 등을 신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신이란 종교적 신이며, ‘인격신’을 말한다. 인간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신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였으며, 인간은 그런 신을 믿음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이란 영묘 불가사의(靈妙 不可思議)하여 인지(人智)로써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으며, 그 존재가 너무나 거룩하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신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민족은 상고시대부터 신을 믿어왔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대체로 신은 전지전능하고 기적을 행하는 구체적인 성격에서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을 계시(啓示)하고 지도하는 이상상(理想像)으로서 변화하였다. 즉 신성(神性)이나 존재의 근거, 그리고 구극적(究極的) 관심 등의 추상적이고 애매모

98) “원초적 지혜에 대해서는 아무도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또 그 지혜 없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지혜가 우리 지성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그 하나의 지혜에 의해서 인간 각자의 자성이 지혜로 위치고, 인간 지성은 그 지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에 입각하여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ibid.*, pp. 521~523. 西江大學哲學研究所 編, 哲學的神論(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pp.225~227.

99)神明(神明)이란 말은 신(神)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神明이 난다는 말과 신이 난다는 말이 모두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천지神明(天地神明)과 천신지기(天神地祇)란 말의 뜻도 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림영창, “大巡思想의 神觀攷,” 「大巡思想論叢: 第一輯」(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p. 127

호한 말이 '신' 이란 말로 대치되었다. 대순사상에서는 이에 대해 좀더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다. 증산이 『전경』에서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 지금은 신명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¹⁰⁰⁾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민족이 옛부터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온 신과 신령은 인간과 뿔뿔이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신과 신령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자연 숭배 사상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 애니미즘적인 것과 마나이즘적인 것, 토데미즘적인 것과 타부적인 것이 혼유되어 있다 하겠다. 아무튼 한국 민족은 일상 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신들과 어울려 신들을 섬기게 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개인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투영된 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신은 현실적인 것이라고 표상된, 현실의 존재로 변화된 인간의 원망이며, 신은 상상 속에서 만족된 인간의 행복욕이기도 하다. 인간이 만약 원망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가 감정과 상상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종교 곧 신은 갖지 않았을 것이다. 생활이 공허하면 할수록 신은 그만큼 풍부해지고, 구체적으로 된다. 현실세계가 공허해지는 것과 신성(神性)이 충실해지는 것은 한 가지 작용이다. 단지 빈곤한 인간만이 부유한 신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신은 결핍이란 감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즉 인간의 종교심, 이것이 바로 신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는 신의 관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나는 신을 무한하고 자존적이며 전지 전능한 하나의 실체요, 내 자신과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한 하나의 실체로 이해한다.”¹⁰¹⁾ 이

100)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법: 3-5.”, p. 246

101) T. Z. Lavine, *From Socrates to Sartre*(New York: Bantam Books, 1984): 문현명·이부현·이찬호 옮김, 소크라테스에서 사르트르까지(서울: 동녘, 1994), p. 120

말은 인간이 신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러한 관념의 원인인 실제적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그는 신에 대한 자신의 관념은 본유적이며, 자신의 정신 속에 이미 생득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신은 인간의 절대적 본질이 대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신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이 개개 인간 곧 현실적 육체적 인간의 제한에서 분리되어 대상화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질을 신적으로 절대화하고 신비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신성(神性)이 있다. 이 신성이란 우리의 내부에 있는 에너지이지만, 우리의 삶을 뒤바꿔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의 내적 체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이들 동물이나 식물이 신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자적 실존에서 대자적 실존으로 나아가는 것은 꼭 복잡한 동물이나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 미물들의 세계가 갖고 있는 신성의 추이를 모를 뿐이다. 자아에 대한 느낌은 모든 존재가 느끼는 느낌이다. 그것이 존재의 삶을 유지하는 힘이다. 신성은 그 존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다. 따라서 이 신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나아가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화의 의미

한국을 비롯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중화(中和), 중도(中道), 중용(中庸) 사상이 중시되어 왔다. 이는 바로 조화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조화에서의 조(調)가 중도, 중용, 중화를 나타낸다고 볼 때, 화(化)는 조화(造化) 즉 변화되어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의 경우 이것은 자녀의 탄생을 의미하고, 인류에게는 「후천선경」의 개시(開始)를 나타내며, 정치적으로는 보다 더 차원 높은 인류 구원 사상으로서의 진정한 민주주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인조화 정신은 이처럼 참으로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음을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온 것이다.

인간을 이해하려는 인간관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에게 가장 가까이 가려는 존재라는 사실에는 이

의가 없다. 인간은 한편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에 따르기도 하고, 한편에 있어서는 도구와 불을 사용하면서 경제적인 이익도 추구한다. 또한 인간은 이성과 감정을 전제로 도구를 사용하고 재화를 획득하고 동시에 절대자, 즉 신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인격적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가진 한 인격체가 사고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서로 상합과 조화로움을 이루는 통일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고대 스토아철학의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B.C. 514~565)는 말하기를, “인간은 인간에 있어서 성스러운 존재”(Der Mensch sei dem Menschen heilig!)라고 하였으며, 증산은 『전경』에서 “때는 해원시대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¹⁰²⁾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¹⁰³⁾고 하였으며,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그의 저서 『근대 자연법 사상』¹⁰⁴⁾에서, 인간이 시민 사회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연 상태대로 생존하였다고 주장하고, 아메리칸 인디언을 전정치적(前政治的) 사회의 한 실례로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권이라고 하는 천부 인권인 「자연권」(自然權, natural rights)을 갖고 있으며, 이 권리 즉 자연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소유한다고 하였다. 이 말들은 인간은 하나같이 성스럽고 천지 만물의 어떤 존재보다 인간만이 불가양(不可讓)의 존엄성을 가졌다는 뜻이라 할 수 있겠다.

인간 가치의 존엄성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는 첫째,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그 생명을 보존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생존권이라고 말한다. 둘째, 모든 인간은 자신을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행복추구권이라고 말한다. 셋째, 모든 인간은 생명의 유한성과 성취 여부의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자유권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존권, 행복추구권, 자유권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

102)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법: 2-20.”, p. 237

103)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법: 2-56.”, p. 244

104) John Locke, *Essays on of Nature*, Oxford 1958; Strauss, Leo, *Natural Right and History*, Chicago, 1953

을 전제로 하여 인간은 각자의 개인을 인격적 주체로 대우하며, 인간은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도덕적 주체이며, 인간은 유혹과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의연히 일어나는 용기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우위에 인간을 두어야 하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인간은 그 주체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간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대순 사상에서 중요시하는 인간 존엄성의 사상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신념이기도 하다.

대순사상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느 한 부분에 국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대순사상은 인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의인관적, 종족중심적, 종교적인 것을 다 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모든 것 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대순이란 우주의 원리는 도수(度數)이며, 도수는 삼계를 순환하는데, 신명과 인간도 우주의 도수에 따라 순환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이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은 역사의 발전 과정을 천존시대, 지존시대, 인존시대로 전개된다고 하고 있는데, 증산은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리라” 하였다. 또 인존시대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역사를 주도하고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시대이며, 선천시대에는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고 각종 차별과 학대를 받았으나, 후천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시대라 하였다. 증산의 “천지(天地)가 일월(日月)이 없으면 빈 껍데기고, 일월(日月)이 사람을 알지 못하면 빈 그림자이니라” (天地無日月空殼 日月無知人虛影)¹⁰⁵⁾는 말이나, “하여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 그러므로 천지가 사람을 낳고 사람을 쓰니라”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用人)¹⁰⁶⁾고 한 말 등은 하나같이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의 존엄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천지일월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인간의 창조에 있으며, 인

105)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앞의 책, “예시: 21.”, p. 316

106) 같은 책, “교법: 3-47.”, p. 260

간이 존재함으로써 천지일월도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없으면 천지도 일월도 신도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인간의 본질은 곧 마음이라는 것이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집약점이며 인간의 종교적 뿌리를 이루고 있다. 마음 속으로부터 가진 모든 생각, 정서, 욕구 등이 발출하며 마음 속에서 인간은 신(神)과 심오한 관계성을 실현한다. 대순사상의 “하늘의 솜과 땅의 솜과 사람의 솜이 모두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이란 귀신의 비밀한 기틀(樞機)이요 대문(門戶)이요 길(道路)이다. 기틀을 열고 닫으며 대문을 들락날락하며 길을 오고 가는 것은 신(神)이다. 혹은 선한 것도 있고 혹은 악한 것도 있다. 선한 것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쳐쓰게 되니 내 마음의 기틀과 대문과 길은 천지보다 더 크니라”¹⁰⁷⁾는 말이나,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¹⁰⁸⁾는 말이나, “그대의 언행이 아직 덜 풀려 독기가 있느니라...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¹⁰⁹⁾는 말이나,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 고 한 말 등은 「인간의 본질은 바로 마음」¹¹⁰⁾ 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 만사가 모두 마음 속에 있으니 마음을 지켜서 깨끗이 하고 또 올바르게 가지면 자기가 편안해지고 이웃이 평안해지고 사회와 나라가 화평해져서 드디어 후천 선경을 이

107) “天用地用人用統在於心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 往來道路也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 같은 책, “행록: 3-44.”, p. 48

108) 같은 책, “교법: 1-2.”, p. 221

109) 같은 책, “교법: 1-23.”, p. 225

110)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대순사상논총」-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p. 5.: 립영창·배용덕, 앞의 책, p. 107

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인간이 신보다 어느 면에서는 우위에 있으며 인간과 신은 서로 순환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도 신이 될 수 있고 신도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산 자신이 구천상제로서 신(神)이었지만 재겁에 빠진 인류와 신명을 구제하고 후천 선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신(人身)으로 화현(化現)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즉 증산이 신의 위치에서 인간으로 화현하였다는 것은 인간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며 영장으로서 신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더욱이 삼계 대권을 주재하는 권능의 실현성 여부도 증산이 신의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신보다 오히려 인간이 우위에 있음을 말한다 하겠다.

이와 같이 대순사상은 인간을 모든 것의 우위에 두고, 인간을 목적으로서 대접하며,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해서는 안된다는 사상이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외재화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인간은 집단적인 공동의 활동으로 자기 자신을 외재화시키면서 인간 세계를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세계는 사회 구조를 포함해서 객체적 실재의 지위를 갖게 된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이 인간 세계에 깔려 있어야 되며, 모든 일에 조심하며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에 참여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순결한 마음은 음과 양이, 신과 인간이 조화롭게 교감하고 합덕할 때 이루어진다고 대순사상은 말하고, 또 사람이 없으면 하늘과 땅도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즉 조화란 인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며 대순사상이 말하는 조화의 의미가 보편적인 진리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3) 신인조화의 의의

대순사상에서의 신과 인간은 산술적으로나 질적으로 동등함을 전제로 한다. 신은 사람이 없는 다음에는 의탁할 바가 없고, 사람은 신 앞에서 없으면 이끌어 의지할 바가 없다고 한다. 또 신과 사람이 화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인이 화합해야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신인조화 사상은

전체와 개체를 같이 존중한다. 그리고 양자의 조화와 합일의 상대를 이상으로 한다. 부분과 부분의 조화, 전체와 개체의 조화는 피차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성실성, 겸양과 극기적(克己的) 자기 제한(制限)이 있음으로써 성립할 수가 있다. 이러한 조화와 일치하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확고한 자아 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아는 존재의 삶을 유지하는 힘이며, 신성은 그 존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다. 우리의 삶이나 혹은 우리 사회 속에 내재된 엄청난 변화의 힘은 바로 우리 각 개인의 마음 속에 올바른 정신이 자리할 때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기업가와 근로자, 또 정치인과 국민, 국가와 국민 전체와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다운 정치는 올바름 자체' 라고 하였고,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올바름이다' (政者正也)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정치다운 정치는 '정치답다'는 말이지요, '올바름 자체' 는 '정도' (正道)를 뜻한다. 공자나 플라톤 모두 정치인의 '정도' 가 바로 '정치' 자체요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정치인이 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정치가 아닐 것이다.

대순사상의 신인조화 사상은 한국 전통 사상인 중도·중화 사상과 함께 이의 해답을 제시한다. 먼저 사람이 사는 도리는 어떠한가. 삶에 순응하는 것이 살아가는 도리, 곧 인간의 도리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며, 가정을 다스리고 이웃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도(道), 가정의 일들을 이루는 도(道)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동양의 사상서가 「중용(中庸)」이다. 「중용」은 동양사상의 핵심이 되는 사상서로 주역을 제외하고는 으뜸으로 치는 책이다. 그래서 「중용」은 때로는 소주역(小周易)이라고 불릴 정도이며 모든 책 중에도 핵심적으로 치는 철학 및 사상서이다. 그 「중용」의 첫머리는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요,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풀이하면, 하늘은 모든 물체에 나름대로의 성품을 부여했으니 이것이 성(性)인 것이요, 이러한 성품을 따르는 것이 도(道)인 것이다. 사람에게에는 사람의 성품이 있으니 이러한 성품을 좇아서 행동하는 것이 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사상인 중도사상은 통합과 조화의 사상이며 교화와 설득, 그리고 화합의 사상이다. 우리의 전통

중화사상에서는 전체와 개체를 공히 존중한다. 이제·혼미와 혼돈은 이러한 중화사상의 커다란 틀 속에서 만법,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인조화 사상이 담고 있는 조화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이며,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불가에서는 귀일(歸一)이라 하며, 도가에서는 득일(得一)이라 한다. 성인의 도는 이와 같아서 변화무쌍함으로부터 하나의 본체로 복귀하는 것이다.

신과 인간의 조화와 합일에 대해서 여러 어록을 남긴 증산은 인간 구원 사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천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 111)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 112)

이 말은 증산이 당시의 민중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평등을 지양하고, 이상적인 인류 사회, 즉 후천 선경을 건설하기 위해 천지공사를 행하는 가운데서 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증산이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고, 천한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핍박당하고 있는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며, 죽어서도 잘 되게 하여 조선 명부가 되겠끔 해 주겠다는 처절한 인류 구원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순사상의 신은 인간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도 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인 감응’ (神人感應) 및 ‘신인 조화’ (神人調化) 사상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미친 자연 재해는 인간이 신에게 준 영향으로 빚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인간 행위의 잘못에 대한 신의 경고라는 것이다. 증산

111) 같은 책, “교법: 1-2.”, p. 221

112) 같은 책, “예시: 17.”, pp. 314~315

은 「음양경」(陰陽經)에서 말하기를, “신은 사람이 없는 다음에는 의탁할 바가 없고, 사람은 신 앞에서 없으면 이끌어 의지할 바가 없다. 신과 사람이 화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인(神人)이 화합해야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 신은 사람을 기다려 밝아지고, 사람도 신을 기다려 밝아진다. 음양이 서로 화합하고 신인이 서로 통한 다음에야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¹¹³⁾고 하였다. 이 말은 하늘과 땅, 그리고 신과 인간은 모두 음양의 성질을 부여받으며, 음과 양 즉 신과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합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증산은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여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 묵은 기운이 채워 있는 곳에 큰 운수를 감당키 어려운 까닭이니라. 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곡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 차 있나니라.”¹¹⁴⁾

“지금은 신명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지은 자는 정신을 잃어리라.”¹¹⁵⁾

“만고 역신을 해원하여 모두 성수(星宿)로 붙여 보내리라. 만물이 다 시비가 있되 오직 성수는 시비가 없음이라. 원래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이므로 원한이 천지에 가득하였거늘 세상 사람은 도리어 그 일을 밍게 보아 흉악의 머리를 삼아 옥설로 역적놈이라 명칭을 붙였나니 모든 역신은 이것을 크게 싫어하므로 만물 중에 시비가 없는 성수로 보낼 수밖에 없나니라.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는 시비와 상극이 없나니라.”¹¹⁶⁾

113) 같은 책, “교운: 2-2.”, pp. 206~207

114) 같은 책, “교법: 3-4.”, pp. 245~246

115) 같은 책, “교법: 3-5.”, p. 246

116) 같은 책, “교법: 3-6.”, p. 246

위 인용문은 인간이 신의 의지(天志)를 거스리게 되면 신의 노여움을 사고 온갖 재난이 그로 인해 뒤따른다고 증산은 인간에게 깊은 우려를 표현함과 동시에 또한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증산은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신명들이 죄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지은 자는 정신을 잃어리라...” 는 등의 말로서,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의무를 올바르게 다하고 자연에 순응해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신은 반드시 인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징벌로 보상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은 대순사상이 바로 ‘도덕적’ 의미의 신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겠다.

증산은 『전경』 <제생편>에서 “사람은 양이 되고 신은 음이 되니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이 있다”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有變化之道也)라고 했다. 이 말은 후천 선경을 이루려면 신과 인간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변화의 길이 열리고 또한 가능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후천 선경은 신인조화로부터 비롯된다. 우주가 생겨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성 발전 과정을 거쳐 진멸에 이르기까지의 원인이 신인(神人)의 부조화 불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후천 선경은 이 신인의 부조화와 불균형을 극복한 ‘신인조화(神人調化)’ 에 의해 신과 인간이 서로 조화로움을 이룰 때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대순사상의 특징은 한 마디로 후천 선경의 건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고래로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은 물론 단군의 흥익인간 사상과도 그대로 일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신인조화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대순사상에서의 대순이란 영원과 순환을 의미한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는 것이며, 순환이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의미이다. 대순이란 우주의 원리는 도수(度數)이며, 도수는 삼계(三界)를 순환하는데, 신명(神明)과 인간도 우주의 도수에 따라 순환하는 것으로 본다. 증산의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主宰)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이라” 117)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증산

은 그의 주재적 권능과 절대성을 가진 구천상제의 위치에서 고해에 빠진 중생을 구하고 후천 선경을 건설하기 위해 인간으로 탄강했으며 이 사실이 신과 인간의 순환작용을 말하는 한 예가 된다 하겠다.

2. 신인조화와 민주주의의 관계

(1) 인간생활과 신인조화

다윈(C. R. Darwin, 1809~1882)은 1859년에 「자연 도태에 의한 종의 기원」(On the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¹¹⁸⁾을 발표한 이래 동물학, 식물학 및 인류학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는 생물의 모습의 진화를 풍부한 자료로 입증할 수 있었으며, 진화를 자연도태의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유전적 소질(遺傳的 素質; Erbguts)의 우연한 돌연변이(突然變異)가 발생한다든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도태(淘汰)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는 살아갈 수 있는 형(形)들은 보존되고 번식하고 더욱 발전하지만, 살아가기 어려운 형들은 사멸하거나 멸절(滅絶)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육체라는 자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적인 기능작용과 활동을 하며,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본능을 갖고 욕구 충족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또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체가 노화하고, 언젠가 죽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예를 들면 직립보행(直立步行)의 자세, 노동에 사용하는 손, 명확한 언어의 발음, 매우 발달한 중추신경계통 등), 인간과 동물은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른 동물에 비해 고등 동물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문화적 존재가 되었을 뿐이며,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진화론은 단순히 생물학의 하나의 가설적 이론에 그치지 아니 하고 인간의 정신까지도 물질 현상의 연장으로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띠

117) 같은 책, “권지: 1-21.”, p. 271

118) Charls Robert Darwin,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ans of Natural Selection(1859): 이민재 옮김, 종의 기원(서울: 을유문화사, 1995) 참조

게 하였다.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물론 소시민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그의 진화론을 받아들여 그들의 인생관이나 세계관 수립에 응용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미국의 웨스턴(Weston La Barre) 같은 학자는 “결국 인간의 정신(soul)이란 열(熱)을 내는 신진대사와 따뜻한 혈액, 폐(肺)의 호흡작용, 유달리 큰 두뇌와 탐구심, 창조력을 가진 손, …” 등에 지나지 않는다고까지 할 정도였다.¹¹⁹⁾

그러나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생각을 한 다음에 비로소 행동으로 옮긴다. 본능적으로 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는 이같은 특징은 인간의 생활이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이성적이고 사회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심리적·사회적 욕구(예를 들면 소속의 욕구, 승인 또는 인정의 욕구, 성취감의 욕구, 안정의 욕구, 공격의 욕구 등)는 때로 생리적인 욕구보다 더 결정적일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들은 이성(理性)이라고 불러 왔다.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사람과 일반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하겠다.

소크라테스(Socrates: 469~399 B.C.)는 일찍이 인간을 가리켜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였다. 그 후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이성 속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일종의 동물이라는 사실과 또한 사유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은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즉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요소가 조화로움을 이루며 상생 합덕적(相生合德的)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하며, 그러한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있겠다.

인간은 본래부터 ‘창조적 존재’이다. 인간은 자연과 문화를 통합한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삶의 주체로서 자기를 완성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생활환경으로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조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이상적 삶을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회의 이상은 모든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¹²⁰⁾ 창조적이

119) Weston La Barre, *The Human Animal*, Chicago, 1954, p. 295

며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만으로는 도저히 만족을 할 수 없다. 모든 개인은 '삶에 있어서의 보람' 을 찾아야 하고, 사회는 사회대로 모든 구성원에게 '삶에 있어서의 보람' 을 안겨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인간이 사람답게 살면 온 인류가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된다' 라고 한 괴테의 말처럼 '나와 남을 더불어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인간다운 인간이며,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동물과 달리 아주 불완전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인간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만남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자기를 완성해 간다. 인간의 '세계 개방성' ¹²¹⁾을 말하는 막스 셸러(Max Scheler: 1874~1928)나, '보호기능이론' ¹²²⁾을 전개한 아놀드 게엘렌(Arnold Gehler: 1904~1976)은 다같이 인간이 미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보완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한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은 언어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어 사용하고, 상징도 만들고 문화도 창조하는 것이며,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창조적인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증산은 『전경』에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 기운이 막힌다” ¹²³⁾고 했다.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는 구성원 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지극히 중요하며 그것이 조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증산은 또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 ¹²⁴⁾고 말하였다. 이 말은 인간과 신의 조화로운 생활, 인간생활과 신인조화의 필연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서로가 극도의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서로가 우호적으로 도와 주고 도움을 받는 상호 협조적 인간 사회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20) 대학윤리교재편찬회 편, 인간과 윤리(서울: 지구문화사, 1997), p. 34

121) Max Scheler,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in Max Schelers Ges. Werke, Bd. 7, 6. durchgesehene Aufl. Bern 1973, S. 43

122) Arnold Gehlen, *Der Mensch, Seine Natur und Seine Stellung in der Welt*, Berlin, 1941, S. 2f.; 진교훈 옮김, 철학적 인간학(서울: 종로서적, 1995), pp. 50

123)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공사: 3-29.”, p. 144

124) 같은 책, “교법: 2-44.”, p. 242

증산은 『전경』에서 말하기를,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 물샷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¹²⁵⁾ 하였다. 이 말들은 신과 우주 및 인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신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또 다스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신이 그의 우주적 섭리를 펴므로써 제2차적인 원인들, 즉 자연법칙이라든가 인간의 지식과 신앙 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증산은 또 말하기를,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어야 하느니라”¹²⁶⁾고 하였다. 이 말은 인간의 자유와 역사의 목적성은 신의 섭리를 전제로 함으로써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또는 목적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참된 피조물의 자유는 신의 활동 안에 지위를 가지되 신의 대권(大權)들과 경쟁하지 않고 신의 섭리에 따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은 하나의 영원한 지식의 행위로서 인간 자신의 존재를 그 깊이까지 알고 있는 존재이며, 인간은 신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신의 존재 안에서 가능하며, 신의 존재 안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의 사실은 그 사실을 살펴본 다음에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은 인간이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먼저 알거나 또는 해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신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생활과 신인조화는 인간의 생활 곳곳에는 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인간은 신과의 조화를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상은 대순진리에서 말하는 신관과 신인조화를 통해 보다 실천적인 논리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은 인간이 신보다 우위에 있으며 인간과 신은 서로 순환한다는 데 있다. 즉 인간도 신이 될 수 있고 신도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계 대권을 주재하는 권능의 실현성 여부도 증산이 신의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신보다 오히려 인

125) 같은 책, “교법: 3-4.”, p. 245

126) 같은 책, “교법: 1-62.”, p. 232

간이 어느 면에서는 우위에 있음을 말한다 하겠다. 이와 같이 대순 사상은 인간을 모든 것의 우위에 두고, 인간을 목적으로서 대접하며,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해서는 안된다는 사상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순결한 마음은 음과 양 곧 신과 인간이 조화롭게 교감하고 합덕함으로써 그 빛을 발하게 되며 신인조화를 통해 완성된다.

대순사상의 신은 인간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도 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인 감응' (神人感應) 및 '신인 조화' (神人調化) 사상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미친 자연 재해는 인간이 신에게 준 영향으로 빚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인간 행위의 잘못에 대한 신의 경고라는 것이다. 증산은 「음양경」(陰陽經)에서 말하기를, “신은 사람이 없는 다음에는 의탁할 바가 없고, 사람은 신 앞에서 없으면 이끌어 의지할 바가 없다. 신과 사람이 화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인(神人)이 화합해야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 신은 사람을 기다려 밝아지고, 사람도 신을 기다려 밝아진다. 음양이 서로 화합하고 신인이 서로 통한 다음에야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 고 하였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세기말의 혼돈에 빠진 사회를 정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힘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아 근원의 힘을 발휘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민주정치와 신인조화의 상관성

신인조화 사상은 하늘과 사람, 인간과 자연의 상보 조화(相補調和), 보이지 않는 것(陰)과 보이는 것(陽), 통일(陽)과 분화(陰), 전체(陽)와 개체(陰), 인(仁·陽)과 의(義·陰)의 상보 조화, 국민간·국가간의 화합, 지도층과 국민간의 합심 협력, 그리고 세계 평화의 사상 등의 조화와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인조화 사상은 바로 중도사상(中道思想)이며, 중화사상(中和思想)과 맥을 같이 한다 하겠다.

전통 동양사상에서의 중도사상은 역사의 흐름을 따르는 자연스러운 귀결인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옛날에는 인구가 적은데다가 물자가 많았으므로 생존경쟁이 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친애할 수 있어 이익

을 가벼이 여기고 사양하기도 쉬웠다. 그러므로 요(堯)·순(舜)·우(禹)가 천하를 선양한 것과 같은 일이 가능했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지고 물자가 적어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생존경쟁이 극심해졌으므로, 사람들은 자연히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이상 태고의 도덕 정치를 가지고 현재의 정치 도리를 삼을 수는 없으므로 서로의 양보를 통해 중도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되었다. 나 보다는 상대를, 나아가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공익 우선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되게 된 셈이다.

또한 이런 신인조화 사상은 성·경·신·충·효·예(誠敬信忠孝禮)의 사상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것은 현실적으로 선공후사(先公後私), 공익우선(公益優先), 희생·봉사정신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왜냐 하면 신인조화나 중도·중화는 각자의 자기 제한, 자기 겸양, 자기 부정을 통해서 또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이 교화와 화합을 더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사상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뒤 숭한 역경을 겪으며 민주주의의 토착화 실험을 해온 한국의 정치도 신인조화의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치 경제적 혼돈 상태는 개인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변혁을 가져올 것이며 신과의 합일과 조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구원사상으로서의 신인조화 사상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 권력자들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경제인들에게는 활력과 마땅한 역할을 지우며, 국민 모두에게 성실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인조화 사상이 담고 있는 조화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이며,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불가에서는 귀일(歸一)이라 하며, 도가에서는 득일(得一)이라 한다. 성인의 도는 이와 같아서 변화무쌍함으로부터 하나의 본체로 복귀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권과 야권,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마음 속의 신성을 깨우침으로써 근원의 자리를 찾아야 하며, 드넓은 신인조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상이 지향하는 바의 요체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신인조화와 민주주의 사상, 신인조화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알

아보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및 기본 이념에 관해서는 이미 필자가 『대순 사상논총: 제2집』(1997)에서 「천지공사와 민주주의」와 「구원진리로서의 음양합덕과 민주주의」¹²⁷⁾라는 글을 통해 상세히 논구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개략적인 것만을 살펴 민주주의가 「신인조화」 사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분석해 보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작된 사상이다. 민주주의의 중요 사상인 자유와 평등도, 그리고 그 사상을 달성시키기 위한 민주적 정치 제도나 법률, 자유주의 경제나 시장 경제 체제도 다같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더욱 신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남과 동시에 그 생명을 보존하려는 욕구와 자신을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무한히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자유권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상이며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은 모든 사람의 인격적 존엄을 인정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키는 일이다. 증산은 인존시대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역사를 주도하고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시대임을 밝히고, 선천시대에는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고 각종 차별과 학대를 받았으나, 후천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대순의 사상은 곧 인간 존엄성의 사상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을 모든 것의 우위에 두고, 인간을 목적으로서 대접하며,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신념이기도 하다. 인간을 목적시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은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인간 각자가 가지는 개성을 존중하여, 각자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있는 생활과 행동을 할 수 있

127) 민주주의의 개념과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과 사회정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楊茂木, “구원진리로서의 음양합덕과 민주주의,” “천지공사와 민주주의,” 「대순사상논총」-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출판부, 1997) 참조

는 기회와 여건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신인조화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정치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 국민 의사를 통합하는 민주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신인조화를 바탕으로 한 정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과 인간의 합일, 조화의 개념을 대순 사상의 하나인 신인조화 사상을 빌려 한국의 정치에 적용하는 일은 아직은 시론에 불과하지만 신인조화 사상은 보다 큰 통합과 조화를 창조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들은 다가올 새시대를 국가의 개념이 좁어지고 전세계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하나로 통하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로 규정지으려 한다. 국경이 큰 의미가 없이 열리며 모두가 세계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하고든지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는 협동과 조화의 미덕이 무엇보다도 강조된다. 그러한 협동과 조화는 신인조화라는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경로를 밟아야만 한다. 인간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신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였으며, 인간은 그런 신을 믿음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증산은 『전경』을 통해 신과 우주 및 인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밝히고, 신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또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참된 피조물의 자유는 신의 활동 안에 지위를 가지되 신의 대권(大權)들과 경쟁하지 않고 신의 섭리에 따를 뿐이라는 것을 밝혀 신의 존재 안에서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간의 존재를 역설했다. 증산이 『전경』에서 “지금은 신명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닥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성을 떠난 신의 존재는 존재치 않으며 신과 인간, 나아가 인간생활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은 대순 사상인 신인조화 사상을 통해 통합과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고, 민주정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혼미와 혼돈은 신인조화 사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만법,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근원

의 자리로 돌아감으로써 해소될 것이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이 나라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여권과 야권, 모든 경제인과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마음 속의 신성을 깨우침으로써 근원의 자리를 찾아감으로써 드넓은 신인조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 구원사상으로서의 신인조화는 한국 민주 정치 발전의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하겠다.

V. 도통진경과 민주주의의 이상

1. 도통진경 사상의 의의

(1) 도통의 의미

한국의 민족 종교가들은 오래 전부터 인류가 당면할 자연파괴와 심성파괴의 문제를 궁극적인 해결 과제로 인식하여 종교를 통한 구원의 사상을 펼친 바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증산으로서, 증산은 일찍이 앞으로의 세계가 후천 개벽의 시대임을 말하고 있다. 후천 개벽 시대(도수)의 특징은 첫째, 인과가 빠른 시대라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길흉화복이 인과의 이치로 주고받는다 하여 영산회상의 자리에서 제자인 아난의 물음에 답하는 가운데 삼세인연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원인(因)에 따라 결과(果)가 이루어지기에 선한 행위에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에 불행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대순 사상에서는 이러한 인과를 두고 과거 선천 시대에는 금생에 지어 내생에나 받았으나, 후천 시대에는 금생에 지은 것은 금생에 받고 내생에 미룰 것이 거의 없다고 한다. 증산은 일찍이 서로 불행하게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며, 이미 지은 척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원해야 한다고 했다. 더 불어 살아야 하는 시대이기에 서로 맺힌 한을 푸는 해원을 거쳐야 상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대순진리의 종지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네 가지이며, 이는 모두 후천세상을 주도하는 이념으로 표방된다. 대립된 두 가지 요소의 조화를 통해 완성을 이루는 음양합덕을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해원상생이 이루어지고, 신인조화를 거쳐

마침내 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낙원 세계인 도통진경을 이룰 수 있다. 도통진경은 풍요와 화합의 세계이다. 도를 바로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이 '도통'의 경지이며, 그 결과로 우리들이 만나고 이르게 되는 곳이 '진경'임을 대순 진리의 「전경」에서는 여러 증거를 들어 밝히고 있다.

그러면 도(道)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통 동양사상에서 보면 도라는 것은 어디에나 존재하나 함부로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도라고 이름짓는 것마저도 도가 아닌 절대의 세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항상 존재하는 하나의 변화 유행(流行)하는 작용으로서 우주를 이루고 만물을 낳고 하여 어디에 있지 않은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천지가 변화함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만물을 이루는 데 어떠한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¹²⁸⁾는 것이다.

「도」에 대해 공자는,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한다.”¹²⁹⁾ 맹자는, “도는 하나일 뿐이다.”¹³⁰⁾ 노자는, “성인은 하나의 도만을 굳게 지켜서 천하의 모범이 된다.”¹³¹⁾ 장자는, “서로 해괴망측하게 상대되어 있으나 도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로 통한다”¹³²⁾고 말하였다. 또 불교에서는 사성제를 통해 도의 세계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독교에서는 천국 사상과 구원 사상으로 도의 세계를 암시하고 있다. 도통의 의미는 도에 관한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것에 다다른 과정을 논구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공자는 일찍이 말하기를 “아침에 도(道)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좋다”¹³³⁾고 했다. 이 말은 공자 자신의 소원이었다고 하겠지만 제자들에게 권한 간곡한 구도의 충고라고 할 수 있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정신의 황폐를 경험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도 도의 세계는 인간의 삶과 직결된 절실한 구원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 관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어렵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제자가 스승을 나무라는가 하면, 인간 관계가 오직 물질을

128) 『周易』 <繫辭傳>, “範圍天地之化而不過 曲成萬物而不遺.”

129) 『論語』 <里仁篇>, “吾道一以貫之.”

130) 『孟子』 <滕文公 上>, “夫道, 一而已矣.”

131) 『老子』 제22장, “聖人抱一爲天下式.”

132) 『莊子』 <제물론>, “恢掩僂怪, 道通爲一.”

133) 『論語』 <里仁篇>, “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도의 실종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각 개인은 사리 사욕과 명리 명예를 획득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등 극도의 이기주의가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일수록 진리와 도리를 알아 하루라도 참답게 사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의 전통사상을 집대성한 대순 사상은 역사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정립되었기 때문에 대순을 통한 도의 단계적 고찰은 보다 차원높은 역사 발전의 여러 법칙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대순 사상의 4대 종지 중 하나인 도통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피폐한 현대 생활의 활력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대순 사상에서는 역사를 천존시대, 지존시대, 인존시대로 전개된다고 보고 있다. 대순 사상이란 영원과 순환을 의미한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시작과 끝이 없고, 항구하여 막힘이 없는 세계를 대순은 그리고 있다. 우주의 원리는 도수이며, 도수는 삼계를 순환하는데, 신명과 인간도 우주의 도수에 따라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게 대순의 사상이다. 앞에서 말한 음양합덕과 해원상생, 신인조화도 바로 이 우주의 원리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것은 도통진경의 새로운 세계 건설로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도’는 우주 만물의 변화와 생성의 법칙이다. ‘도’는 음과 양의 두 가지 성질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양의 성질은 시작하는 움직임이며, 음의 성질은 이어받아 계승하는 성질을 가진다. 이 두 음과 양이 교감하고 합덕함으로써 모든 변화가 전개된다는 것이 음양합덕 사상이다. 해원상생은 순음(純陰)과 순양(純陽)의 합덕, 즉 대순 사상에서 말하는 정음(正陰)과 정양(正陽)의 합덕을 이루기 위해 지난 시대의 척을 해소하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단계를 말한다. 신인조화는 신명과 인간의 조화와 화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견원려왈지>에 “사람은 양이 되고 신은 음이 되니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이 있다. 아니면 변화의 방술(方術)은 모두 신명에게 있으니 신명에 감통(感通)한 다음에 그 일이 성사되면 이를 대인대의(大仁大義)라고 한다”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不測變化之術 都在於神明 感通神明然後 事其事則謂之大仁大義也), <음양경>에 “음양이 서로 화합하고 신인(神人)이 서로 통한 다음에야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 (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

成而地道成), 『전경』 <교법>에 “사람들 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¹³⁴⁾고 하였다. 이 말들은 하늘과 땅, 신과 사람은 모두 음양의 성질을 부여받으며, 음과 양이 서로 조화롭게 덕으로서 합해져야 함과 마찬가지로 신과 인간도 서로 화합하고 감응하여야 변화의 방술이 열려 모든 일이 성사됨을 말한다 하겠다. 도통진경은 그러한 변화된 세계를 이념이다.

대순 사상은 음양합덕과 해원상생 사상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준비 단계를 거친다. 신인조화와 도통진경은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음양이 그 덕을 합하면 강유가 생기며, 천리의 발현과 유행의 실제로 생기는 사계절의 운행과 만물의 생장도 원활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땅을 본받고, 땅이 하늘을 본받고, 하늘이 도를 본받고, 도가 자연을 본받는다면 선천세계의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발생한 분열과 혼란, 대립과 갈등, 불안과 저항 등도 사라지고, 인간세계는 질서와 안정, 설득과 이해, 관용과 토론, 승복과 합의 등으로 이루어져 이상적인 인류 사회, 즉 후천시대의 선경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대순 사상에서 말하는 4대 종지의 기본 이념이다.

도통은 그같은 음양합덕과 신인조화를 아울러 해원상생을 거침으로써 새롭게 다다를 수 있는 이상 세계를 뒷받침하는 사상 체계이다. 그래서 증산은 도통에 대해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¹³⁵⁾ 하였다. 증산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혁하고 후천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겠노라고 말한 바가 있었지만 대순진리의 4대 종지는 바로 이같은 염원을 구체화하는 방법론이며 도통은 그 다음의 진경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 뒷받침의 개념을 갖는다 할 수 있다.

이같은 도통의 세계는 우리 동양적 사상 체계에서는 오랜 시원을 갖고 있

134)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법: 1-54.”, p. 231

135) 같은 책, “교운: 1-41.”, p. 172

다. 중국의 사상가인 노자(老子)가 지은 『도덕경(道德經)』은 ‘도’에 근거한 것인데 장자의 사상 또한 노자의 도를 기초로 한 것이다. 노자가 말한 도란 우주 본체와 우주 내의 모든 사물의 형성원리의 혼합체다.¹³⁶⁾ 그러므로 도는 형상이 없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도덕경』의 사상은 한 마디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장자의 사상 역시 노자를 계승한 것이다. 무위는 “도는 언제나 무위이지만 하지 않는 일이 없다(道常無爲而無不爲)”의 무위이고, 자연은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天法道道法自然)”의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도덕경』의 사상은 모든 거짓됨과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사상이다. 좋다/나쁘다, 크다/작다 등의 판단들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비교하여 만들어낸 상대적 개념이며, 이런 개념들로써는 도(道)를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들의 집합체이므로 『도덕경』에서는 언어에 대한 부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유가사상과 현격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유가사상에서는 인위적 설정이 강조되는 예학(禮學)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언어에 의한 규정이 강력하게 요청되기 때문이다. 반면, 『도덕경』에서는 규정성의 파기와 언어에 대한 부정을 강조한다. 유가사상이 중국 북방의 황하유역에서 형성된 것인 반면, 이런 무위자연의 사상은 중국 남방의 양쯔강 유역에서 형성되었다는 기질적인 차이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북방은 생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투쟁적이어야 하였지만, 남방은 날씨가 온화하고 자연조건이 순조로워 평화적이고 낭만적이었는데 이런 분위기의 차이가 사상 형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유가사상이 인(仁)·의(義)·예(禮)·지(智)의 덕목을 설정하여 예교(禮敎)를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상쟁대립이 전제된 반면, 『도덕경』의 사상은 상쟁의 대립이 인위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보고, 무(無)와 자연의 불상쟁(不相爭) 논리를 펴나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도덕경』의 사상은 학문적인 진리탐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위/진, 남북조 시대처럼 사회가 혼란과 역경에 빠져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

136) 韋日春, “莊子の 无无思想,” 都瑠淳 편, 道家思想과 道教(서울: 범우사, 1996), p. 225

혜를 밝혀주는 수양서로서도 받아들여졌으며, 민간신앙과 융합되면서 피지배계급에게 호소력을 지닌 사상 및 세계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편 장자는 <제물론(齊物論)>에서 순수한 자아의 편벽하지 않음을 말하면서 자기의 주관적 관념으로 구성된 마음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스승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관적인 관념에 따른 편견이 없다면 시비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장자의 말은 인식의 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인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사물에 대한 시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소요유(逍遙遊)>의 또다른 인용을 보면 그같은 장자의 생각이 좀더 명확해진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위나라 왕이 내게 큰 박씨를 주길래 이를 심었더니 나무의 열매가 다섯 석(한 말의 열 갑절)이나 될 정도로 크더군요. 물을 담는 그릇으로 쓰면 너무 무거워 쉽게 옮길 수 없고 쪼개고 바가지로 쓸 경우 납작해 아무 것도 담을 수 없었습니다. 크기만 컸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부수어 버렸지요.”¹³⁷⁾

이에 장자가 말했다.

“그대는 참으로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군요. 송나라 사람 가운데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약을 손에 바르고 빨래하는 일을 대대로 하고 있었지요. 어느 길손이 이 소문을 듣고 그 약 만드는 비방을 많은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족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우리가 대대로 빨래하는 일을 해왔으나 돈벌이가 변변치 못했다. 그러나 지금 이 기술을 팔면 하루 아침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이 기술을 팔기로 하자’ 그래서 나그네는 비법을 얻게 되었지요. 그는 오나라 왕에게 약의 효능을 설명했는데, 마침 월나라가 오나라를 침략하자 오나라 왕은 그를 장수로 삼았습니다. 마침 겨울에 수전(水戰)을 하게 돼 약이 귀하게 쓰였고, 월나라를 크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오나라 왕은 그에게 땅을 주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손 안 트게 하는 약 하나로 어떤 사람은 벼슬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빨래하는 일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동일한 약이지만 쓰는 용도가 달랐던 겁니다. 지금 그대에게 다섯 석이나 되는 박이 있는데 어째서 그것으로 큰 배를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울 생각은 않고 납작해 아무 것도 담을 수 없다고 걱정합니까? 그대는 참으로 꼭 막힌 사람이로군요.”¹³⁸⁾

137) “魏王胎我大瓠之種，我樹之，成而實五石，以盛水漿，其堅不能自舉也，剖之以爲瓢，則瓠落無所容，非不喭然大也，吾爲其無用而培之。”

예컨대 물이 많이 고이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는 법이다. 한잔의 물을 움푹 패인 곳에 부으면 겨자씨를 배로 삼을 수는 있으나, 잔을 그곳에 띄우면 곧바로 바닥에 닿아 버린다. 물은 얇고 배는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혜의 그릇이 크고 넘쳐야만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장자의 <제물론>은 '세상의 모든 것을 고르게 하는 이론'이라는 뜻이다. 장자 철학의 근본이라고 할 유일 절대(唯一絕對)의 '도'의 입장에서 현실 세계의 갖가지 현상, 그 중에서도 시비(是非) 선악(善惡) 미추(美醜) 정사(正邪) 화복(禍福) 길흉(吉凶) 각몽(覺夢) 생사(生死) 등을 명확히 구분하려 하는 상대적 가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가를 뚜렷이 밝히고, 하늘 높이 날아 오르는 대봉(大鵬), 즉 절대자(자유인)의 조건은 만물이 하나임을 깨닫고 궁극적인 '하나'의 세계로 돌아가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장자는 그러한 절대자의 생활을 성립시키는 논리, 인간이 어떻게 절대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 근거를 또한 밝히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제물론> 한 편은 『장자』 33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난해한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장자』 <재유(在有)>편에서는 “천에 밝지 못하면 덕에 전할 수 없고, 도에 통하지 못하면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다… 천도가 있고 인도가 있다. 무위하며 존귀한 것은 천도이고, 유위하며 누가 됨은 인도이다. 주인과 같은 것은 천도요, 신하와 같은 것은 인도이다. 천도와 인도는 차이가 매우 커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고 한 말이 있다. 천지인을 동등한 하나로 본 우리의 전통 사상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역시 인간 존중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자가 말하려는 지식에 대한 담론은 일상적 지식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하여 전개되며, 도의 통찰을 통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순수직관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식론을 통해 왜곡되고 막힌 우리의 의식을 정화하여 잘못된 지식 및 개념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비해 대순 사상은 인간의 인식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138) “夫子固拙於用大矣，宋人有善爲不龜手之藥者，世世以泝泝統爲事。客聞之，諸買其方百金。聚族易謀曰：我世世爲泝泝統，不過數金，今一朝而鬻技百金，請與之。客得之，以說吳王。越有難，吳王使之將。冬與越人水戰，大敗越人。裂地而封之。能不龜手一也，或以封，或不免於泝泝統，則所用之異也。今子有五石之瓠，何不慮以爲大樽，而浮乎江湖，而憂其瓠落無所用？則夫子猶有逢之心也夫。”

관념의 세계를 열어준 보편진리라는 데 의의가 있다. 대순 사상은 동양 사상의 정수라 할 인간 존중 사상을 최고로 집대성한 인류 구원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증산은 언젠가 도통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공우가 어느 날 상제를 찾아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性)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¹³⁹⁾

또 그 얼마 뒤에 도통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을 했다.

“어느 날 상제께서 교운을 굳건히 하시고자 도통에 관해 말씀이 계셨도다. 「지난 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하였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 고 하셨도다.”¹⁴⁰⁾

이같은 언급들은 모두 인간 각자가 본분에 따라 스스로 도를 닦아야 하며 이런 힘이 전부 모아져서 도통신들을 모으게 되며 각자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를 통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증산의 생각은 자연과 전 우주 속에서 스승을 구한 동양의 전통 사상과 통하는 바라 하겠다.

도통에 대한 이같은 개념은 동서양의 종교를 통해서도 두루 나타나는 개념이다. 불교에서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말하는데 이는 곧 사성제(四聖諦)이며 고(苦諦), 집(集諦), 멸(滅諦), 도(道諦)라고 말해진다.¹⁴¹⁾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고통, 고통의 근원,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 심오한 진리는 우리가 소위 논리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지식으로서는 얻을 수 없으며,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장엄한 진리이며,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조건 지어진 존재의 법칙을

139)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교운: 1-33.”, 앞의 책, P. 169

140) 같은 책, “교운: 1-40.”, pp. 171~172

141) 李載昌·역정·월포라 라후라 外, 現代社會와 佛敎(서울: 한길사, 1981), pp. 29~31

따른다는 것과 서로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우리 몸에 느껴지는 감각의 유혹과 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들을 버린다는 것, 또는 욕망을 버리고 초연히 삶을 산다는 것, 열반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 깨달음의 세계는 기쁨이 넘쳐 지속되는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를 불교에서는 니르바나(無餘涅槃)¹⁴²⁾라고 한다.

불교는 '나'를 섬기는 종교이다. 내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깨닫는자, 그가 곧 부처이다. 불교는 또다른 '나'인 다른 모든 사람, 곧 중생을 섬기는 종교이기도 하다. 내안에 잠자고 있는 불성을 찾아내는 것이 불교의 수행과정이다. 부처는 사람들이 즐거움만 있다고 생각하는 하늘나라(신의 세계)가 과연 영원한가를 살피고는 하늘나라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했다. 하늘나라의 복이 다하면 결국 다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쾌락을 살펴보니 이 역시 참다운 행복이 아니었다. 그래서 부처는 내세를 위해서, 해탈을 위해서 육체를 괴롭히는 것도 현재의 쾌락에 탐닉하는 것도 바른 길이 아닌 극단의 잘못된 길이라 하고 육체에 끌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욕망을 잘 단속하여 육체를 다스리는 수행의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중도(中道)이다.

중도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면 자주 인용하는 것으로 현악기의 비유가 있다. 부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용맹정진하였다.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몸이 부숴져라 수행을 했는데도 좀처럼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깨닫기는 글렀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갈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부처가 이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물었다. 이유를 듣고 난 부처가 말했다.

“네가 출가 전에는 무슨 일을 하였느냐?”

“악사이었습니다.”

“그럼, 하나 묻겠다. 현악기의 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팽팽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42) 니르바나(Nirvāna): 열반. 불교의 최고 이상. 생사를 초월해서 나고 죽음이 없는 법을 체득한 경지를 말한다.

“현을 너무 팽팽하게 한다면 곧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음이 나오는 상태를 부처는 중도라고 비유하였다. 불교 경전에 보면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고 중간도 좋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중도를 잘 표현해 놓은 말일 것이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소멸하고 해탈 열반을 이룩하면 네 가지의 공덕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항상하고 즐겁고 참 나이며 깨끗함이 그것이다. 이를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고 한다. 이것이 불교 행복의 조건인 셈이다. 고통 극복의 사성제의 정신은 인생을 핍박하는 고통에 대한 그 극복만을 추구한다는 실천적 태도이다.

한편 기독교에서는 영생, 생명,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등의 용어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세계, 곧 도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미래에 속한 것들이다. 생명은 본래 미래에 속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몸과 영혼의 전인적(全人的)인 부활로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영생은 몸과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

동양에서는 인식 체계에 대한 재해석으로 도의 세계를 말한다. 전형적인 형태로는 신선의 세계가 있어 다소 신비화한 느낌도 준다. 언제인가 장주(장자)는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 채 유쾌하게 즐기면서도 자기가 장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문득 깨어나 보니 틀림없는 장주가 아닌가. 도대체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을까? 아니면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일까? 장주와 나비에는 겉보기에 반드시 구별이 있지만 절대적 변화는 아니다. 이러한 변화를 물화(物化; 만물의 변화)라고 한다. 장자는 도라는 개념을 내세워 모든 현실적인 인간 생활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유 해방을 실현하려는 고차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했다. 도의 정신을 체득하고 도와 일체가 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자유를 맛보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도교 등이 통하는 점이다. 교리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양의 전통 사상과 각 종교의 기본 교리는 서로 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증

산은 자연과 전 우주 속에서 스승을 구한 동양의 전통 사상과 통하는 바가 있었다. 동양 사상의 정수라 할 인간 존중 사상을 최고로 집대성한 사상이 증산의 대순 사상이며 대순 사상은 인간의 인식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념의 세계를 열어준 보편진리로서 인류 구원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증산은 도통에 대해서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임을 암시했다. 인간 각자가 본분에 따라 스스로 도를 닦아야 하며 이런 힘이 전부 모아져서 도통신들을 모으게 되며 각자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를 통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도통의 세계에서는 막힘이 없기 때문에 설사 음해하려는 자가 있더라도 도리어 해를 입을 것이라고 증산은 언급했다. 이는 도통의 세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설파한 말이라 할 수 있다.

(2) 진경의 의미

앞에서 도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도통은 곧 도가 통한 이후의 진경 세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는 도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통을 통한 진경 세계의 실현에 있다 하겠다.

진경 세계와 관련된 증산의 우주관은 개혁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선천개혁(先天開闢)이 아니라 후천(後天)개혁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선천개혁 세상인 선천세계는 무(無)에서 유를 창조하여 이를 성장시켜가는 생장(生長)시대라 할 수 있는데, 이미 세계 각지에 팽배한 말세적 현상, 핵무기의 공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선천세계는 음양의 분화(分化)와 다양한 존재의 갈등, 투쟁 대립 등으로 이제 그 종국에 이른 음양 배덕(背德) 음양 분덕(分德)의 세계였다는 것이다. 또한 원한과 복수가 쌓인 척의 시대여서 해원을 통해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상생의 도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해원상생 사상을 통한 신인조화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도통과 진경의 새로운 세계로 귀결된다. 앞으로 전개될 후천시대에는 음양의 배덕과 분덕으로부터 파생된 혼미의 세계를 선경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그것이 지니고 있는 덕(德)을 합해야 하며 해원의 새 세상을 열고 신인의 조화를 통해 인간의 이상향(理想郷)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 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혁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 쓸 지어다.” 143)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 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만들어야 하느니라.” 144)

위 인용문은 천지정위(天地定位)를 말한다. 『주역』 <설괘전>에서 천지(天地), 뇌풍(雷風), 수화(水火), 산택(山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를 천지정위, 산택통기(山澤通氣), 뇌풍상박(雷風相薄), 수화불상사(水火不相射)라 하여 그 상호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상호 관계에 따라 변화가 생기고, 변화로 인하여 만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¹⁴⁵⁾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늘만 높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도 하늘과 똑같이 높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고 할 때 어느 하나만으로는 만물이 생성 발전하지 못하며, 음과 양이 서로 조화하고 합덕이 잘 되어야 우주 만물이 제대로 성장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천지정위’란 천지가 제 위치를 정한다는 뜻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과 곤의 위치가 정하여진다. 낮은 것과 높은 것을 늘어 놓으니 귀하고 천한 것의 위치가 정해진다”(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¹⁴⁶⁾는 말과 관련된다. ‘천지 정위’를 인간의 일에 적용한 것은 가인괘(家人卦)이다. 천지는 건곤이고 건곤은 부모이니, 각기 안팎에 정위(正位)함으로써 가도(家道)가 바르게 되며, 그 결과 천하가 안정된다. 그래서 가인괘 <단사>에서 “남녀의 바른 것이 천지의 큰 뜻”(家人 女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 天地之大義也)이라고 하였다.

‘뇌풍상박’의 상박(相薄)은 불상괘(不相悖) 또는 상여(相與), 상감(相感)

143) 같은 책, “예시: 30.”, p. 319

144) 같은 책, “교법: 1-62.”, p. 232

145) 곽신환, 주역의 이해(서울: 서광사, 1990), pp. 90~93

146) 『周易』, <繫辭傳>

으로 말해지기도 한다. 폭풍은 번개를 동반하고 번개는 폭풍을 수반해야 위엄이 크다. 뇌성 벽력이 없는 폭풍이나 마른 번개는 불길하게 여겨질 만큼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처럼 양자는 서로 잘 어울려서 어긋나지 않는다.¹⁴⁷⁾ 천지가 항구한 까닭은 천과 지가 서로 감응하기 때문이다. 인간사에 비추어 보면 부부의 도로 나타난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남녀, 즉 음양이 서로 감응하고 덕으로 화합할 때 그 부부 관계는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이다. 익괘에서는 “하늘은 베풀고 땅은 낳으니 그 유익함이 끝이 없다”(天施地生 其益无方)고 하고, 유익한 까닭은 “때와 함께 나아가기”(凡益之道 與時偕行) 때문이라고 한다.

‘수화불상사’의 불상사(不相射)는 상체(相逮)로도 표현되며 이는 상제(相濟)의 뜻을 지닌다.¹⁴⁸⁾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相待的) 존재이기도 하다. ‘산택통기’는 산의 우로(雨露)는 물이 되어 산 아래 연못을 채우고, 연못의 물은 수증기가 되어 다시 비와 이슬의 상태로 산에 내려 온갖 초목을 키운다¹⁴⁹⁾는 말을 의미한다. 천지가 감응하여 만물이 화생하고, 지도자가 백성을 감화시켜 천하가 평화를 누린다는 뜻이다. <합괘 상사(象辭)>에 “그 감응하는 것을 보아서 천지 만물의 성질을 알 수 있다”(觀其所感 而天地萬物之情可見矣)고 하였다. <단사(象辭)>에서는 “천지가 감응하면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이 인심을 감화하면 천하가 화평하다”(天地感而萬物化生 聖人感人心而天下和平)고 했다.

결국 증산의 천지가 다같이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만물이 그 이치대로 조화롭게 합덕하면 큰 열매를 얻게 되고, 그 수명이 길어 창성하게 된다는 말과 그 이치가 같다 하겠다.

“상제께서 어느 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147) 『周易』, <說卦傳>

148) 山下靜雄, 周易十翼の成立と展開, p. 137. 射는 厭의 뜻이고, 逮는 及의 뜻이다. 相逮는 적극적 표현이고 不相射는 소극적 표현이다. 이 말들은 <설괘전> 참조

149) 『易』에서 山(艮)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說卦傳>에서 “終萬物始萬物者 莫盛乎艮”이라 했고, 『중용』 26장에서는 “今夫山一卷石之多及其廣大 草木生之禽獸居之寶藏興焉”이라 했으며, <艮卦>에서는 時中을 말하고 있다.

상제께서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 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 「건곤(乾坤)이 있을 따름이오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文王)의 도수와 이윤(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맡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 주셨도다.” 150)

“종도들의 음양도수를 끝내신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5만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어느 날 박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 하시니라.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아뢰기를 「선천에는 청춘 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처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처리하였노라」고 이르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오만년을 가리라」고 말씀하셨도다.” 151)

증산의 천지공사와 관련된 위의 일화들은 천지의 도수는 모두가 일음일양(一陰一陽)으로 구성되어 유행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다 우주 만물의 본성 속에 들어 있으며, 이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증산은 음이 양을 누르거나 양이 음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상태에서의 교감은 진정한 감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참혹한 결과를 초래시킨다 말하고 있다. 선천세계에서는 이같은 참혹한 결과로 인해 척이 쌓일 수밖에 없었으며 증산은 해원을 위한 공사를 벌여 이를 해소시킴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열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천지공사에 의해 음이 양의 주재력에 도전하는 것을 막고 양이 교태(驕泰)하여 수용의 태세가 갖추어지도록 하며 인운(綱)이 완벽히 된 상태에서 우주 만물은 서로 흥(興)하게 되고 각기 상통(相通)하게 되어 함께 평안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산은 천지공사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음정양(正陰正陽)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건곤, 음양이 각자 지니는 바른 덕이

150)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공사: 2-16.”, 앞의 책, pp. 120~121

151) 같은 책, “공사: 2-17.”, p. 121

요, 양이 음을 받드는 태도와 교감의 운동이 정대(正大)해야 된다는 것이다. 해원을 바탕으로 한 정음정양의 합덕이 새로운 세상을 상생시키며 이는 신인조화의 바탕이 된다. 천지의 큰 덕은 생명의 창달이며, 낳고 또 낳아 끊이지 않고 생성 소멸하며, 하늘과 땅의 교감에서 만물의 변화 생성이 일어나며, 만물이 그것에 의하여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교감에는 반드시 그 움직임이 바르고 큼에 있는 것이니 신인의 조화와 화합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천도의 음양은 인도의 인(仁)이며, 일음일양의 도(道)도 따지고 보면 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양합덕의 새로운 세상을 맞는 도통의 세계가 열리고 나면 후천세계의 도수는 수만년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대순 사상의 주류는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신인조화를 통해 도통의 경지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살펴 보았지만, 음양이 그 덕을 합하면 강유가 생기며, 천리의 발현과 유행의 실제로 생기는 사계절의 운행과 만물의 성장도 원활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땅을 본받고, 땅이 하늘을 본받고, 하늘이 도를 본받고, 도가 자연을 본받는다면 선천세계의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발생된 분열과 혼란, 대립과 갈등, 불안과 저항 등도 사라지고 진정한 진경의 세계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인간세계는 질서와 안정, 설득과 이해, 관용과 토론, 승복과 합의 등으로 이루어져 이상적인 인류 사회, 즉 후천시대의 선경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니 이러한 사상이 바로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진경의 세계이다.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어 인류 종말의 위기에까지 빠진 인간을 비롯 모든 삼라만상의 원한을 풀어 생명을 구원하여 “이제 상생의 도로써 천지를 개벽하여 새 세상을 펴리라”고 강조한 증산은 후천개벽의 선경(仙境) 즉 이상천국을 이를 원리가 해원상생에 담겨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선천에서의 착란이 명부신명들의 포한(抱恨)에 따른 착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그 원한을 풀지 않고는 후천의 상생 세계가 건설될 수 없다고 보았다. 증산은 원한을 풀어주는 이같은 공사를 해원공사라고 일컬었으며, 그 해원의 대상자들은 억울하게 원한을 품은 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품은 원한을 풀도록 하여 처음 품은 소원을 충족하는 공사를 보게 된다.

해원을 통해 원이 된 원인을 없애고 소원하던 바를 충족시키면 영원한 척

의 윤회를 끊고 도통을 이루는 의식의 변전을 통해 상극되었던 척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상생(相生)의 화평 상태가 새롭게 열리게 된다. 명부에서의 상극 도수를 뜯어고치면 명부의 착란을 바로잡고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된다. 이같은 상생원리에 의해서 인존 역사는 처결되었고 새로운 신인조화의 세계가 열리며 후천세계의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같은 조화와 상생의 원리는 현대 문명 사상에도 적용된다. 즉 세계의 모든 인종과 족속들이 제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하는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으므로 후천세계에서는 각각의 문명이 척을 짓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상생을 통한 조화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도의 세계와 맞닿게 되며 묵은 척을 풀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의술로서 대순사상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절대 진리라 할 것이다.

동양의 사상이나 우리의 전통 사상을 비롯한 신선사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상향은 자연을 배제하지 않은 천지합일, 신인조화의 세계이다. 진경 세계는 바로 이같은 조화의 세계이며, 여기에서의 천지라 함은 음양의 상서로운 조화를 말한다. 이는 곧 음양합덕을 통한 조화의 경지에 인간의 구원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인위로 자연을 훼손하지 말며, 고의로 생명을 해치지 말며, 이득으로 명예를 손상하지 말라. 자연의 성품을 삼가 지켜서 잃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참됨에 돌아가는 것이라” 고 한 장자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매사에 지극한 마음을 가져 하늘의 도를 따라 행동하고 하느님을 지극히 모시면 자연스러운 음양합덕의 조화 속에서 스스로 도통의 경지에 이르고 자연스럽게 이상향인 진경세계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도통진경의 의미

도통진경은 앞에서 말한 대순의 4대 종지중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음양합덕이나 해원상생, 그리고 신인조화 등은 모두 도통진경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진경세계는 4대 종지의 정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증산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세 세계에서 하늘과 땅의 운도수

(運度數)에 부정과 불응이 생겨서 우주 안에 있는 신명들의 세계와 사람들의 세계에서 제각기 공격해대는 상극(相克)이 벌어졌기 때문에 천지공사를 통해 우주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했다. 이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놀라운 혜안이며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세계관이 아닐 수 없다. 사람마다 도통을 이루고 막힘없이 어울려 사는 이상향의 최상 경지를 도통진경은 말하고 있는 셈이다.

증산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고 말하고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고는 그것을 불살랐다.¹⁵²⁾ 이 공사에는 때로는 주육과 단술이 쓰였고 상제는 여러 종도들과 함께 그것을 먹기도 하였다.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에 싸이면서 서로가 원한을 품게 되어 진멸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니 선천 세계다. 그 원한이 쌓이고 쌓여 신명이나 약자는 그보다 강한 신명이나 강자에게 먹히게 되었으며, 하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천기가 고르지 않게 되어 비가 올 때에 제대로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나와 하는데도 햇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아서 재앙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니, 질병이 따라서 일어나 모든 사물이 병들고 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산이 세상을 구하고 병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덕을 베풀게 되었으니 이것이 천지공사이다.

증산은 극에 달한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쌓인 원을 푸는 공사를 벌였고, 그것은 해원상생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상극에 지배되는 선천 세계에서 원한은 또다른 원한을 낳고, 그 원한이 또 원한을 낳음으로써 인간과 사물은 모두 원한에 얽혀 있었던 것을 해원으로 풀어 원한의 순환 고리를 끊어버린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은 선천세계부터 쌓인 원한의 축적이 현실 세계에 터져나오기 때문에 일어난다. 상극의 세계에서는 신분의 격차, 성차별,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이들의 원한이 천지에 넘치는 세상을 보다못해 증산은 법신으로 나서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이라는 인류구원사상을 제시했고, 천지공사를 통해 이를 풀어 고치고자 하였다. 도통진경은 천지공사 후의 도통의 세계(진경세계)로 나

152) 같은 책, “공사: 1-5.”, p. 99

아가는 지름길을 제시하는 4대 종지 중의 하나가 된다.

인류문화의 이상은 다양한 가운데 통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쌓인 원한은 이같은 조화된 세상을 이루기 어렵게 하고 있다. 변화를 만들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후천선경의 세계이다. 분열과 갈등이 선천세계의 상징이라면 상극으로 맺어진 하늘과 땅, 동과 서,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의 조화와 화해는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신(神)을,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 하늘 높이 모셔 놓고, 거기에 인간은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하관계(上下關係)의 존재로 설정해 놓았다. 불교에서의 신(神)은, 이와 또 다르다.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불교는 존재한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신성(神性)이 있다. 이 신성이란 우리의 내부에 있는 에너지이지만, 우리의 삶을 뒤바꿔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자아에 대한 느낌은 모든 존재가 느끼는 느낌이다. 그것이 존재의 삶을 유지하는 힘이다. 신성은 그 존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다. 따라서 이 신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나아가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로써 대순사상의 특징이 후천 선경의 건설에 있다는 것이 좀더 명확해진다. 신인조화를 통해 도통의 경지에 나아가 맞는 후천 선경 세계는 대순사상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과도 그대로 일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만 년 전부터 인류의 이로움을 위한 삶을 사상적 기반으로 지닌 채 유구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은 대순 사상인 도통진경 사상을 통해 20세기가 당면한 극도의 혼돈 상태를 통합과 조화로 극복해내고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근원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장자는 생명 없는 질서보다 생명 있는 무질서를 더욱 사랑하였으며, 인생과 우주를 일관하는 생명이 약동하는 주체적 자아를 추구했다. 장자는 자기의 세속적 주관 혹은 소유욕을 버리고 무궁한 자유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하려 한다. 대순 사상의 도통진경은 장자가 말한 개인의 경우를 넘어선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진리이다.

인류 전체가 지극히 깨끗하고 밝은 세상에서 범죄도 부정도 불의도 없는 완벽한 도덕적 질서 속에서 사는 세상을 이루는 세계를 도통진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도통진경과 민주주의의 이상

(1) 인간생활과 도통진경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도통진경은 인간을 둘러싼 세계와의 완전한 합일과 조화를 통해 인간의 지혜가 다다를 수 있는 최대 한도의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진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도통진경은 이상적인 인간 생활을 제시한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간의 다툼과 원한이 없어지고 전세계가 대순진리의 큰 뜻안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이상세계로서의 도통진경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도통진경의 세계는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해 이룬 세계이다. 도통진경은 대순 사상의 종지 전체의 내용을 통합하는 개념이기도 하며 음양합덕과 신인조화, 해원상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맞은 것이 곧 음양합덕으로 이루어진 후천선경의 세계이다. 후천선경의 세계에서는 신명과 인간이 서로 합일해서 살아가는 신인조화의 종지를 보여주게 되며, 인간은 극도의 존엄성을 지닌 인존(人尊)의 시대를 맞게 된다. 이같은 후천선경 시대에는 진리로서의 도가 온 천하에 두루 퍼져 있기에 도통의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의 실천이 가능해진다.

대순진리의 종지는 서로의 조화와 통합을 통해 도통진경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편음과 편양이 아닌 정음과 정양의 합덕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인조화의 전제가 되며 여기에 해원상생이 더해지면 인간 세상은 더이상 좋을 수가 없는 낙원을 이루게 되니 이 화평한 이상세계를 도통진경이라 하는 것이다. 이같은 도통진경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경』의 <예시>편에서는 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

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¹⁵³⁾

도통진경의 세계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며, 만국이 화평하고, 사람마다 모두 장생(長生)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¹⁵⁴⁾

위에 인용한 「전경」에 묘사된 도통진경의 세계는 오늘날과 같은 전세계 1일 생활권을 무대로 한 새로운 인간의 삶을 예시하고 있고, 물질적인 풍요와 자연과의 조화가 자유로우며, 종교적으로는 선경의 세계로 화합하는 이상사회를 그리고 있다 하겠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이상 세계는 대순진리의 4대종지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통진경의 세계에서 음양합덕이 이루어지고 신인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해원상생을 통해 탐심이나 번뇌마저 사라진 절대 도의 경지에서 살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2) 민주정치와 도통진경의 이상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민주주의 이념은 인간의 정신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오늘날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복지국가 이념은 모든 국민을 정치의 주체로서 정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최선의 자아 실현을 구현하고

153) 같은 책, “예시: 9.”, p. 313

154) 같은 책, “예시: 81.”, p. 336~337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주위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으며, 국민에 의한 정치를 지향한다는 민주주의의 이념은 언제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인류가 고안해낸 최고의 정치 사상으로 생각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표방하지만 우리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적으로 통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통치 방식을 성취하고자 피비린내나는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에서나 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또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가정하거나 믿는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¹⁵⁵⁾ 각 나라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직·간접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많은 강압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가 과연 이 땅에 정착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것을 가리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한다.¹⁵⁶⁾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 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 진리의 세계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말한 대순진리의 4대종지와 그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도통진경의 후천 세계는 우리 삶을 하나로 묶은 절대 진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민주주의와 도통진경의 이념에 대해서 좀더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약점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절대화하여 무조건 또는 무제한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의식을 심어준다는 데 있다. 그럴 경우 사회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와 약육강식의 혼란한 상태가 야기되어 평등은 있을 수 없고, 또한 평등을 절대화하여 무조건 또 무제한으로 강제한다면 타인과의 갈등이 분출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을 절대적인 이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유와 평등은 동시에 이룩될 수 없다. 경제적 추구에 있어서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155) Roy C. Macridis, op. cit., p. 68

156) M. J. Crozier, S. P. Huntington, and J. Watanuki, *The Crisis of Democracy*(New York: New York U. P., 1975)

때문이다. 다만 정신적 자유나 정치적 자유는 자유 경쟁 원리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리프만(W. Lippmann)은 “순전한 자유에는 자유가 없다(There is no freedom in more freedom)”¹⁵⁷⁾고 하였으며, 립슨(L. Lipson)은 “자유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적을 위하여 행동하는 기회로 구성된다”¹⁵⁸⁾고 하여 「자유와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행동의 자유는 인간의 기초적인 요구이긴 하지만, 개인에게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되면 인간 생활의 중심인 사회에 질서가 세워질 수 없으며, 인간 상호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하겠다.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각자의 최선인 실현을 통한 각자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가 인정되고 평등이 사회 각 곳에 충만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간 공동체인 사회가 정의로서 인간 관계를 이룩하고 규율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율의 형태는 지극히 자율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법으로 강제하고 경찰력으로 규제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강제는 될지언정 인간 근본을 해결하는 최선책은 될 수가 없다. 결국 인간의 최선인 실현을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인류 전체를 이끌어갈 보편 진리가 있어야 한다.

도통진경의 세계는 인류의 삶에 통일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보편 진리이며 대순진리의 4대종지를 통한 통일적인 양상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세계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 인류의 삶 속에는 나름대로 도가 있으며, 종교도 마찬가지로 사상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가지 이념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도를 가지고 있으며 도통진경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상이한 관념들이 하나로 뭉쳐 대순사상이라는 통일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운택하게 하려고 노력해왔고, 그런 인간이 개발한 편리한 문명의 이기들은 이제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단일생활권을 이룩했다. 그러나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157) W. Lippmann, A Preface to Morals(New York: The Macmillan Co., 1929), p. 326

158) L. Lipson, The Democratic Civiliza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 535

정신의 공백상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머리없는 인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류 지성의 장래는 암담한 지경이다. 이런 상태에서 과학문명의 끊임없는 발전과 인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에너지로 도통진경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각광을 받고 있는 민주주의의 경우도 그 자체가 안고 있는 결함 때문에 인류 구원사상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도통진경의 세계는 과학만으로는 풀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세계이며 우리 인류가 오래 꿈꾸어온 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은 모든 사람의 인격의 존엄을 인정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키는 일이다. 즉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인간 각자가 가지는 개성을 존중하여, 각자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있는 생활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운드(R. L. Pound)와 브루너(J. L. Bruner)는 민주주의를 “개성 존중, 인간의 목적성에 대한 신념, 최선아 실현을 위한 자질 능력에 대한 신념, 잠재력 내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신념, 이성적이고 선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신념, 진리의 상대성 우위에 대한 신념 등을 하위가치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적이고 선한 인간이 최선을 지향하며 발전을 이루어간다는 민주주의의 전제는 상당 부분 허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대 사회의 온갖 극악한 범죄는 그 예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현대인이 삶의 의미를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실의에 빠져 자살을 예사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연구가 있다. 특히 세계 경제가 한결같이 불황을 겪고 있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간의 삶을 한차원 높여줄 구원의 가치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대순사상의 크고 높은 지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순 사상의 근본은 순환 사상이며, 신과 인간의 합일 조화를 찾아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양경>에서는 또 “음양이 서로 화합하고 신인(神人)이 서로 통한 다음에야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대순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합덕

사상이며, 천지인의 인격적 합일 사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천인합일(天人合一), 지인합일(地人合一), 인인합일(人人合一)이 되는; 즉 미개한 인간을 하늘과 같은 신성한 경지와 땅과 같은 풍성한 성격으로 착하고 자애로운 인간으로 개조하여 지상 낙원을 만든다는 후천 개혁사상이 순환사상이며, 이 같은 대순사상이 도탄에 빠진 현세의 인류에게 풍요로운 삶을 기약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중심사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대순사상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진리로 가능하다. 흔히들 민주주의의 근본적 이념을 자유와 평등이라고 한다.¹⁵⁹⁾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평등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하위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은 서로 상충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없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구속이나 제재를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행동에 옮기며, 각자가 원하는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용하며, 그러한 노력을 장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신념이기도 하다.

이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신념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증산이 말한 바 도통진경의 이상세계가 실현되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 이 도통진경의 세계이며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절대 선의 세계와 같기 때문이다.

대순은 천지가 시간적으로 무시무종하고, 공간적으로는 무궁무진하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착상을 통해 영원한 우주의 순환 속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을 착안한 것이다. 도통진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우주관은 인간 삶의 발전을 위한 진리의 세계이다.

따라서 대순의 큰 테두리 속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민주 정치의 이상을 말하는 것도 한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도통진경의 세계는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로 인해 마련된 후천세계의 경지이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티끌

159)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楊茂木, “천지공사와 민주주의,” 「대순사상논총」-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출판부, 1997) 참조

하나 없고, 인간 마음의 티끌 하나 없으며 모든 욕심과 화념이 사라져 세상이 밝고 투명한 가운데 한없는 풍요 속에서 인간 극치의 행복을 구가하며 산다. 민주정치가 지향하는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이 바로 도통진경이 말하는 이상세계가 아닐 수 없다.

VI. 한국의 대순사상 정치의 실현

1. 한국 정치의 실태

모두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민주주의는 오늘날까지 인류가 발전시킨 최상의 정치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이를 추종하고 있으며 인류의 보편적 희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담보하는 영원한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해방 후 건국과 함께 민주 정치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크게 발전시켜 왔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만 규범적 명제 속에서 형식적으로만 모방된 상태에서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치는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역사는 일천하기 때문에 한국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경험과 정치제도를 갖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의 절대왕권체제하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적 식민지 통치하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념은 존재할 수 없었고, 국민들은 최소한의 기본권조차도 철저히 유린당했다.

해방을 맞은 뒤에도 한국은 권위주의적인 독선적 지배체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한국 국민들은 비록 독립은 얻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불안정과 극도로 혼란한 정치체제 아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은 고려되지 않는 가운데 서구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전과정을 밟아온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만 모방하여 도입하였다.¹⁶⁰⁾

160) 양무목, “한국정치발전에 관한 일고찰,” 「연구논집: 제11집」(서울: 동국대

한국이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한 지 반세기가 되었지만, 민주화는 여전히 한국의 정치 과제 중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였지만, 실제의 정치 과정에 있어서는 비민주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 정치는 항상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평가를 더 많이 받아 왔다. 발표된 논문이나 평론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쓴 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한국의 정치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또 개선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다 하겠다. 즉 그 동안의 한국 정치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민주 정치로만 존재하였지, 실제에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 정치가 이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 정치는 국가권력을 획득·행사·보전(保全)하기 위한 투쟁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려는, 그리고 획득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여러 현상을 뜻한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권력의 쟁취와 유지의 과정이 현실 정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서로가 의견을 달리하게 된다. 특히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정치가나 정당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논리로만 정치를 해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다.

한국의 모든 정치가와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에 대한 논리 전개를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다. 모든 정치 활동에서 자기들의 주장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극히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들도 왜곡된 논리로 민주주의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당정치의 부재

정당은 현대의 모든 국가에서 정치의 기본 구조가 되고 있다. 정당은 모

든 정치제도와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을 표출하고, 조정하며, 해결하는 매개적인 조직으로, 현대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집단이다. 한 국가의 정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당은 어떠하였는가? 불행하게도 한국의 정당은 정당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았다. 정당을 받기하고 창당할 때에는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정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일체의 독재를 단호히 배격하겠다는 등 화려한 정강정책을 제시하였지만 대개 구호로만 그쳤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항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또 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집권자를 위하거나 소속 정당을 위해서는 정당 정치의 개념조차 망각하는 그릇된 행태를 보일 정도였다.¹⁶¹⁾

그리고 각 정권의 초기에는 정당간의 대화와 토론에 의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가, 어느 때가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등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제기되면, 대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수의 대결이 벌어져 여당에 의한 극단적인 야당 적대와 야당의 극한 투쟁이 반복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외적인 요인 및 집권자와 행정에 의한 야당 탄압이 되풀이 되어 왔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의 원인은 야당보다는 여당에 더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장기 집권이나 목적 달성을 비합리적 물리적으로 강행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반대하는 야당이나 언론을 규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는 다수의 횡포와 자의적인 권력에 의한 독재만이 있게 마련이다. 즉 토론과 타협에 의한 다수결의 원리가 존중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권 교체는 평화적인 방법인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나 강압적 방법과 같은 비민주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정당의 문제로는 정치가의 이념 빈곤과 정치 윤리의 부재, 그

161) 양무목, 한국정당정치론(서울: 법문사, 1983), pp. 192~197

리고 지역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떠한 소신에 의해 정당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의 접근 가능성에 따라, 또는 지역 인물을 중심으로한 지역 정서에 따라 정당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지역주의는 지역 갈등을 심화시켜 정당은 지역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국론을 통합하기보다 오히려 국론을 사분오열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¹⁶²⁾ 이념의 빈곤은 새로운 정권 수립이나 선거기만 되면 정당이 급조되는 현상을 가져와 국회의원 공천이 가능한 정당을 찾아 이합집산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정치 윤리의 부재로 말미암아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이 당 저 당으로 옮겨가는 행태를 보였다.¹⁶³⁾

또한 정당의 정강정책도 별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없고 거의가 유사하며 국민의 관심을 크게 끌지도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당은 당리당락과 권모술수, 부정 부패와 부조리가 판을 치는 타락정치의 온상이었다. 이는 정권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 되어온 특정인에 대한 정치 활동 규제 및 사정(司正)이 그것을 잘 말해 준다. 새로이 등장한 정치 집단에 의해 그 동안 정치 활동을 해온 기성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부정축재자로 밝혀지고,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규제당할 정도로 타락한 정치인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국의 정당은 정치 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정당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는 정당은 있었어도 바람직한 정당정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62) 한국의 지역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지난 1998년 11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의 회담 결과 발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발표된 회담 내용 중에 “지역 갈등의 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야 지도자간의 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거론될 만큼 지역갈등 극복문제가 한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현안이었던 것이다. 동아일보, 1998년 11월 11일.; 조선일보, 1998년 11월 11일자 참조

163)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정치사정」이 시작되자 ‘한나라당’, ‘국민의 당’ 등의 여러 의원이 새로운 정국에 대비, 탈당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에 대거 입당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을 야기시켜 국회활동이 한동안 진통을 겪기도 했다.

(2) 행정권의 우월화

현대 국가에 있어서 입법부의 통합 기능이 감소되고 행정부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등 그 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 국가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증가하는 국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권의 강화와 확대 경향이 촉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행정은 입법과 사법에 비하여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정치와 행정의 일원화 경향을 가져 왔다.

정치란 원래 사회내의 모순과 대립을 권력에 의하여 통합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정치란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그 수행을 위해 최고 지도를 한다. 여기에 비해 행정은 그러한 정치를 전제로 하는 국가의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국가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이 내면적으로는 보좌한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이 아니라 정치가 하는 것이며, 행정은 그러한 정치를 전제로 해서 정치를 보좌하는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는 독립변수이고 행정은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행정이 정치에 복종하지 않고 입법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통령이나 행정 관료가 멋대로 정치를 좌우하면서 정치를 결정한다면 그 나라에는 행정만 있지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60년대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를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행정권의 지나친 강화 현상이 나타났다. 끝내는 행정권의 절대적 우위로 행정 독주의 현상이 나타나 입법과 사법의 기능을 경시하기에 이르렀다. 즉 행정 기능의 확대에 의한 행정국가화 현상이 행정만능의 풍조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하여 사법부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관료의 눈치를 살피는가 하면, 입법부인 국회는 무력화되어 제 기능을 잃었다.

특히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보다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의 지배인 국민의 참여를 제한시켰다.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 제시의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은 채 행정부에서의 결정만으로 중요 시책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곤 하였다. 또한 국회에서의 심의

도 형식화되어 행정부의 의도를 그저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요식 행위로 변질되었다.

또한 행정권의 강화는 무리한 정권 연장을 도와주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은 정치에 대해 중립을 지킬 것이 요구되는데, 한국의 공무원은 집권 정당의 정권 유지에 깊이 간여하여 왔다. 집권 정당의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권력이 개입하였으며 공무원들이 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집권 정당과 행정의 유착으로 인한 행정독재는 정치부재를 가져 왔다. 그 가운데서 경제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행정 위주로 강력히 추진되어 그 효과를 나타낸 점도 있었지만, 부수적으로 오히려 국민과의 괴리감을 불러 일으켜 행정에 대한 불신, 나아가서는 정치 불신을 가져 오기에 이르렀고, 이로부터 파생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참여적·‘홍익적(弘益的)’¹⁶⁴⁾ 정치문화보다는 비민주적·종속적인 정치문화로 퇴행시켰다.

(3) 부정선거

선거제도는 민주정치를 실현하는데 기본적 제도이다. 선거제도는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사의 표출과 대표를 선출하는 기능을 한다. 민주정치는 공정한 선거에 의해 국민 의사가 바르게 표출되고, 대표가 올바르게 선출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민주 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반이다. 민주 정치의 실현은 무엇보다도 선거제도의 확립에서 찾아야 한다. 선거없는 민주 정치란 존재할 수 없고, 자유스럽고 공정한 선거과정이 없이는 또한 민주 정치는 불가능하다.¹⁶⁵⁾

한국 정치에 있어서 만약 관권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가 실

164) 「홍익적 정치문화」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에서 원용한 용어로서 필자가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문화가 사회의 저변에 깔린다면 민주주의와 대순사상의 이상인 선경사회는 자연 이룩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165) 양무목, “14대 총선과 국민의 선택,” 「새물결」(서울: 봄호, 자유평론사, 1992), pp. 65~73.; 양무목, “선거법 고쳐야 한다,” 「자유공론」(서울: 5월호, 자유공론사, 1992), pp. 78~87

시되었다면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오래 전에 가능했을 것이다. 선거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당을 대신한 정부의 대행 선거(代行選舉)를 초래했다. 따라서 선거는 항상 불법, 부정이 개입되었고 그로 인해서 선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¹⁶⁶⁾ 그러므로 여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는 당선이 기정 사실로 인정받고, 선거는 그의 당선을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던 사례도 있었다.

선거제도와 선거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 민주 정치인데, 한국 국민들은 공정한 선거를 별로 경험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오늘의 정당 구조는 이념 중심이라기보다 지역 감정과 지역 정서에 호소하는 지역 인물적 정당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다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집권자와 정치권은 모든 국민이 다함께 몰두할 수 있는 이상을 국민에게 심어주어 지역감정을 '뛰어 넘는' 선거의 분위기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 민주정치의 과제 중의 과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의 분위기와 공정성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선 공권력의 개입이 배제되는 행정권의 엄정 중립과 국민이 선거를 대하는 의식의 고양에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사고와 객관적 판단에 의해 투표를 해야만 하겠다. 다음으로 지역감정에 호소해야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지금같은 지역정당 구조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은 정파적 지역적 이해를 떠난, 오로지 「열린 논의」를 통한 정치가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4) 제도의 위기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개인권과 시민권을 갖게 되고, 국민 주권과 다수결원칙에 동의함으로써 대의제 정치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의 제도는 그것이 대통령중심제이든 내각책임제이든 그 실시와 정통성에 있어 위기를 맞고 있다. 로크의 말과 같이 입법부는 개인의 자연권을 박탈할 수 없고, 개인의 자유를 폐기할 수 없으며,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도 없다. 그리고 대의제 통치가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해악

166) 문창주, 한국정치론(서울: 일조각, 1980), pp. 78~87

을 제거해 주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개인의 안녕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의회 내에 반영되는 각종 이익의 혼란으로부터 전체 사회를 위한 공동 목적과 공동 정책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데 국가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민주적 대의 제도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IMF 사태와 함께 모든 경제가 추락하고 실업자 홍수를 이루고 있어 사회 전체가 순식간에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국가라는 공동체가 파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여기에 김영삼 대통령의 독재와 탄압의 극치를 이루게 된 인치(人治) 통치가 비판을 받는다면, 정치인들의 도덕성 문제와 더불어 대의제도의 문제가 또다른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면 지난 11월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의 일이다. 일부 여야의원들은 경제 현안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 사정과 제2건국운동, 그리고 내각제개헌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했다. 어떤 의원은 “여대야소 정국을 위해 수많은 야당의원에게 정치적 불륜을 강요했다. 지역편중 인사와 보복사정으로 지역감정의 골을 더 깊이 갈라놓았다. 북풍세풍 총풍사건을 침소봉대, 온나라를 뒤흔들어 놓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제2건국운동의 첫 걸음은 구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의원은 “전 정권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은 절대권력의 참담한 실패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내각제를 통한 책임행정의 구현만이 전정권의 전철을 예방하고 정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등 솔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지금 내각제 개헌을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만 봐도 그렇다. 자민련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정치개혁의 최종 완성은 내각책임제이다” “국민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은 내각제 개헌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현행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서 권력분산과 책임정치를 구현할 내각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 “두 여당의 입장을 보면 내각제 합의가 깨진 것으로 보인다”는 등 먼저 내각제 개헌을 논의하고 난 다음에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면, 이것에 대한 총리의 견해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여기에 대해 김종필 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의 과제인 만큼 미뤄둘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답변의 곳곳에서 개헌 의지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그는 “선진정치로 가기 위해 내각제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논의하면서 권력구조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내각제로 가는 것이 지역주의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 말 등이 그것이다.¹⁶⁷⁾

이러한 내각제로의 개헌 논의는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다고도 보아진다. 예를 들면 지난 김영삼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금융실명제를 들 수 있겠다. 금융실명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일부 정책 입안자가 밀실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긴급 명령이란 형태로 그 실시를 발표했다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상과 태도는 민주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기본 가치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다. 국민들의 의사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지시는 결국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켰고,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으로 인해서 국민 상호간에 극한적 대립과 갈등만을 조장시켰다. 무책임한 정책 수행으로 국민 및 국가 경제를 총파국으로 몰아넣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몰고 온 것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국가 통치 체제에 있어서 권력이 분산되어야 하고 법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의제 의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국민의 이익을 더 이상 보

167) 이러한 개헌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회의의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를 내기 위한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의 제안인 내각제를 수용한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김종필 총재는 말하기를, “역대 대통령이 희생당한 것은 대통령제의 모순 때문이다.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맘대로 휘둘러 수 있는 제도가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지 않으면 안되게 했다. 또 현재 김영삼 대통령도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니잖느냐. 그러므로 정치의 총책임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제도를 그만두고 국회에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할 때가 됐다. 굶지않는 나라,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된만큼 내각제를 해야 한다. ... 국민회의가 내각제를 얘기하는 것은 야권 단일 후보를 내야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명제 때문이다. ... 그러나 우리는 정권을 얻기 위해 내각제 하자는 것이 아니다. 내각제는 정권 교체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라고 한 말 등에서 알 수 있다. 중앙일보, 1997년 5월 15일.

호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직접 참여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정책 결정의 분권화밖에 없을 것 같다. 국가 관료 기구를 분산해서 그 권한을 도시나 지방, 그리고 마을과 같은 자치단체에 넘겨 모든 것의 수혜자가 직접 조정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5) 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성장 발전과 경제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일반 백성의 빈곤을 정치적 변혁의 원인으로 지적한 바도 있지만,¹⁶⁸⁾ 심각한 경제적 위기는 정치 권력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또 라스웰(Harold D. Lasswell)도 “인간의 계속적인 가치 박탈은 지배에 대한 반항의 원인이 된다”¹⁶⁹⁾고 하였으며, 라스키(Harold J. Laski)도 “민주 정치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생산력의 파괴와 경제의 위축 속에서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으며, 광역화한 확대 경제가 필수 조건이 된다”¹⁷⁰⁾고 하였다. 확대된 경제는 인간에게 희망을 안겨주며 희망은 새로 제정된 법률에 대한 준수를 가능케 한다. 이 준법정신은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경제적 위축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고, 사려분별의 여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며,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공허(空虛)로 만든다.

또한 벡커(Carl L. Becker)도 “민주 정치가 성공함에 있어서 본질적 조건의 하나가 유동성(mobility), 즉 서로간의 소통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라면, 또다른 성공의 조건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빈곤 속에 허덕이는 사회에서는 꽃피울 수가 없다. 고대와 중세에서 그런 대로 민주 정치가 행해질 수 있었던 곳은 대부분이 당시 번영의 중심지였던 도시들이다”¹⁷¹⁾ 라고 하였다.

168)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국가라 함은 완전하고도 자급자족적 생활, 즉 행복하고도 명예있는 생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가족 및 촌락의 결합이다” 라고 하였다. cf. Aristotle, *The Politics*, V, Chap. 3, p. 1265 b. and Coker, *Readings in Philosophy*, p. 61

169) Harold D. Lasswell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New Haven: Yale Univ. Press, 1950), p. 264

170) Harold J. Laski, *Liberty in the Modern State*(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48), pp. 14~15

한국은 지난 196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이것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즉 그 동안의 경제발전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 있어 분화와 전문화의 폭을 넓혔으며, 국민 개개인들의 정치 참여 의식도 증대시켰다. 결국 한국 경제의 발전은 한국의 정치 발전에 한몫을 단단히 하였다.

이러한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의 관계가 점차 미묘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첫째,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경제 구조가 분배 문제 해결에 좀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사회 계층상의 차별이 심하고, 국민 대중의 생활 수준이 일정한 인간적인 복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국민 소득의 분배 역시 공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대중은 언제나 국가 체제와의 동일성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적 일체감은 좀처럼 생겨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빈곤과 만성화된 대량 실업은 정치 권력의 안정을 위협하기가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국민정부」가 들어서긴 하였지만, 지난 문민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불행하게도 국민 및 국가 경제가 파탄되어 IMF 사태를 가져왔고, 그와 함께 또한 정치 불안이 가속화되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느닷없이 “가진 자에게 고통을 안겨 주겠다”는 말과 함께 지난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하였다. 그것도 국민적 의사를 결집하려는 시도조차 전혀 없이 대통령 한 사람의 분석과 판단만으로 전격 이루어진 일이다. 정부 홍보는 물론 신문 방송을 위시한 언론은 일제히 “선진국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실명제를 실시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떠들어 댔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경제 파탄이었다. 거기에다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에 따른 잇따른 파업사태와 한보부도 파문, 김현철 사건 등으로 경제 불황은 장기화되고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인·상인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거리의 택시 기사」도 다 알고 있다는 경제 불황의 원

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했다. 경제를 아는 모든 이들이 오늘의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비롯하여 모든 경제 및 금융 규제를 「혁파(革罷)」시켜야 된다고 주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악의 금융개입」으로 기업들만 도산시켜 국민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까지 몰고온 것이다.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위기에 처한 국민 및 국가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응지를 펼치면서 국민정부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경제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가? 물론 그것을 평가 분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낙관론을 펴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비관론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낙관론자들은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한(對韓)인식이 개선되고 있어 더 이상의 외환위기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지금의 외환보유고는 7할 가까이가 외국에서 빌려온 것이며, 낙관론의 근거였던 일본의 엔화강세는 벌써 힘을 잃고 있다고 반박한다.

지난 11월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금융 및 기업 구조 조정과 5대기업간 빅딜 등 현 정부출범 9개월 동안의 ‘경제성적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는데 야당이 헐뜯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금융구조 조정 등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개혁을 실천했다... 경제위기는 기업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과급돼 일어난 만큼 정부는 유인과 경제정책을 확고히 세워 구조 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는가 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는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우면서도 원칙과 기준 없이 금융과 기업의 구조 조정·빅딜 등을 추진, 신관치(新官治)의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위기는 과거 고도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초래됐으며 특히 현 정부 들어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때문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한다.¹⁷²⁾

172) 동아일보, 1998년 11월 16일~18일.; 중앙일보, 1998년 11월 16일~18일.; 조선일보, 1998년 11월 16일~18일자 참조

한국의 경제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정치인들의 설전이 과연 오늘의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분석 진단하고 있으며, 또한 내놓은 처방이 올바른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일이다. 그건 경제가 안정 발전하려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소비와 투자는 엄청나게 줄고 수출도 감소세로 돌고 있다. 공장이나 업소의 가동률은 60% 이하로 떨어지고 곳곳에서 기업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다. 실업자는 벌써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자력갱생이 어렵다면 은행자금이나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쓸 돈은 천문학적이다. 기업마다 돌아오는 만기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이며, 금융구조 조정에 들어갈 엄청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부도업체 급증과 창업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위해 올해 신용보증기금이 6천억원을 증자했고, 세계은행 자금 10억달러를 지난 3월 추가 지원했다고 하나, 돈은 돌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중산층은 몰락하고 상층과 하층만 남는 망(亡)조의 현상으로 치닫고 말 것 같다. 가히 전시(戰時)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오늘의 한국 경제는 특수 기업이나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 중소기업인들, 심지어 동네 구멍가게까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일부 정치권은 경제상황에 대해 극히 낙관론을 펴고 있는가 하면 정치적 선전을 서슴치 않고 있음을 본다. 물론 경제 낙관론은 사회심리를 밝은 쪽으로 조성해 일할 의욕을 부추기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실 경제 흐름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정책과 제도 개선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그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재탕·3탕한 것이 대부분인 '경기진작 종합대책' 만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언제까지 정부는 경제회복의 처방으로서 구조 조정에만 책임을 미루는 면피성 대책들로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그래오는 동안 경기지표들은 사상 최악의 기록을 경신했고 전망치는 다달이 하향 조정돼 왔기 때문이다.

이같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최근 정부 일각에선 과감한 세금감면을

포함한 기존 발상을 한 단계 뛰어넘은 경기진작책을 내놓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가 준다' '효과가 미지수다' 등 발상전환은 여전히 대세가 아닌 것 같다. 결국 원론만 늘어놓다가 때를 놓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따지고 보면 한국 경제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파탄된 원인은 김영삼 정권이 1993년 8월 어느 날 느닷없이 실시한 「금융실명제」 때문이다. 열대지방에서 보기 좋게 잘 자라는 나무라도 온대지방이나 한대지방에 가져다 심으면 얼마 안가서 죽는다. 그 이유는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후와 토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에서는 비록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도 좋아질 것이란 보장은 전혀 없다. 그 이유는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관습과 관행을 통해 이루어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업적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¹⁷³⁾ 문화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理想)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이다. 즉 문화란 주어진 공간에서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들의 생각 느낌 행동을 모두 합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한국의 기업문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등의 기업문화는 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경제 선진 대국인 일본이나 독일 등은 미국 등에서 발전한 금융실명제 도입을 반대하고 그 실시를 유보했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분석하는 하나의 틀로 문명충돌론을 제시한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인 새뮤얼 헌팅턴(Samuel P.

173) 지난 1998년 11월 15일 말레이시아 팔라롬푸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 회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아시아의 두 지도자, 즉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모하메드 총리가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란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15일 기조연설에서,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처방을 그대로 놓아두기 바란다... 처방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대가를 치를 것이고 성공하면 세계가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적 가치」를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마하티르는 가족주의, 근면, 교육열등의 문화적 배경과 정부주도의 개발독재가 아시아에서 ‘네 마리 용’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하면서 IMF의 처방과 감독을 거부, 아시아의 독특한 문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음 날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목표로 추진하는 개혁과 개방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IMF의 처방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지도자의 견해가 아주 다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두 지도자 중 누구의 견해가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는 것을 유보하고 싶어진다. 그건 앞으로 나타날 「경제성적표」에 따라 자연적으로 분석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1998년 11월 18일자 참조.

Huntington)도 문명권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문명권의 주도국들이 나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서구세계는 서구의 가치들을 다른 사회에 전파 내지 적용할 때는 문명권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은 동아시아 문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동아시아 사회가 안정된 민주 정치체제를 이룩하는 데서 직면하는 어려움 역시 그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은 국가들의 이익, 대결, 협력 양상을 규정한다」¹⁷⁴⁾고 강조하였다. 『주역』 <계사전>에도 “방소으로써 종류를 모으고 물건으로써 무리를 나누니 길하고 흉함이 생긴다”(方以類聚 物以群分 吉凶生矣)고 하였다. 이 말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들이 각기 다른 사회를 형성하고, 다른 사회에서 다른 견해가 생겨나며, 다른 견해에서 분쟁이 생겨나고, 다시 분쟁으로 말미암아 좋고 나쁨이 생겨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마다 각기 색깔을 달리하는 견해가 존재하며 이것들이 서로 부딪침으로 말미암아 좋고 나쁨이 생겨난 것이지 애초에 우월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끌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견해나 문화 속에는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한쪽의 좋은 측면과 다른 쪽의 나쁜 측면을 달랑 잘나내 양자를 같은 위치에서 대비시킴으로써 한쪽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다른 쪽의 존재를 절대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에서 각각 형성 발전된 경제 및 기업 등의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만 일부 선진국에서 발전된 「금융실명제」 등을 느닷없이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총체적 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필자는 보는 것이다.

지난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회의측과 자민련측이 단일 후보 협상과정에서 경제정책을 논의 합의한 적이 있다. 그 때 김대중 후보는 자민련의 경제정책을 수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은 자민련의 경제정책 중 「금융실명제 폐지」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파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없애고 경기활성화 정책을 실시해야

174)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희재 옮김/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서울: 김영사, 1997) 참조

된다는 김종필 총재의 제안을 김대중 후보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정부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나, 아직까지 「금융실명제를 폐지한다」는 정책적 발상 전환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저 금융실명제의 가치를 몇 개 잘랐을 뿐이다. 아직도 정부가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알맹이 없는 대책 회의만 거듭하고 있다는 인상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다. 지금같은 경제 비상시국에는 재정적자 억제니, 건전금융 추구니 하는 한가하고 시시콜콜한 경제이론은 접어두고 우선 우리 기업들부터 살려놓아야 하는데도 말이다. 즉 응급수술로 우선 환자부터 살려놓고 봐야 한다는 각오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항간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경제할 분위기 조성이 덜 되어 있으며, 신용이 경색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재정지출과 통화공급을 늘리면서 민간부문을 독려해도 미래에 대한 확신과 이웃간에 신용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적극적인 부양책도 좋다. 그러나 그에 앞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정책대응의 기본방향부터 내놓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경기침체나 불황과 고실업의 장기화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로 인한 개인의 좌절과 분노의 폭발이 우려된다. 돈이 돌게 하자면, 하루 속히 빈사상태에 빠진 금융권을 과감히 개혁하고 대담한 자금 수혈을 해서 자금의 흐름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인들이 친지나 이웃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또 은행에 가서 필요한 돈을 마음대로 대출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한국 경제의 실상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은 이른바 구조 조정만 강조하고 있다. 물론 구조 조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 안목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고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지는 경제 기반의 파탄부터 막아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재정지출과 통화기금을 늘리면서 민간부문을 독려해도 미래에 대한 확신과 이웃간에 신용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경제환경에 따른 올바른 정책대응인 기본방향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경기

침체와 불황, 그리고 고실업의 장기화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불안만 증폭되어 그로 인한 개인의 좌절과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완전히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민주 정치는 총체적 위기 국면으로 치달는 결과만을 연출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순과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통치 방식과 사회적 통제 방법, 그리고 경제 성장의 방향, 즉 금융실명제를 비롯 모든 경제 규제를 풀고 재조정하여야 한다. 국가 과제를 경제 재건에 설정해야 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오로지 경제회복에 집중시켜야 한다. 실업을 방지하고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장을 촉진 유지하는 정책을 과감히 실시해야 한다. 교육제도를 현대화(정년 단축 등은 현대화가 아니다)하고, 지역 사회와 결정 작성 방법을 개선하고, 책임있는 정보제도를 확립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관료제도를 시민에게 돌려 주고, 사기업의 관료제를 소비자에게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 경제 회복만이 우리의 살길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민주정치도 없고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는 어디에 있을 것이며, 국민의 삶은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칙없는 경제와 무책임한 정치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총파국을 맞은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 문제는 하루속히 「금융실명제」를 비롯 모든 규제를 풀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경제논리」에 맞춰 풀어야지 「정치논리」로 풀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6) 비민주적 정치행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며, 민주국가란 법치국가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평등과 사회정의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치를 통해서만이 그 구현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법치주의란 국가 권력의 전단적(專斷的)인 지배가 아니라, 합리적인 법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법에 의한 지배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즉 법률에 의한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국민 주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의사인 법률을 행정의

상위에 두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곧 근대 시민국가에서부터 행정 권력은 국민의 의사와 부합되어야만 객관화되고 효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입법부의 기능 약화로 입법과정에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물론 국가 기능이 복잡·전문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새로운 국가 기능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 행정권의 확대는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문제는 행정부에 입법부가 종속되어 국회의 자율적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데 있다. 국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합법화시켜 주는 통법부(通法府)로 전락된 감이 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한 상태에서 무더기로 법률이 제정된 경우도 있었다. 제3공화국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4공화국은 비상국무회의에서, 제5공화국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헌법을 비롯한 주요 법들을 제정하고 그것을 국민투표로 확정시켰다.¹⁷⁵⁾

이러한 법률 제정은 한국 민주정치의 중대한 위기를 유발시키곤 했다. 특히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국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민주적인 헌법이라 하더라도, 법률 제정과정 자체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국가 권력이 피치자인 대중의 의사 반영을 결여한 채 성립되었기 때문에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제정될 수밖에 없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화된 국민 주권인 국민의사의 표현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헌정사는 대부분 집권자의 권력 유지 또는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헌법개정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집권자 위주의 헌법 개정으로, 권력자의 자의를 정당화시키고 피치자의 자유를 공동화(共同化)시키는 실력의 지배였다. 또한 이러한 헌법에 대한 비판 및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즉 권력의 절대화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유보시켰고 강압하였다.

175) 양무목, “한국의 의회정치와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18집(서울: 한국정치학회, 1984), p. 395

한편 법의 지배는 재판에 의한 권리 구제를 의미하는데 사법부 역시 행정 권력에 종속되어 독립성을 침해받아 왔다. 즉 입법 사항의 전문 기술화, 법 집행자의 재량권 확대, 입법 내용의 양적 증대, 사법 통제의 제한 등으로 인권 보장을 위주로 한 법의 구조적 기능에 회의를 갖게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지난 유신 통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며, 국민에 의한 정치이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정치이다. 그러나 요즘 한국의 정치현상을 보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정치를 하기보다는 여·야가 오히려 원초적 적대감만을 조장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정당은 민주주의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집단이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당의 당리와 당락을 추구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선거 때마다 내세운 정치인들의 선거공약, 즉 한결 같이 국민을 보다 잘 살게 하고 국민에게 적극 봉사하겠다는 선거공약은 온데 간데 없는 것 같다.

미래의 정치를 고쳐보자는 정치개혁만 해도 그렇다.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개혁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지향적인 사정(司正)을 주무기로 삼고 있다.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만 해도 그렇다. 정치권은 사건을 어느 한 쪽으로 몰고가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무한정 부풀리고 불리하면 모든 것을 일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문 및 감청」 사건만 해도 그렇다. 한 쪽에선 고문 및 감청이 있었다 하고 한 쪽에선 그런 사실이 없었다 한다. 고문 및 감청(법의 허용 밖)은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야만적 인권 유린행위이다. 더구나 현 정부는 인권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인권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 때문에 고문 유무는 정부의 공신력과도 직결된다. 특히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을 잃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문이나 부당한 감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선진 자유 민주국가로 자처하고 있는 미국의 대법원 건물 위에는 아직도 「법 아래에서의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 under law)라는 말이 새

겨져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 및 국민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1997년 5월 27일 미국의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Bill Clinton)에게 내린 판결을 들 수 있겠다.¹⁷⁶⁾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민주 체제가 보다 성장 발전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도 민주주의 사상을 포용하고 있는 대순의 음양합덕 해원상생 신인조화 사상에 의한 후천 선경의 원칙에 따라 사회 정의를 제고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비민주적 정치행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총체적 위기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7) 지역주의의 심화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정치는 지역주의 말세론이 흥미하고 있다. 이웃끼리 내 것 네 것이 없을 정도로 인정을 나누다가도 정치 문제만 제기되면 지역 갈등을 일으켜 반목과 대립을 일삼는 경우를 흔히 본다. 물론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아무 대립도 모순도 없고 아무 분화도 없는 것을 상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회내의 여러 모순과 대립을 합리적 권력에 의하여 통합할 정치란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정치는 어떻게 보면 이념이나 사상, 그리고 제도를 뛰어넘는 지역감정이 정치판을 휩쓸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¹⁷⁷⁾

176) 미국의 대법원은 지난 1997년 5월 27일 폴라 코빈 존스(Paula Corbin Jones)가 3년 전 빌 클린턴(Bill Clinton)을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사건 소송에서 클린턴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도 없음을 만장일치로 공인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존 폴 스티븐스(John Paul Stevens) 대법원은 “역대 대통령을, 공식적 행위를 기초로 한 배상청구로부터 면책해 주는 주된 논리적 근거, 즉 어떤 특정한 행위로 인해 개인적 책무를 지게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없이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전개가 대통령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한 면책부여를 뒷받침해 줄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공직 범위내에 있는 행위에 대한 면책은 수행되는 기능의 본질에 기초를 두는 것이지, 기능을 수행한 개인의 지위를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두 차례나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클린턴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함과 동시에 만약 현직 대통령이 소송당하는 것을 연방 대법원이 허용하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클린턴 대통령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분쇄시킨 사건이다. 이것을 가리켜 <법 지배의 명확한 승리>라고 한다. 1997년 5월 28일, editorial: U. S. Constition 1, Clinton & company O, The Washington Times.

177) 오늘의 한국 정치는 어떻게 보면 여와 야의 정치 주도권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 여권이 강력히 추진하는 「與大野小 및 전국정당적 정계개편」 등을 하려는

일반적으로 지역주의는 전근대적 심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역주의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평가 분석함에 있어서도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기 보다는 지역적 정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여기에는 조상들이 남긴 어떤 초시간적, 초공간적인 보편원리나 고정불변의 최소한의 도의적인 생각도 무시된다. 그 지역의 사건이나 인물이라면 그 사건의 객관적 분석이나 그 사람의 인물 됴됨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옹호하고 따르다.

그런 배타적 지지기반을 전제로 해서 어떤 사람이 정당을 만든다면 “그 정당은 씨족이나 신분, 그리고 지방적인 편협성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안정되고 단합된 전국적 규모의 정당으로 발전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럴 때 정당들은 도당(徒黨)으로 되든가 아니면 지역적 부족한 기반 위에 군림하고 있는 보스나 그 졸개들의 집합체로 되는 경향을 나타낸다”¹⁷⁸⁾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집단은 필연적으로 집단이기주의가 국민 이익보다 앞서기 때문에 독선적인 생리에 쫓겨 되고 스스로를 국가 내지 민족과 동일시하면서 반대당을 반민족주의자 내지 국민통합의 훼방꾼으로 비판하게 된다. 이렇게 한 정치집단이 독선적이 되면 다른 정치집단들도 덩달아 독선적이 된다. 그리하여 이들 정치집단들 사이에는 정치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종종 폭력을 앞세운 극한 대립만을 일삼게 된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역 감정이나 지역 정서는 있었다. 자기 고향 사람이나 학교 동문, 혹은 집안 사람에 대해서는 정감이 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1987년 대통령선거 이후 나타나고 있는 투표에서의 지나친 지역편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비합리적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신 지역이 계층이나 연령, 성별이나 학력 등 여타의 모든 지표를 압도하는 결정적 기준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한 지역주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여당이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대우해 주지 않으면 對與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야당은 「정치보복적 차원의 사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야당을 파괴해 정계개편하려는 비민주적 발상을 포기하라」는 등을 주장하면서, 정기국회 등을 통해 「지역편향 인사」 「어긋난 개혁」 등을 질타하고 있다.

178) Edward Shils, *Political Development in New States*(The Hague, London, Paris: Mouton & Co., 1965), p. 14

의적 투표 성향은 반독재 투쟁의 찬란한 전통도, 민주주의를 향한 전국민적 열망도 하루 아침에 삼켜버리고 선거 때만 되면 지역이라는 기준에 의해 전국을 사분 오열시키는 형세를 만들어내고 만다.¹⁷⁹⁾

한국에 있어서 지역주의의 기원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원을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논자는 고려 왕건이 왕권 안정책으로 후대 왕에게 당부하기 위해 남긴 훈요십조(訓要十條) 가운데 8조¹⁸⁰⁾의 후백제인에 대한 유훈이 그 기원이라고도 한다. 또는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를 위해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지역과 받지 못한 지역간의 개발 격차에서 그 기원을 찾아가 하면,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권의 권위주의에 맞섰던 김영삼·김대중 양 김씨가 분열된 결과가 대통령선거의 투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그 와중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짙게 깔리게 되고, 연이은 선거에서 동일한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의 문제가 정치이슈가 되었다고도 한다.¹⁸¹⁾ 그러나 이 지역주의는 인간의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판단과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반영물로 나타났다가보다 어느 특정 인물과 결합된 정서적 분출이라고 생각된다.

정치는 사회적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며, 정치가는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역할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가 정당이다. 그러나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당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지 못하면 정치는 방향 감각을 상실해 파선하고 만다. 오늘의 한국 정치가 마치 과도에 휩쓸려가는 한조각의 배처럼 보이니 불안하기까지 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정치가 지역주의에 의존하고 있기 때

179) 홍기운, 지역주의와 한국정치(서울: 백산서당, 1996), p. 3~25

180) 훈요십조 제8조는 다음과 같다. 「차현(車峴: 차령산맥) 이남과 공주강 외는 산형과 지세가 함께 배역(背逆)으로 달리니 인심도 또한 그러한지라, 저 아래 고을(주군) 사람이 왕성에 참여하여 왕후, 국척과 혼인하여 국정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를 변란케 하거나 혹은 통합된 원한을 품고 거동하는 길을 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 또 일찍이 관사(官寺)의 노비와 진역(津驛)의 잡척(雜尺)에 속하던 무리가 혹은 권세에 농하고 정사를 어지럽힘으로써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비록 양민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벼슬자리에 두어 일을 보게 하지 말지어다.」

181) 楊茂木, “大巡思想과 韓國政治,” 「大巡思想論叢: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pp. 240~242

문이다. 정당들은 모두가 특정지역만을 지지기반으로 생존하고 있고 국회의 원 또한 그들의 지역 연고성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와 정치인들은 그들의 국정수행의 열의, 능력의 있고 없고보다는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지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진다. 그들은 오직 특정지역을 근거로 존재하는 정당에 충실히 협조하고 그 정당의 대표에게 충성만 바치면 된다는 즉 지역성에만 투철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은 결국 정치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적 통합과 일체감 조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적 통합과 일체감 조성이란 “그 사회를 분열시키는 적대심을 제거하고 그 사회를 파괴시킬 위험성을 지닌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¹⁸²⁾하며, 이는 지배자의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명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정치참여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 및 다원적 정치과정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의 지역주의는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독선적인 사고방식과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는 독존식 아집만을 남겼다. 정치개혁만 해도 그렇다. 단순히 여소야대 정국을 개편하기 위한 인위적인 사람 빼내가기로 일관하거나 개혁의 주체와 객체를 사전에 엄격히 분리해 놓고, 나의 방어를 위해 너를 제거하는 등과 같은 일이 만약 벌어진다면 그건 개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또다른 정쟁(政爭)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지역주의적 정쟁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켜 민주정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8) 분단의 위기

한국이 안고 있는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분단된 국토를 하나로 잇는 평화통일이다. 분단된 상황에서 일차적으로는 국가 안보이고, 궁극적으로는 평화 통일이다. 통일에 대한 논의는 흡수 통일과 단

182) Maurice Duverger, *Sociologie Politique*(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8), p. 220

계적 통일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성장 발전은 외부 상황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주 정치가 운영되는 외적 환경은 민주 정부의 산물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평화의 아들이며 그 어머니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¹⁸³⁾고 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민주주의의 절대적 조건임을 인정하고 있다. 평화는 교전상태의 부재 혹은 정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대 세력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교전 상태가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 한국은 국토 분단으로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 정치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박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안정이 없이는 유지 발전이 어렵다. 미국의 루즈벨트(F. D. Roosevelt) 대통령도 “민주주의는 국제적 불안정의 분위기 속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민주주의는 국제적으로 안정되고 국내적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분야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때 그 성장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이민족(異民族)의 지배보다 결코 덜하지 않는 민족적 고통을 겪고 있다. 6·25의 동족상잔과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1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남북대결 구조로부터 비롯되는 민족적 에너지의 불필요한 낭비 등은 한국 민족이 결코 원하지 않는 민족분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 분단은 한국 민족의 단결이 공고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를 비롯하여 국민 전체가 음양합덕 사상에 의한 해원상생적 정신에 의하여 한국 민족이 뚝뚝 뭉쳐 더라면 민족의 통일은 성취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증산은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183) William E. Rappard, *The Crisis of Democracy*(Chicago: Chicago Univ. 1938), p.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이니라”¹⁸⁴⁾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민족은 먼 옛날부터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어 원한이 쌓이고 맺혀 한국 사회가 참혹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 민족,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원한관계를 음양합덕에 의해 공존 공영하는 상생시대를 열지 못해 민족 내부 세력들의 반목과 분열 투쟁이 극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리하여 한국은 한국 민족 자체의 힘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주로 외세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분단 상태의 개선으로부터 통일 및 통일 조국의 번영에 이르는 성공적인 민족사 운영의 방향 설정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물론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은 무너졌고,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동유럽이 자유화 민주화되었다. 그리고 냉전구도가 붕괴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은 분단을 가져왔던 국제체제의 전면적인 변화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로 인해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 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민족의 자유를 신장하고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통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북한(對北韓) 정책만 해도 그렇다. 지난 11월 14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햇볕정책 평가 및 인식」 「금강산관광 특혜설과 문제점」 등을 두고 여와 야는 공방을 벌렸다.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3당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지속적인 햇볕정책 추진으로 인한 남북교류-협력 분위기 조성 등 가시적 성과를 부각시킨 반면, 한나라당은 무리한 햇볕정책 추진과 정경분리 원칙 적용으로 정책 혼란과 안보의식 해이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민련은 햇볕정책이 양보를 거듭하는 유화론이라고 비판하고 안보에 대한 각성을 촉구, 국민회의보다 한나라당에 보다 가까운 인식을 나타냈다. 그리고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사업 독점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서도

184)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공사: 1-3.”, p. 98

서로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신(新)정경유착」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공동여당인 자민련도 이에 가세,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추궁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햇볕정책의 긍정적 결실이라며 옹호했다.¹⁸⁵⁾

물론 한국에 있어서의 통일은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방법으로 추구되든가 전투적인 집단이나 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된다. 그러한 통일은 후유증 또한 커서 민족의 자유, 번영과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자유, 민주, 자주, 평화와 함께 문화 발전과 경제 성장이 실현되는 민주 민족 복지국가를 미래의 통일국가상(像)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반민족, 반평화, 반민주, 반문화, 반자유, 반성장의 통일 방안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 먼저 북한으로부터의 전쟁 위협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전쟁을 방지하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야 되며, 한국 정부와 지도자, 그리고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생존과 이익을 중요시하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실력 배양에 앞장서야 하겠다. 아직도 북한은 틈만 생기면 남쪽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의 위협을 서슴지 않으며 북한 동포들의 전쟁 의식을 고취시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같은 사실은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북한은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유람선 출항 하루 전인 지난 11월 17일 느닷없이 금강산 관광객 가운데 일부의 입북을 불허하고, 남한 관광객의 선별 입북을 시도했다.¹⁸⁶⁾ 그런가 하면 지난 11월 20일 새벽 간첩선을 남파

185) 세계일보, 1998년 11월 15~16일.; 조선일보, 1998년 11월 15~16일.; 동아일보, 1998년 11월 15~16일자 참조

186) 북한은 금강산 관광유람선이 첫 출항하기 전인 11월 17일 느닷없이 “금강산 관광객 중에는 관광 목적이 아닌 사람이 있다”며 한국방송공사와 조선일보 기자, 그리고 통일부 직원 등의 입북 거부의를사를 ‘구두로’ 현대에 통보하였다. 북한이 입북을 거부한 대상은 모두 19명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현대는 북한의 입북 거부 통보와 관계없이 유람선 출항을 강행시켰다. 북한의 특정인사 입북 거부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건 북한이 관광객까지도 저들 「입맛」에 맞게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북한의 금강산총회사가 지난 8월 ‘보장서’에서 “관광객의 직장-직위를 문제삼아 관광과 관련, 입-출북을 허용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을 스스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 1998년 11월 18일.; 동아일보, 1998년 11월 18일자 참조

시켜 강화도 장곶 앞바다에서 북한 공작원을 침투시키려 하였다.¹⁸⁷⁾ 그런가 하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한국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기도 하다.¹⁸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류의 구원사상인 대순사상의 음양합덕 해원상생 신인조화 도통진경 사상과 한국 국민의 염원인 민주주의를 이 땅에 토착화시키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정부나 지도자, 그리고 국민들은 깨닫고 방어적 사상을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적 효율성, 정치적 안정, 안보 등을 추구하는 일에 한정되지 않고 정의와 평등함을 근본 목표로 삼는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 정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문제가 있다. 즉 한국 정치의 실태는 정당제도, 의회운영, 정치가들의 행태 등 비민주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한국 정치의 과제이며, 정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한국 정치의 과제는 한국의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정치를 통해 국가 발전의 목표가 성립되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 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순사상 정치의 실현

아직도 한국은 참다운 민주정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가 많다. 한국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는 등 민주정치가 오도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논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개조와 정신개혁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구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을 실현하

187) 동아일보, 1998년 11월 21일; 세계일보, 1998년 11월 21일자 참조

188) 지난 11월 2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 국방, 정보위 등 3개 상임위는 일제히 한반도에 핵위기를 물고올 수도 있는 북한 금강리 지하핵시설 건설의혹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특사는 “북한 금강리의 지하시설이 핵과 관련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의심할 근거는 있지만 아직 핵시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한다. 동아일보, 1998년 11월 21일자 참조

기 위한 행동이념으로서 해원, 상생, 보은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순사상이 한국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대순사상 속에 있는 4대종지는 바로 인존과 자유, 평등과 사랑, 평화와 통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속에 최대한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음양합덕과 해원상생 정치가 제대로 행해져야 되겠다는 것이다.

진정한 음양합덕 정치의 실현은 자유·평등·인권의 존중 등과 같은 이념과 가치에 대한 신념이 정치 사회의 규범으로써, 그리고 생활 방법으로 나타날 때 가능한 것이다. 즉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의 기본 이념이 형식적인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야 정당간의 정치 규범으로 제도화되고 행동 양식으로 구체화될 때 진정한 민주정치를 향해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음양합덕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국민과 정치인, 혹은 정치권력과 정책적으로 소외되었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인과 노동자 등 대립적 개념의 의식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서로 상처되는 집단의 조화로운 화해와 합덕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는 것이다. 과거 독재권력에 항거하다 커다란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비민주적 정치체제에서 소외 당한 사람들의 쌓인 원을 풀어주는 해원의 정치도 필요하다. 해원의 정치란 척을 지지 않는 정치를 뜻한다. 척을 지지 않는 정치를 위해서는 민존정치(民尊政治)를 실현해야 한다. 원한을 풀어 주는 정치는 이제까지 쌓인 원한을 풀어 주는 과거지향의 정치라 한다면, 척을 지지 않는 정치는 앞으로 원한을 갖지 않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정치라 할 수 있다.

민존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반대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들의 의사를 경시하거나, 기본권을 유린하는 정치는 척을 지게 된다. 그리고 반대 정당과도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민주정치는 본질적으로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치권력이 형성되고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이다. 이러한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척을 지지 않는 정치이다. 국민들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자유의지에 따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보장해 주려는 정치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다.

합덕과 상생의 정치는 오늘날과 같은 복합적인 갈등 사회에 적합한 통치 이념이 될 수 있다. 상생은 남이 잘되게 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민주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대립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치이다. 이러한 민주정치를 실현하려면,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한 집단만이 잘되려는 행동을 해서는 구현될 수 없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과 집단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고 도와 주는 행동을 할 때 가능한 것이다. 합덕과 상생의 정치는 공존 공생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실제의 정치과정에서 반대집단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는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 보다는 극한적 대립과 무한적 경쟁만이 존재한 정치로 합덕의 정치가 아니라, 상극의 정치만이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여당과 야당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들도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극적 정치로 인하여 국민들은 냉소주의가 팽배되어 있고,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정당이 아무리 훌륭한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선거공약을 제시해도 신뢰하지 않고 기만적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극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정치의 도입이 절실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집단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대 정당과 반대 입장에 있는 정치가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치를 실천해야 하겠다.

이러한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적 정치를 실천하는 한편 신인조화를 이루어 자연과의 합일을 꾀한다면 자연스럽게 도통진경의 새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가 우선 모범을 보여야 한다. 현대 대중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는 정치적 통합의 상징이 되며,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적인 리더쉽을 발휘해야 하며, 사회 통합과 합리적인 정치 결정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인간은 완성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며, 어떤 인간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인간은 혼자서 고립되어 고고하게 살아갈 수 없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남과 더불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은 개성과 인격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는 아니다. 그 자체의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개인의 행위와 선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사회는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삶의 지혜의 축적인 각종 질서와 전통을 내면화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증산은 일찍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문공신에게 이르기를, “네가 허물을 뉘우치고 습성을 고치지 아니하면 앞날에 난경이 닥쳐오리라” 고 하였는가 하면, 또 어느 날 개벽 공사가 속히 결정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김광찬에게 이르기를,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마음을 돌려 어리석음을 벗으라. 너희는 죽는 일을 장차 나에게서 보라”¹⁸⁹⁾고 하였다.

증산은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제민혁세(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도를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 라고 하였는가 하면, “모든 일을 있는 말로 만들면 아무리 천지가 부수려고 할지라도 부수지 못할 것이고,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 여지가 없나니라”¹⁹⁰⁾고 하였다.

한국이 보다 발전된 민주정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서로 척을 짓지 말고, 원한을 풀어 주고, 서로 도와 주는 해원상생의 생활을 해야 하겠다. 여야 정당과 노사간에는 음양합덕 사상을 통한 화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인간은 스스로 겸허하여 신명과 조화를 이루는 신인조화의 길을 통해 도통진경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구성원 각자가 지극한 평안을 누리는 이상사회이며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은 세계 인류를 위한 구원사상으로 밝혀진 대순사상, 특히 4대종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89)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행록: 4-37, 4-55.”, p. 72, 79

190) 같은 책, “교운: 1-16, 1-36.”, p. 160, p. 170

VII. 결 론

한국 정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자유로운 개인과 인간의 평등화를 추구하면서, 국민의 지지로 합법적인 정치 권력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치의 발전은 국민이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의 참여에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에 있는 것이다. 즉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자주적 인격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적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민주정치는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개인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일정한 불가양(不可讓)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 이상의 달성이 합리적,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척을 짓지 않고 원한을 풀어 주며, 남을 잘 되게 하는 올바른 마음을 갖고 서로를 도와주는 가운데 상호 조화를 이루는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적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밝힌 것처럼 우주의 모든 질서와 순환은 천지 도수(天地度數)에 의해 이루어지며 만약 이 천지의 도수를 거스르면 우주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이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온갖 비극은 음양합덕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나오며 이의 해결은 해원상생 사상의 원리를 따를 때 가능해진다. 세상의 모든 참혹한 전쟁과 범죄의 비극은 바로 우주적 질서의 왜곡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신인조화를 통해 신명과 인간이 하나가 되면 이같은 비극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보통 이같은 비극의 연원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비극의 순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며, 증산은 일찌감치 이같은 비극의 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파하며 천지공사를 통한 도통진경의 이상향을 추구했다. 대순사상은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온갖 비극의 원천을 끊고 후천세계로 표현되는 절대선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셈이다.

이같은 대순사상을 통하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구현하고 자아실현에 필요한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이념 구현도, 한국 민주정치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적 정치의 실현은 한국의 경우 이상론에 치우칠 우려도 있으므로 한

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적절한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요소를 갖추어 나갈 때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대순 사상과 한국 정치의 관계를 살펴본 서설적인 연구였다. 이제까지 한국 정치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대순사상과 연관지은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대순사상과 한국 정치에 관한 학계의 관심을 고양시키고, 한국 정치가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순사상의 4대 종지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관점에서 시도한 것이며, 나아가 인류가 오래 꿈꾸어온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대순 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구현이 절실함을 논구한 것이다.

한국에는 다행히 뛰어난 민족적 지도자와 사상가들이 있었고, 우리는 마침내 민족과 인류의 장래에 관해 뛰어난 해안을 보여준 증산과 같은 종교 지도자를 맞을 수 있었다. 대순진리의 종교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을 이룰 수 있는 전통 깊은 민족 종교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증산이 나던 때도 지금처럼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져있었으며 미래의 역사는 암울하기만 했다. 그러나 증산은 선천시대를 진단하고 선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해원과 상생을 부르짖었으며 신인조화를 통해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증산은 선천시대는 원한이 너무나 커서 삼계에까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참혹한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원한으로 인한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천지도수를 바로 잡고, 해원을 통한 상생으로 선경을 만들 수 있는 조화정부(造化政府)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다.

본 논문은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국가의 개념을 명쾌하게 담고 있는 대순사상이 한국 민족의 고유한 인존 사상이며, 이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울 수 있는 구원의 사상임을 살펴 보았다. 세계 평화의 원동력으로서 대순사상은 인류 구제를 위한 증산의 천지공사로 인해 마련된 후천세계를 이루는 길을 제시했다. 민주정치가 지향하는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이 바로 대순사상의 후천세계, 곧 도통진경이 말하는 이상세계가 아닐 수 없으며 본 논문을 계기로 대순사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저 서

가. 한 국

-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전경(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 대순사상학술원(편),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1996)
- 대순사상학술원(편),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1997)
- 대순회보(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
- 강영계 편저, 종교와 인간(서울: 종로서적, 1993)
- 곽신환, 주역의 이해(서울: 서광사, 1990)
- 권규식, 종교의 사회학적 이해(서울: 이문출판사, 1995)
- 김동원, 이성과 자연(서울: 한승, 1990)
- 金容善·成晉基·李容煥 편, 人間과 價値(서울: 전남대 출판부, 1994)
- 金殷洙 譯(桂延壽 編), 桓檀古記(서울: 가나출판사, 1985)
- 金泰吉·尹明老·崔明官 옮김/S. P. Lamprecht, 서양철학사(서울: 을유문화사, 1996)
- 金洪喆·金相日·趙興胤, 韓國宗教思想史 IV.(서울: 연세대출판부, 1992)
- 金禧慶 옮김/村山智順, 朝鮮의 鬼神(서울: 동문선, 1993)
- 盧吉明, 韓國新生宗教의 形成過程 研究(서울: 서강대사회문제연구소, 1976)
- 대학윤리교재편찬회 편, 인간과 윤리(서울: 지구문화사, 1997)
- 都珖淳 편, 道家思想和 道教(서울: 범우사, 1996)
- 림영창·배용덕, 甌山神學概論(서울: 건강도서, 1982)
- 문창주, 한국정치론(서울: 일조각, 1980)
- 문현명·이부현·이찬호 옮김/T. Z. Lavine, 소크라테스에서 사르트르까지
(서울: 동녘, 1994)
- 朴英官 역/J. N. D. Anderson, 비교 종교론(서울: 1995)
- 西江大學校哲學研究所 편, 哲學的 神論(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 세계대백과사전(서울: 동아출판사, 1996)
- 서광선, 종교와 인간(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95)
- 宋鎬洙, 韓民族의 뿌리思想(서울: 인간연합, 1983)
- 申福潤 역/Louis Berkhof, 基督教 神學概論(서울: 성광문화사, 1991)
- 申午鉉, 人間의 本質(서울: 형설출판사, 1996)
- 심상태, 인간: 신학적 인간학 입문(서울: 서광사, 1989)
- 安耕田, 甌山道の 眞理(서울: 대원출판, 1996)
- 安昶範, 民族思想의 源流(서울: 교문사, 1995)
- 楊茂木, 韓國政黨政治論(서울: 법문사, 1983)
- 楊茂木 역, 현대민주주의(서울: 거 목, 1987)
- 柳正福, 人間과 倫理(서울: 한울출판사, 1996)
- 이기상 · 이말숙 옮김/W. Weischedel, 철학의 뒤안길(서울: 서광사, 1990)
- 이명성 옮김/Immanuel Kant, 순수이성비판(서울: 홍신문화사, 1993)
- 이민재 옮김/Charls Robert Darwin, 종의 기원(서울: 을유문화사, 1995)
- 李完裁 · 許在允 · 申龜鉉 · 林洪彬 공저, 人間과 倫理(서울: 영남대 출판부, 1997)
- 李英鎬, 疏外된 삶과 表象의 세계(서울: 한길사, 1991)
- 이재기 옮김/Erich Fromm, 종교와 정신분석(서울: 두영, 1995)
- 李載昌 · 떡정 · 월포라 라후라 외, 現代社會와 佛敎(서울: 한길사, 1981)
- 李載皇 역/B. Russell, 종교는 필요한가(서울: 범우사, 1987)
- 李正立, 大巡哲學(김제: 대법사편집국, 1947)
- 李鍾聲, 神學的 人間學(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 이종후 · 정영도 옮김/Karl Jaspers, 초월자의 암호(서울: 이문출판사, 1996)
- 이희재 옮김/Samuel P. Huntington, 문명의 충돌(서울: 김영사, 1997)
- 張秉吉, 大巡宗教思想(서울: 대순종교사상연구소, 1987)
- 全樂熙, 東洋政治思想研究(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5)
- 정인재 옮김/方東美, 중국인의 생哲學
- 정진홍, 신을 찾아 인간을 찾아(서울: 집문당, 1994)
- 趙淳昇 역/F. M. Watkins, 西洋의 政治傳統(서울: 을유문화사, 1988)
- 秦教勳, 哲學的 人間學 研究(서울: 경문사, 1982)

蔡弼近, 比較宗教論(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최민홍 옮김/F. W. Nietzsche,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서울: 집문당, 1994)

황우연, 天符의 脈(서울: 우리출판사, 1995)

허재윤 옮김/B. Weissmahr, 철학적 신문(서울: 서광사, 1994)

『舊約聖書』 『周易』 『左傳』 『中庸』 『孟子』 『中庸』

『雜阿含』 『論語』 『老子』 『주자』 『莊子』

『周易傳義大全』 『道德經』

나. 서 양

Anthony Wallas, Religion: An Anthropological View(New York: Random House, 1966)

Aristotle, The Politics.

Arnold Gehlen, Der Mensch, Seine Natur und Seine Stellung in the Welt, Berlin, 1941)

Baruch de Spinoza, Ethics, IV.

Carl L. Becker, Modern Democracy(New Haven: Yale Univ. Press, 1941)

Cassell, Latin Dictionary.

Charls Robert Darwin,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ans of Natural Selection(1895)

E. Cassirer,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Vol. 2.(Darmstadt. 1953)

Edward Shils, Political Development in New States(The Hague, London, Paris: Mouton & Co., 1965)

Edward R. Tylor, Primitive Culture(New York: Harper & Row, 1958)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New York: The Free Press, 1965)

Erich Fromm, Man for Himself(New York: Holt, 1947)

F. J. Thonnard, VI. Dialogues Philosophiques, III.

F. W. Nietzsche, Werke, hrg. von Karl Schlechta(München, 1977)

- F. W. Nietzsche, *The Will to Powers*(1901)
- Giovanni Sartori, "Democracy,"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IV(New York: Macmillan Co., 1968)
- Harold D. Lasswell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New Haven: Yale Univ. Press, 1950)
- H. J. Laski, *Democracy in Crisis*(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33)
- H. J. Laski, *Liberty in the Modern State*(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48)
- H. Arendt, *Vita Activa*(New York: 1960)
- Immanuel Kant, *Anthropologie in Prag,atoscjer Hinsicht*, herauagegeben von Karl Vorländer, Leipzig, 1922.
-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1781)
- Immanuel Kant, *Critique of Pure Reason*(1787)
- J. H. Pestalozzi, *Abendstunde eines Einsiedlers*(1780)
-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1971)
- John Locke, *Essays on of Nature*, Oxford 1958.
- J. Wisdom, *The Philosophy of Religion*(N. J.: Prentice-Hall, 1970)
- J. Z. Young,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Man*, London, 1971.
- K. Marx,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losophie*.
- Karl-Heinz Weger(ed.), *Religionskritik von der Aufklärung bis zur Gegenwart*.
- Keith A. Roberts,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Homewood: The Dorsey Press, 1984)
- L. Lipson, *The Democratic Civiliza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 M. Banton(ed.), *Anthropological Approches to the Study of Religion*(1966)
- M. J. Crozier, S. P. Huntington, and J. Watanuki, *The Crisis of Democracy*(New York U. P., 1975)
- Milton J. Yinge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New York: Macmillan, 1970)
- Maurice Duverger, *Sociologie Politique*(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8)
- Max Scheler,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Bern, 1973)

- Protagoras, Fragment, 1. Frederick, A History Philosophy(1963)
- Roger Trigg, Ideas of Human Nature: Historical Introduction(Blackwell, 1988)
- Roy C. Macridis,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Movements and Regimes(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3)
-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 Seymour M. Lipset, Political Man-The Social Bases of Politics(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3)
- S. P. Lampreche, Our Phiolosophical Traditons(1955)
- Stephen K. Sanderson, Macrosociology(New York: Harper & Row, 1988)
- Strauss, Leo, Natural Right and History, Chicago, 1953.
- T. Z. Lavine, From Socrates to Sartre(New York: Bantam Books, 1984)
- W. Lippmann, A Preface to Morals(New York: The Macmillan Co., 1929)
- Weston La Barre, The Human Animal(Chicago, 1954)
- Wilhelm Weischedel, Die Pholosophische Hintertreppe(München, 1973)
- William E. Rappard, The Crisis of Democracy(Chicago: Chicago Univ. 1938)

2. 논문

- 高南植, “典經에 나타난 道通眞境,”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金正泰, “道通眞境의 실현과정에 관한 研究,”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림영창, “大巡思想의 神觀攷(一),”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림영창, “大巡思想의 神觀攷(二),”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림영창, “太極兩儀(陰·陽)와 그 畝德에 관한 考察,”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림영창, “解冤相生의 多元的 考察,”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림영창, “甌鼎思想의 極致; 道通眞境,”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朴昇植, “道通眞境의 宗教的 意義,”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朴龍哲, “道通眞境에 대한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裴圭漢, “大巡 思想의 道通眞境과 理想世界에 대한 現代的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安鍾沄, “歷史上 道通人과 到來할 道通眞境 推論,”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劉勝鍾, “道通眞境의 淵源과 思想的 特徵,”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尹起鳳, “宗教的 理想世界와 道通眞境,”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李京源, “道通眞境의 理想的 特性에 관한 研究,”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楊茂木, “한국의 의회정치와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18집(서울: 한국정치학회, 1984)
- 楊茂木, “한국정치발전에 관한 一고찰,” 「연구논집: 제11집」(서울: 동국대학교대학원, 1981)
- 楊茂木, “14대 총선과 국민의 선택,” 「새물결」(서울: 봄호, 자유평론사, 1992)
- 楊茂木, “선거법 고쳐야 한다,” 「자유공론」(서울: 5월호, 자유공론사, 1992)
- 楊茂木, “大巡思想과 韓國政治,”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楊茂木, “救援 眞理로서의 陰陽合德과 民主主義,”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楊茂木, “天地公事와 民主主義,”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楊茂木, “救援思想으로서의 神人調化,”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楊茂木, “통일 기반 사상으로서의 解冤相生,”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楊茂木, “宗教와 文學을 통한 道通眞境 思想의 考察,”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韋日春, “莊子の 无无思想,” 道家思想和 道教(서울: 범우사, 1996)
- 李京源, “道通眞境의 思想的 特性에 관한 研究,”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李恒寧, “解冤相生 思想의 現代的 意義,”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李恒寧, “道通眞境 思想의 現代的 意義,”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鄭大珍, “陰陽合德의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鄭大珍, “神人調化의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鄭大珍, “解冤相生의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鄭大珍, “道通眞境의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曹泰龍, “神人調化를 통해 본 修道의 意味,”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曹泰龍, “道通眞境의 實相,”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朱賢哲, “道通眞境의 實踐的 背景,”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

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崔東熙, “道를 통한 참된 境地에 대한 이해,”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
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3. 기 타

중앙일보, 1997년 5월 15일

중앙일보, 1998년 11월 15~18일

세계일보, 1998년 11월 15~18일.: 21일

동아일보, 1998년 11월 11일.: 15~18일.: 21일

조선일보, 1998년 11월 11일.: 15~18일

The Washington Times, 28. 5. 1997